

통분 94-8-29

월간
북 한 동 향

1994. 7.

통정 보 일분 석 원실

留 意 事 項

- ◎ 統一院은 政府의 北韓資料 開放化施策 및 北韓 研究의 深層化를 위해 91年 10月號부터 本資料를 「一般文件」으로 發刊하여 配布處를 調整 하였습니다.
- ◎ 本文中에는 北韓의 對南 宣傳煽動 內容이 原文 그대로 收錄되어 있음을 留意하시고, 適宜 活用하되 管理에 留意하시기 바랍니다.
- ◎ 本 資料는 原形대로 保管하고 繼續 活用の 必要가 없을 경우에는 當院에 返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目 次

I. 概 況	5
1. 對內動向	7
2. 對南動向	8
3. 對外動向	9
II. 對內動向	11
1. 통일문제에 관한 김정일의 업적찬양(7. 4)	13
2. 김일성 사망관련 동향(종합)	14
가. 사망 발표 및 장의위원 구성	14
나. 사망이후 동향	16
3. 김정일 체제하에서도 기존정책노선 유지 시사(7. 11)	23
4. 김일성 사망후 중단된 산업생산활동 보도재개(7. 13)	24
5. 김일성 사망후 추모·충성 맹세 문예물 양산(종합)	25
6. 김정일에 의한 “당·국가·혁명무력 영도”강조(7. 20)	27
7. 김일성 사망후 당의 역할 강조(7. 22)	28
8. 생산증대를 위한 대내경제 선동전개(종합)	30
9. 휴전(전승) 41주년 행사관련 동향(종합)	31
10.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경제시책관철 독려(종합)	32
11. 其他 對內動向	34

Ⅲ. 對南動向 45

1.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표접촉(종합) 47
2. 국무총리 국회 국정보고 비난(7. 1) 48
3. 『7·4 남북공동성명』 22주년 맞아 <10대 강령>을 통한
단결 주장(7. 4) 49
4. 『조평통』, 『구국전위』 사건 수사 비난(7. 5) 50
5. 『주한미군』을 소재로 한 대남비난(7. 7) 51
6. 『남조선 조문단』 방북환영(7. 14) 52
7. 김일성 사망관련 정부의 조의금지조치 격렬비난(7. 15) ... 52
8. 『조의불허』 조치이후 대남비방 강화(종합) 54
9. 한·일 정상회담 비난(7. 26) 55
10. 대통령의 『정상회담』 언급 비난(7. 27) 56
11. 귀순자를 “인간쓰레기”로 매도(7. 28) 57
12. 세계일보 前사장 『조문방북』을 적극 비호(7. 29) 58
13. 귀순자 기자회견 내용을 조작으로 매도(7. 30) 59
14. 『남북 인간띠 잇기대회』 공동개최 제의(7. 31) 60
15. 其他 對南動向 62

Ⅳ. 對外動向 65

1. 『조선국제합영총영사』 제7차 이사회 개최(7. 5) 67
2. 김일성, 『총련지부 일꾼대회』에 축전(7. 7) 69
3. 『조·중 군사동맹조약』 체결 33주년 행사동향(7. 7) 71
4. 미·북회담 의제로 『한반도 핵문제』 제기시 ‘난항’
경고(7. 8) 73

5. 일본 민간경제교류 대표단 방북(7. 12)	74
6. 김정일, 해외동포 조문단을 위한 『위로연』 개최(7. 19) ...	75
7. 미·북 3단계 회담관련 외교부대변인 기자회견(7. 25) ...	76
8. 김용순 당비서, 미국 CNN-TV 방송사 일행과 회견(7. 31)	78
9. 其他 對外動向	78
V. 北韓 및 周邊國 動向日誌	81
1. 북한 주요동향	83
2. 김일성 사망관련 조문동향	90
3. 북한의 대남 비난·선동 방송	110
4. 주변국 주요동향	128
 〈資 料〉	
1.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7. 2)	153
2. 우리측의 『조문단』 파견을 환영하는 『조평통』 담화문(7. 14)	157
3. 『김일성 추도대회』에 행한 김영남 추도사	158
4. 정부의 『조문불허』조치에 대한 『한민전』규탄성명(7. 20)	169
5. 미·북 3단계 회담관련 외교부대변인 기자회견문(7. 25)	172
6. 북한 정치범관련 국제사면위 발표문(7. 30)	174
7. 김일성 사망관련 장의위원(272명) 인적사항	184

I. 概 況

I. 概 況

1. 對內動向

북한은 『특별방송』을 통해 김일성 사망(7. 8)을 34시간 후에 보도(7. 9)하는 한편, 사망원인에 대해 “심근경색이 발생되고 심장쇼크가 합병되어, 치료한 후에도 심장쇼크가 증악되어 사망했다”고 발표, 급병에 의한 『자연사』임을 밝혔다.

장례기간(7. 8~17) 발표와 함께 273명으로 구성된 국가 장의 위원회, 영구 안치장소(금수산의사당), 외국 조문단의 『불허결정』 등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장례일정과 관련, 장례식 2일전에 “인민들의 절절한 심정과 요구를 반영”한다는 이유로 조문기간을 2일간 연장하고, 영결식(7. 19)과 『추도대회』(7. 20)를 분리하여 진행하였다.

장례기간동안 대내외 조문동향을 집중보도하는 가운데 각계각층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세 모임』, 『추도대회』 등을 통해 김정일 후계체제는 “김일성의 뜻”임을 내세워 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당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고, 김정일이 “당과 국가와 혁명 무력을 진두에서 영도”하고 있다고 주장, 김정일 체제를 기정사실화 하였다.

향후 김정일 체제가 “우리식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 등 기존정책노선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7. 11)하는 가운데 일시 중단되었던 대내경제 선동을 재개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면서, 김일성 사망에 대한 슬픔을 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세”로 연

결시켜 산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로자들의 노력경쟁을 유도하려 하였다.

2. 對南動向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전후하여 그동안 자제해 오던 대남비방을 김일성 사망과 관련한 우리정부의 『조문불허』 조치를 계기로 각종 보도매체·사회단체들을 동원하여 대통령에 대한 거명비방과 함께 격렬하고 악의적인 비난을 재개(7. 13)함으로써 또다시 남북관계를 긴장국면으로 전환시켰다.

특히 『조평통』 대변인 담화(7. 14), 『한민전』·『범민련』 등 외곽단체의 성명을 통해 우리측 내부 일각에서 돌출한 『조의문제』를 소재로 극렬한 대정부 비난을 전개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합법적·비합법적인 “추모의식” 강행을 선동함으로써 정부와 이들 『조의』 거론자들과의 갈등을 증폭시켜 국론분열을 꾀하려 하였다.

한편 국무총리의 국회 국정보고 등에서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핵투명성 보장을 촉구한데 대해 “도발적 발언,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난(7. 1)하면서도, 남북정상회담 실무 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두차례의 대표접촉에서 대표단규모, 회담형식, 보도문제 등을 비롯한 14개항의 절차문제 합의에는 비교적 순조롭게 응해 왔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으로 북측대표 김용순은 대남서한(7. 11)을 통해 “우리측의 유고로 예정되었던 북남 최고위급회담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공식적인 연기통보를 해음으로써, 정상회담은

무기한 연기되게 되었다.

이외에도 박보희 세계일보 전사장의 방북에 대한 정부의 사법처리 방침, 귀순자 강명도(강성산총리 사위) 기자회견(7. 27) 등을 극렬히 비난한 반면, 조선종교인협의회 대변인 담화(7. 31)를 통해 『남북인간띠잇기대회』 남북공동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3. 對外動向

김일성 사망과 관련한 친북국가·단체들의 조전·조문동향을 집중 보도하는 한편, 『해외동포 조문단』을 위한 『위로연』을 개최(7. 19),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독려했고, 특히 『조총련』을 대상으로 김정일에 대한 “충직한 해외조직”으로 전환할 것과 적극적인 『애국사업』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앞서 처음 개최된 『총련지부 일꾼대회』(7. 7~8)에 보낸 『축전』을 통해 조직의 활성화, 『민족교육』의 중요성, 일본인들과의 친선단결을 강조하고 통일에 대한 “국제적 환경 마련”을 요구함으로써 조총련의 대남사업 부문에 대한 분발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김일성 사망으로 일시 중단(7. 8)되었던 미·북 3단계 회담재개와 관련, 뉴욕에서 미국과의 실무접촉을 통해 회담재개(8. 5)를 합의(7.21)하는 한편, 동회담과 관련한 외교부대변인 기자회견(7. 25)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우리 정부입장에 대해 “결정적 장애”조성이라고 비난, 북한핵문제 해

결에 한국정부를 배제하려는 기존 입장을 또다시 드러내었다.

한편 『조·중 군사동맹조약』 체결 33주년(7. 11)을 맞아 쌍방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 발전이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임을 재확인하였고, 평양에서 『조선국제합영총회사』 제 7 차 이사회 개최(7. 4~5)를 통한 조총련과의 합영·합작사업토의, 일본민간경제교류 대표단과의 비정부간 무역·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김일성 사망이후 처음으로 방북취재를 허용한 미국 CNN-TV 방송사 일행과 김용순 당비서와의 회견(7. 31)이 있었다.

Ⅱ. 對 內 動 向

II. 對 內 動 向

1. 통일문제에 관한 김정일의 업적 찬양(7.4)

북한은 7월 4일 평양방송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방제를 비롯한 그들의 통일·대화관련 각종 제의·방침 등을 선전하는 가운데 김정일이 『7·4 남북공동성명』 초안 작성에 깊이 관여하는 등 통일문제에 관한 업적이 지대하다고 선전하였다.

이번 평양방송이 보도한 요지는 김일성이 새로운 조국통일방침을 제시할 때마다 김정일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 왔다고 하면서 『7·4 공동성명』에서 통일의 3대원칙, 『조절위원회』 구성문제 등이 포함된 것은 김정일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김정일의 통일에 대한 신념과 의지로 “통일의 그날은 더욱 가까워 오고 있다”고 그의 업적을 찬양한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 후계체제 완성을 위해 각 분야의 업적찬양, 이상화선전 등을 강화하고 있는 바, 그 예를 보면 『김정일 노작』 강좌 등 김정일 업적 찬양 연재물 게재를 비롯한 찬양·이상화 보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김정일 당 사업 시작 3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6. 8~16)하는 한편 김정일 이상화의 일환으로 “세 쌍 무지개 출현”과 같은 자연현상까지 조작하여 유포(7. 3)하고 있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결정된 이후, 그에 대한 업적찬양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주로 대내적인 문제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대남·외교분야에 대한 찬양보도가 빈번해지고 있는 바, 그 예

를 보면 『남북 기본합의서』등 남북대화 성과가 김정일 업적이라고 선전('92. 8. 9)하였고, 또한 김정일을 “조국통일의 향도자”(92. 10. 11)라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NPT탈퇴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선전('93. 3. 18)하기도 하였다.

〈김정일 작성 담화·논문의 분야별 현황〉

(’93. 3)

구분	정치·사상	경제	문화·예술	사회	군사	대외	대남	계
건수	70	26	54	10	8	4	2	174

이와 같이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앞둔 시점에서 통일에 대한 김정일의 업적을 선전하고 있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김정일 후계체제완성을 위한 호기로 인식하는 가운데 정상회담의 개최를 그의 공으로 돌려 지금까지의 경제정책 실패 등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한편, 『대내적 지도자상』에서 『민족의 지도자상』으로 부각시키고, 테러와 납치, 도발 등 호전적인 그의 이미지를 평화주의자인양 호도해 보려는 속셈에서 비롯된 것이다.

2. 김일성 사망 관련 동향(종합)

가. 사망발표 및 장의 위원 구성

북한은 7월 9일 정오 당 중앙위 및 중앙군사위, 국방위, 중앙인민위, 정무원 공동명의로 라디오 및 TV 특별 방송을 통해 김일성이 “1994년 7월 8일 2시에 사망”하였다고 보도하는 한편,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이른바 『의학적 결론서』를 통해 “심근경색이 발생되고 심장쇼크가 합병되어, 치료를 한 후에도 심장쇼크가 증악되어 사망했다”고 하면서, “7월 9일 진행한 병리해부검사에서 질병의 진단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장례기간(7. 8~17)과 영결추도대회(7. 17) 발표와 함께 김정일, 오진우, 강성산 등 273명으로 국가 장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영구는 금수산의사당(주석궁)에 안치한다고 하면서 “외국의 조의대표단은 받지 않기로 결정되었다”고 보도하였다.(자료편 “장의위원”명단 참조)

김일성 사망과 관련한 북한의 이번 공식발표와 같이 그의 사망원인이 급병에 의한 자연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근거는 김일성의 연령이 82세로 고령인데다 오래 전부터 심장병을 앓아 왔으며 심장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다는 점, 장의위원회 구성에서 권력 서열상에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 7월 6일부터 북한의 방송 논조에서 김정일 우상화가 이전에 비해 급격히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사망 발표문에서 외국 장례 조의 사절단을 받지 않기로 한 점과 시신에 대한 해부검사를 실시하였다고 발표한 점 등은 김일성 사망 원인에 다소의 의문을 제기하는 소지가 될 수도 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273명의 장의위원 서열과 관련하여 장의위원 20위 이내의 서열은 기존 당 서열과 차이가 없었으나, 특이한 것은 장의위원장을 지정하지 않고 김정일을 장의위원 서열 1위로 발표한 점, 미망인 김성애는 서열 104위로 발표했으나 김평일을 장의위원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김성애는 발인식에서는 14위로 앞당

겨 발표) 그리고 23위로 의외의 인물 김철수가 발표된 점 등이라 할 수 있다.

김일성 사망으로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할 경우, 당 총비서직과 주석직이 승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당 총비서직은 노동당 규약에 6개월에 1회이상 소집하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해 12월에 제6기 21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기간상으로는 장례기간 중이나 장례직후 선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석직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고(헌법 제91조) 임기는 5년(헌법 제106조)으로 되어 있으며, 당규약이나 헌법에 유고시 승계조항이나 잔여 임기중 권한 대행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정일의 당 총비서직과 주석직 승계를 위한 당 전원회의나 최고인민회의가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소집되어야 할 것이다.

나. 사망이후 동향

1) 대내동향

김일성 사망에 대한 각국의 조문 동향과 북한내 각계각층 반응을 집중 보도하는 가운데 “비통함과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길이 위대한 수령님께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 길”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특히 당 및 군부 인사들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 맹세를 잇따라 소개하였다.

장의 행사와 관련하여 김정일을 비롯한 당·정 간부들은 7월 11일 밤 9시 『금수산의사당』에서 조의식을 개최하고, 이를 TV화면을 통

해 김일성 시신을 처음으로 공개한데 이어 7월 13일에도 김정일이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조문한 장면을 공개하였으며, 일반주민들에게는 북한의 각 지역에 있는 김일성 동상에 조의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장의위원회는 7월 15일자 『공보』를 통해 돌연히 장의 일정 연기를 발표, 조문기간을 7월 18일까지로 2일간 연장하고 영결식과 추도대회를 분리, 영결식은 7월 19일로, 추도대회는 7월 20일로 연기하였다.

북한이 발표한 연기 이유는 “인민들의 절절한 심정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라고 주장하였으나, 유례가 없는 이번 장례기간 연기는 단순한 장례 절차상의 기술적 문제점이 발생했거나, 김일성 애도 분위기를 이용, 내부 결속 강화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우리측의 『조문파동』을 의식, 대남교란·선동에 이용해 보려는 의도와 『추도대회』의 추도사에서 표명할 향후 정책방향의 조율문제 또는 권력승계상의 이상기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영결식 행사 동향을 보면 7월 19일 오전, 금수산의사당(주석궁)에서 발인식을 가진 후, 평양시내를 한바퀴 돌아 영구를 다시 금수산의사당에 안치하는 순서로 김일성 장의식을 진행하였으나, 사전에 행사시간이나 장소, 장지 등 일체를 밝히지 않고, 장의식 당일 녹음 실황중계로 정오부터 3시 35분까지 관련행사를 보도하였다.

발인의식은 금수산의사당앞에 인민군 육·해·공군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김정일이 당·정간부,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등을 대동하고

영구에 조의를 표한 후, 발인식장에 나와 발인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발인식장에 나온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의 서열은 최초 장의위원 발표(7. 9)시 서열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강희원(장의위원 순위 18위), 이선실(22위), 김철수(23위)가 누락되었고, 반면 장의위원 순위 104위였던 김일성의 처 김성애가 공식직함이 아닌 “미망인 김성애 동지”의 호칭으로 14번째 호명된 것이 특징이다.

《김일성 발인식 참석자》

- | | | | |
|-----------|---------|---------|---------|
| 1) 김정일 | 2) 오진우 | 3) 강성산 | 4) 이종욱 |
| 5) 박성철 | 6) 김영주 | 7) 김병식 | 8) 김영남 |
| 9) 최 광 | 10) 계응태 | 11) 전병호 | 12) 한성룡 |
| 13) 서운석 | 14) 김성애 | 15) 김철만 | 16) 최태복 |
| 17) 최영립 | 18) 홍성남 | 19) 양형섭 | 20) 홍석형 |
| 21) 연형묵 | 22) 김기남 | 23) 김국태 | 24) 황장엽 |
| 25) 김중린 | 26) 서관희 | 27) 김용순 | 28) 김 환 |
| 29) 김복신 | 30) 김창주 | 31) 김윤희 | 32) 장 철 |
| 33) 공진태 | 34) 윤기복 | 35) 박남기 | 36) 전문섭 |
| 37) 류미영 등 | | | |

발인식에 이어 영구는 금수산의사당을 출발, 금성거리-영흥네거리-비파거리-혁신거리-전승광장-영웅거리-천리마거리-충성의다리-통일거리-낙랑다리-청년거리-문수거리-옥류교를 거쳐 김일성광장에 도착하여 약 15분간 머문 후 만수대언덕-개선문광장을

거쳐 금수산의사당으로 되돌아온 후 김정일을 비롯하여 당·정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결식을 진행한 후 안치되었다.

북한방송은 이날 영구가 지나가는 길목에 약 200만명의 근로자·청년학생들이 운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연도 표정을 3시간 35분간 실황녹화중계하면서 “우리 인민은 오늘의 슬픔을 백배천배 힘과 용기로 바꾸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대로 경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 혁명무력의 최고 영도자로 영원히 받들어 모시고 일심단결된 위력으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임을 역설하였다.

이번 김일성 사망 관련 행사중 마지막 행사인 추도대회는 7월 20일 10시부터 1시간 20분간 『김일성광장』에서 김정일, 당·정·군 간부, 장의위원, 항일혁명투사, 혁명열사, 해외동포, 각국 외교대표, 『한민전』 대표, 한덕수, 이인모, 각 부문 일군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는 바, 진행순서는 추모묵상(약 2분), “김일성 장군의 노래”연주(약 2분)가 끝난후, 부총리 김영남의 추도사(약 40분)를 비롯하여 노동자계급 대표(평양화학력발전연합기업소 노력영웅 허영지), 농업근로자 대표(평양시 장천협동농장관리위원장 노력영웅 김명영), 인민군 대표(차수 김광진), 해외동포 대표(총련 책임부의장 허종만)등 각부문 대표의 추도와 김정일에 대한 충성결의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추도식에 거명된 고위 인사들의 서열을 장례식 서열과 비교하여 볼 때, 장례식의 경우 연형묵(21번째) 다음에 김기남(당비서)이었으나 추도식의 경우 연형묵(전 정무원 총리) 다음에 차수 6명

이 추가된 다음에 김기남(28번째)을 거명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같이 영결식과는 달리 추도식에 차수들이 참가하고 이들의 거명순위가 앞으로 당겨진 것은 김정일 후계자 응립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군 출신 혁명 1세대들의 김정일에 대한 지지와 충성을 과시함으로써 김정일을 위요한 소장파 지지세력과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일에 대한 신뢰감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향후 북한체제에 군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군 고위 인물 거명 순위〉

() 거명순위

장 의 위 원	영 결 식	추 도 식
오진우(2), 최 광(9)	오진우(2), 최 광(8)	오진우(2), 최 광(9)
김철만(14), 김국태(25)	김철만(14), 김국태(22)	김철만(15), 리을설(22)
전문섭(38), 김익현(43)	전문섭(35)	최인덕(23), 백학림(24)
백학림(53), 리을설(77)		김봉률(25), 김광진(26)
김봉률(78), 김광진(79)		김익현(27), 김국태(29)
		전문섭(42)

한편, 이번 추도대회에서 김영남 부총리는 추도사를 통해 “영도의 후계문제를 해결해 준 것”을 김일성 공적으로 치부함으로써 김정일 지도체제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김정일이 김일성의 “사상과 영도, 고매한 덕망을 그대로 이어받은 또 한 분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추켜 세워 김일성의 후광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었으며, 또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대내적으

로 3대 혁명노선, 대남면에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3대 원칙과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그리고 대외면에서 자주·평화·친선 이념노선을 강조함으로써 기존 정책노선을 일단 답습할 것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김정일 지도체제 구도를 확연히 함으로써 반대세력에 의한 권력체제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체제 기반이 공고히 될 때까지 일단 기존 정책노선을 견지, 정책 변경에 따르는 정치적 위험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이번 추도사에서 『당 중앙위원회』 중심의 단결을 강조함으로써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향후 김정일지도체제에 당 중앙위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당적 지배체제』 도입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2) 대남동향

북한은 7월 15일과 7월 20일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을 내세워 『국민에게 드리는 글』과 『대변인 담화』, 『성명』 등을 각각 발표, 정부의 조의금지 조치에 대해 “야만집단의 반인륜적인 행위”로 격렬하게 비난하고, 지난 6월 24일부터 자제해오던 우리 대통령에 대한 거명비난을 재개하면서 우리측 일부 재야단체 및 운동권 학생들의 추도 집회개최를 선동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는 한국내 “각당 각파 인사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비통한 심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가운데 『남조선 조문단』의 방북을 환영하고, 조문객의 신변안전 보장 및 편의제공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번 『한민전』의 담화 및 성명에서 주목되는 것은 “속적인 미국이나 일본도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음”을 주장, 조의표시에 대한 한국민의 정서적 거부감을 비난하면서 조의표시 문제를 “정상회담의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한 것과 『비합법적』으로라도 추모식을 거행하고 조의를 표시할 것을 선동하면서 구체적인 추모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긴장국면 조성이라는 그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우리내부 일부 야당 의원과 재야·운동권에서 『조문』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계기로 이를 쟁점화하여, 국론 분열을 유도함으로써 정국 불안정을 야기시켜 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3) 조문동향

북한은 각국의 『조전』 내용 및 조문 사실을 신속히 보도하면서 각국 지도자들이 김일성 사망에 “비통한 심정”을 느끼고 있으며, 김일성의 “불멸의 업적을 찬양”한 것처럼 왜곡·선전하였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등소평 등의 조전 내용과 조문 사실을 상세하게 보도한 반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서운함 표시(7. 12, 모스크바방송) 이후에야 뒤늦게 엘친 대통령의 애도성명을 보도하였다.

김일성 사망과 관련한 외국 및 해외 친북교포 단체의 조문활동의 형태는 조전, 조문, 화환 증정, 애도기간 설정 등 다양하였으며, 해외 친북단체 및 교포중 일부가 『조시』 또는 조의문을 보내거나 추도집회를 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전』은 국가수반급이 100여개국의 130명, 정당·사회단체는 70여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해외교포 단체의 경우는 조총련과 그 산하

의 단체들과 해외 『범민련』 단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별첨 자료참조)

조문 방문은 주로 조총련 조직과 해외 『범민련』조직 구성원들이 평양을 방문하였고, 해외에서는 주재국 북한대사관, 일본의 조총련 본부, UN대표부 등에 조문장소를 마련, 주재국 친북인사들이 조문 하기도 하였다.

3. 김정일 체제하에서도 기존정책노선 유지 시사(7. 11)

북한은 7월 11일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단결이 “수령님의 위업을 계승 완성해 나가는 참된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를 강조하는 등 향후 김정일 체제하에서도 기존 정책노선의 유지를 시사하였다.

북한은 이번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북한 체제의 버팀목이 ① 당을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된 인민의 힘 ② 혁명무력 ③ 사회주의 제도 ④ 자립적 민족경제라고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것이 향후 김정일 체제의 정치적 권위의 원천임을 분명히 하면서 “김정일 동지를 높이 받들고 두리에 단결하는 것이 김일성의 위업을 계승 완성하는 참된 길”임을 강조, 김정일 체제 등장의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가 “김일성 위업 계승의 근본요구”임을 역설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혁명적 경제전략』 및 『3대 혁명노선』 관철과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새로운 양양』등을 강조하였고, 대남면에서는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 및 『전

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의 실현과 대외면에서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각국의 친선 단결 강화원칙 등을 강조함으로써 금년도 김일성 신년사에서 제시했던 기존 정책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었다.

이로볼 때 김일성 집권시에도 적어도 대남·대외 부분의 정책 결정은 김정일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기존 정책노선에 이미 김정일의 정책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김정일 자신의 권력기반이 공고화되기 이전에 정책노선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는 만큼 일단 김일성의 『카리스마적 후광』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것이라 하겠다.

4. 김일성 사망 후 중단된 산업생산활동 보도재개(7.13)

북한은 김일성사망 발표이후 각종 선전매체들을 통한 경제선동을 일제히 중단하였으나, 7월 13일부터 북한 대외선전매체 위주로 산업생산동향 보도를 재개하였다.

북한의 중앙방송, 평양방송등 선전매체들은 7월 9일 김일성사망 발표이후 경제선동을 일체 중단하고 김일성 사망 관련한 애도방송으로 일관하여 왔으나, 김일성 사망 애도 방송과 함께 7월 13일부터는 북한의 경제활동이 김일성 사망에도 불구하고 동요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연계시켜 금속공업, 전력공업, 석탄공업, 철도운수 등 『선행부문』의 산업생산동향을 매일 1전씩 보도하였다.

북한 선전매체들의 이번 경제선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북한 근로자들이 김일성사망의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뀌어서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 김일성사망과 연계시켜 생산활동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과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수송 등 북한이 가장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경제 애로부문이 주요 대상으로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내선전 매체 보다는 대외선전 매체 중심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점 등이라 할 수 있는 바, 이는 김일성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각분야 공장·기업소의 노동자들이 아무런 소요도 없이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있음을 과시해 보려는 것이다.

이번 보도 내용으로 볼 때, 북한은 권력의 정통성을 “김일성 체제의 승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정책의 틀을 급격히 변화시키 나가는 어려울 것인 바, 당면한 경제난 해소에 경제시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 방침을 계속 표방, 전력·석탄·금속 등 『선행부문』의 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생활필수품 공급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평·불만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위한 생산 근로자들의 노력 경쟁을 부추기는 경제 선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5. 김일성 사망 후 추모·충성 맹세 문예물 양산(종합)

북한은 김일성 사망이후 김일성 형상화 및 김정일에 충성을 맹세하는 문예물을 대량 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방송들은 7월 14일과 7월 15일 이틀간에 걸쳐 김일성의 사

망에 관한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김일성을 형상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애도기간에 만든 700여점의 작품을 완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미 “애석함과 슬픔으로 가득한” 100편의 창작품이 신문이나 출판물에 게재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번 보도에서는 김일성 추도작품 뿐만 아니라 김정일에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과 김정일을 당과 국가, 혁명군대의 지도자로 묘사하는 작품들도 대량 제작되고 있다고 주장,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완결되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그동안 김일성 부자를 형상화한 문예작품을 이상화의 선전자료로 제작하는 가운데 특히 김정일의 군 최고사령관 추대('91. 12) 이후에는 김일성보다 김정일 찬양 문예물에 비중을 높여 창작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그 중 김정일애로의 권력승계를 시사하는 작품으로 詩 “우리는 김정일 장군 그대만을 존경한다”, 노래 “그는 우리의 지도자”, “우리는 기운을 되찾고 있다” 등이 대표적인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 찬양 주요작품〉

구 분	작 품 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 우리의 장군 ○ 심장으로 받들어 올린 원수벌 ○ 김정일화 ○ 영광 끝없어라, 주체의 혁명무력이어 ○ 그이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구 분	작 품 명
가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 김정일 ○ 그이의 한생 ○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 우리 아버지
소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룡남산 마루 ○ 향도의 태양 ○ 전환 ○ 영광의 시대
미 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공업혁명에 불길을 지피시어 ○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 청년군중들속에 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 우리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시는 길에서 ○ 소금밭에 깃든 송고한 사랑

6. 김정일에 의한 “당·국가·혁명무력 영도” 강조(7.20)

북한은 7월 20일 평양방송 『정론』에서 김정일이 “당과 국가와 혁명무력을 진두에서 영도하고 있다”고 강조, 김정일 체제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그에 대한 『충성』을 촉구하였다.

북한은 이번 보도에서 김일성의 “가장 위대하고 빛나는 업적”이

“계승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김정일 체제가 바로 『김일성의 뜻』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수령님이 그림고 뵙고 싶거든 김정일을 우러러 보라”고 하면서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김정일에게 투영시켜 “아버이 수령님이 곧 지도자 동지”라고 김정일을 김일성과 동격화 하였으며, 김정일이 “당과 국가와 혁명무력을 진두에서 영도하고 있다”고 주장, 『김정일 지도체제』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고 그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보도는 후계체제를 김일성의 뜻으로 치부, 김정일 체제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김정일 체제에 대한 잠재적 불만세력을 위축시키고, 김정일에게 결여되어 있는 『카리스마』적 요소를 김일성의 후광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집권기반을 공고히 해 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7. 김일성 사망후 당의 역할 강조(7.22)

북한은 7월 22일 평양방송 『정론』을 통해 김정일이 이끄는 『조선노동당』을 따라 “조국 통일과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당과 인민은 하나의 뜻으로 이어진 생명체”라고 주장, 당의 역할과 위치를 역설하였다.

이번 평양방송 『정론』에서 주목되는 것은 노동당이 김정일에 의해 영도되고 있음을 반복 강조하는 등 당 총비서직의 승계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면서도 한편으로 김정일을 “수령”이란 호칭 대신 “친애하는 지도자”로 계속 호칭하고 당의 역할을 거듭 강조함으

로써 북한의 권력구도가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되 권력 운영은 당 중앙위 중심의 『당적 지도체제』로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당이 어떤 신념과 결심을 가지고 혁명을 이끄는가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며,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자기 당에 대한 끝없는 긍지를 가지고 당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 수 없음”을 역설, 노동당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한 향후 대외정책과 관련, T/S훈련, 핵사찰 문제 등에 대한 대외 강경노선이 김정일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밝히면서 팀스피리트, 핵사찰 등에 대한 북측의 입장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대적과 맞서 뇌성병력처럼 울린 단호한 목소리”였으며 이는 “사회주의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강철의 영장 김정일 장군님의 의지와 담력이었고 우리 당의 신념과 의지”였다고 강조함으로써 향후 대외 정책노선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동안 김일성 통치행태를 보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노동당 조직을 통해 김일성이 국가를 통치하는 1인 지배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동당과 김일성의 역할은 북한이 발간한 정치사전에서도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영도하시는 새 형의 맑스-레닌주의 당이며, 주체사상 체계에 기초하여 수령님의 두리에 통일 단결된 당이며,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 “수령이 없이는 당이 있을 수 없으며 수령의 영도가 없이는 노동 계급의 혁명투쟁이 승리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 김일성의 1인 독재 지배체제를 분명히 하고 있다.

8. 생산 증대를 위한 대내경제선동 전개(종합)

북한의 보도 선전매체들은 김일성 장례행사 종료(7. 20)후, 그동안의 애도일색 분위기를 각종 경제선동으로 연결,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꿔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고 독려하는 가운데 생산현장의 근로자들이 오히려 지난 달보다 높은 생산실적을 나타냈다고 선전하였다.

김일성 사망 후 대내경제 선동을 일제히 중단했던 북한은 7월 13일경 대외 선전매체를 통한 산업생산 동향 보도를 시작으로 7월 20일부터는 본격적인 대내경제 선동을 개시하였다.

이와 같이 김일성 장례행사 종료 직후 대내경제 선동을 적극전개하고 있는 것은 김일성의 사망 발표(7. 9)에서부터 추도대회(7. 20)가 종료되기까지 2주 가까이 계속된 애도 일색의 분위기를 다시금 평상시 국면으로 전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며, 김일성 사망에 대한 애도 분위기를 “김정일 수령에 대한 충성 맹세”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사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로자들의 노력 경쟁을 유도해 보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전체 인민대중들이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는 큰 충격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와 각자의 직분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한편, 김일성사망에 대한 “슬픔을 힘과 용기”로 전환, 내부 결속 및 김정일시대의 지지 기반을 공

고히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9. 휴전(전승) 41주년 행사 관련동향(종합)

북한은 휴전(전승) 41주년(7. 27)을 맞이하여 개최한 중앙보고대회와 분열행진, “근로자들의 모임”, “인민군 청년군인들의 모임” 등을 통해 김정일의 『영도력』선전과 함께 그에 대한 충성을 결의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북한은 7월 27일 『2.8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중앙보고대회』에서 김정일이 이끄는 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심단결하여 “수령님 생전의 뜻을 활짝 꽃피워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발휘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청년군인들의 충성결의 모임”(전승기념탑)에서도 김정일을 “우리의 하늘이며 운명이신 천하 제일의 명장”이라고 극구 찬양하면서 “순간을 살 아도 김정일 장군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장군의 무릎을 베고 죽는 충신 효자가 될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은 휴전 40주년인 지난해에는 김정일 지시에 따라 『전승40돌』이라며 민족적 명절로까지 제정하고 중앙사진전람회, 전국노병대회 등 2개월에 걸쳐 20여개의 행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으나 금년도 행사는 전반적으로 대폭 축소하여 진행하였다.

올해 동 행사를 대폭 축소한 이유는 금년도가 41주년 이라는 『꺾어지는 해』가 아닌 점 외에도 김일성 사후 조문, 추도 등으로 이미

과중할 정도의 인력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동 행사를 확대시킬 경우 행사 참가자들에 대한 수송 및 식량 배급 문제가 제기될 뿐 아니라 많은 인력 동원시 경제적 타격이 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행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보고자들이 김일성의 『혁명위업』을 열거한 후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결의하는 행사로 일관하면서 『혁명적 경제전략 관철』 등 경제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가운데 지난해 김父子 및 김영주 등이 참석한데 반해 이번 행사에는 군 최고사령관 김정일이 출현하지 않았다는 점과 『중앙보고대회』에서 공안담당 비서인 계응태가 보고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계응태는 김일성 추도식 때에도 사회를 보았을 정도로 김일성 사후 전면에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10.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경제시책 관철 독려(종합)

북한은 김일성 사망이후 각 산업부문별 생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경제선동을 본격화, “생산과 건설의 불길을 계속 높여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것”을 연일 독려하는 가운데 북한주민들이 김일성사망에 따른 충격을 극복하고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였다.

김일성 장례행사 종료(7. 20)후, 북한의 선전매체들이 일제히 벌이고 있는 경제선동의 논조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효성은 눈물이나 격조 높은 맹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생산근

로자들이 하루빨리 애도 분위기에서 벗어나 생산활동에 주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모든 당원·근로자들이 생산과 건설에서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는 것만이 “김일성의 유지를 받들고 김정일을 더 잘 모시는 길”이라고 주장, 생산근로자들의 노력경쟁을 유도하는 것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김정일 영도아래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것을 독려, 향후 경제시책을 시사하는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 관철을 계속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김일성사후, 새로운 경제시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 정책을 계속 답습할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추진해온 『완충기 경제과업』이 시작된지 불과 얼마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어려운 경제를 희생시킬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급한 『먹는 문제』의 해결을 비롯하여 주민생활수준을 우선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업·경공업·무역 부문의 집중적인 육성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아래 향후 완충기('94~'96년) 3년동안의 경제시책방향도 체제유지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는 경제건설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 其他 對內 動向

1) 국방위원회 주도일 차수 사망(7.3)

1935년 이후 김일성과 함께 동만주에서 빨치산 활동을 한 바 있는 주도일은 김일성의 비호하에 비교적 순탄하게 권력 핵심부에 진입함으로써 '85년 4월 대장 진급후 '88년 12월에는 평양 방위사령관에 부임한 바 있다.

중앙방송은 주도일이 오랜 병환끝에 7월 1일 75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는 부고와 7월 3일 빈소에 김일성과 김정일이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하였다.

2) 『7~8월 해양체육월간』개막(7. 3)

북한은 7월 3일 황남 해주시에서 황남도 사로청 위원장 최복만과 청소년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7~8월 해양체육월간』개막모임 개최를 시작으로 각지에서 개막모임을 진행하였다.

동 행사는 '64년 7월 제정된 『수영보급월간』을 '77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한 후, 청소년학생 이외에 근로자들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2월의 『겨울철 체육월간』과 더불어 청소년·근로자들의 체력 강화를 도모하는 전국적 규모의 행사인데, 특히 '80년 이후부터는 “해양체육을 국방체육과 결부시켜 발전시키도록 하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배타기·도강경기·뗏목타기·해양수기신호 등 『국방체육』종목을 추가시켜 실시하고 있다.

최근들어 북한은 동 행사를 청소년·근로자들의 체력강화 뿐만 아

나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제고와 사상해이 방지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김정일 두명의 군지휘관에게 특별감사(7.4)

김정일은 7월 4일 고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한 가정을 적극 보살핀 두 명의 군 지휘관에게 『특별감사』를 전달하였다고 선전하였다.

북한에서의 고아들은 주로 건설공사 및 탄광 등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부모가 동시에 사망하거나, 부모의 탈주 또는 반체제범으로 구속, 또는 이혼이나 미혼모에 의한 고의적 유아 유기 등에 의해 생겨난다.

북한에서는 이와 같이 발생하는 고아들에 대해 애육원이나 보호소 등에서 양육하나, 기존 수용시설 부족으로 『공산주의적 미풍』이라는 미명하에 일반 주민들의 가정에서 입양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평양방송을 통해 북한은 '92년 1월에서 '93년 9월사이에 북한 전역에서 537세대가 1,060명의 고아들을 입양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4) 제2차 과학기술발전계획 성과적 수행 선전(7.6)

북한은 7월 6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전자자동화 과학분원의 청년과학자들이 “과학 탐구활동을 힘있게 벌여 제2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의 연구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모범을 보였다”고 선전하였다.

금번 북한의 보도는 그동안 북한이 추진해 온 제2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91. 7~'94. 6)이 완료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이 일개 『자동차 연구소』의 연구실적을 홍보하는데 그친 것으로서, 소규모 방직공장의 옷감생산 실적을 비롯, 농촌의 모내기·김매기 성과까지 경제선동자료로 활동하는 북한의 성향을 감안할 때, 동계획이 당초 의도했던 목표에 크게 미달, 대내외적으로 내세울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경제개발계획의 보완적 역할을 담당 “기술혁명을 심화·발전시켜 인민경제의 현대화에 기여토록 한다”는 목표아래, 3차 7개년계획 기간중 주로 첨단산업분야의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 『김형직 출생 100돌』관련 각종 기념행사 개최(7.7)

북한은 최근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 출생 100돌』(7.10)을 맞아 중앙 연구토론회(7.7) 등 각종 대내외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기념우표와 우편봉투 각 1종 발행’(7.4), ‘전국 각지에 김형직의 혁명활동 및 업적찬양 우상축조물 신축’, ‘미술전 시회 개막’(7.6), ‘조총련 주최 기념강연회’(7.5, 동경조선회관)등이다.

특히 북한은 중앙연구토론회를 통해, 김형직을 “항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로 찬양하면서 그의 혁명활동과 업적이 김일성 부자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이 동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한 것은 금년이 5년, 10년 주기인 『꺾어지는 해』라는 의미도 있지만 김형직의 “혁명활동과 업적”을 중점 선전함으로써 김정일로의 권력세습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려는데 그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인민소비품 생산·공급체제 강화

북한은 최근들어 각 시·도 행정경제위원회에 주민들의 생활필수품 생산·공급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의 정무원 기관지 『민주조선』 최근호에 의하면, 현재 각 시·도의 모든 군·구역들이 『8.3 인민소비품 생산 모범군·구역』 칭호를 쟁취할 것을 목표로 인민소비품 수요의 원만한 보장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인 바, 각 시·도 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사업을 전담토록 하기위해 『8.3국』을 별도로 설치, 지도원을 해당 지역에 내려 보내 소비품 생산활동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른바 『8.3 인민소비품』이란 각종 공장·기업소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폐기물들을 소비품 생산에 적극 활용토록 한 김정일의 지시('84. 8. 3)에 의한 것으로서 이같은 제품들은 국영상점 전체 유통물량의 1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그동안 극심한 생필품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인민소비품 생산의 혁신”을 계속 강조해 왔으나, 구조적인 경제침체 속에서 주민들이 겪는 소비재난은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 개성시, 경공업 중심도시로 변모

북한의 유서깊은 고도 개성(1955년 직할시 승격)이 최근 경공업 제품 생산단지로 크게 변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평양에서 발행되는 화보 『조선』 최근호는 현재 개성시에 “대규모의 경공업 공장들이 세워져서 갖가지 경공업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면서 개성시에서 생산되는 특산품들을 하나하나 소개하였다.

한편 지난번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판문점 실무대표접촉(7.1)에 나왔던 북측대표는 우리측 대표와의 환담시 개성에 경공업전문대학(교명:성균관대학)이 있다고 언급, 개성시가 경공업 중심도시로 육성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개성시의 주요 경공업제품 공장〉

명 칭	제 품 내 용
개성방직공장	• 살창무늬(격자)천을 비롯한 옷감류
개성인삼가공공장	• 인삼정액·경육고 등 인삼을 재료로하는 약재
개성고려인삼술공장	• 인삼술·삼로주 등 인삼을 원료로 하는 주류
개성도자기공장	• 비색사기(翡色砂器)등 각종 도자기류
개성시 초물(草物) 생산 협동조합	• 왕골로 만든 주단·방석 등 초물제품 및 각종 공예품

8) 조명선 대장 사망(7. 27)

북한은 7월 27일 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일이 조명선의 영전에 조화를

보낸 사실을 보도하였으나, 사망원인과 일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명선(78세)은 항일 빨치산 출신으로 '75년 6월 군 부총참모장과 '76년 12월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역임하였으며, 당 중앙위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제 9 기), 강건종합군관학교장 직책을 겸직 수행해 왔으며, '60년대 중반까지 야전 지휘관(제 3 군 단장)을 역임한 후부터는 계속 정치군인('88. 10 사회안전부 부부장)으로 활동하였고, '92년 4월 군 창건 기념일에 즈음하여 대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9) 정무원 부총리 강희원 사망(7. 28)

북한은 7월 29일 노동당 중앙위·중앙인민위·정무원 공동명의로 부고를 통해 당 정치국 후보위원 겸 정무원 부총리 강희원이 “7월 28일 73세를 일기로 서거했다”고 발표하고 강성산을 비롯한 당·정 고위 간부(40명)들로 국가장의위원회를 구성, 장의식을 『국장』으로 거행한다고 보도하였다.

강희원은 해방후 지방 당 및 전력공업분야에서 종사한 바 있으며, 그후 당 부부장, 부장(60. 8~62. 8), 함북도, 청진시, 평양시 당책임비서 및 행정경제위원장(78. 7~94. 7), 부총리(78. 9), 당 중앙위 위원(61. 9), 당 정치국 후보위원(81. 4),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원('90. 4)을 역임한 인물이다.

발표된 장의위원은 총 40명으로 그 명단을 보면, 강성산(당 정치국 위원, 총리), 김영남(당 정치국 위원, 부총리, 외교부장), 한성룡(당 정치국 위원, 당비서), 최영림(당 정치국 후보위원, 부총리, 금속공업부

장), 홍성남(당 정치국 후보위원, 부총리), 양형섭(당 정치국 후보위원, 국가계획위 위원장), 김환(부총리, 화학공업부장), 김복식(부총리, 경공업위원장), 김창주(부총리), 김윤희(부총리), 장철(부총리, 문화예술부장), 공진태(부총리, 인민봉사위원장), 윤기복(중앙인민위 경제정책위원장), 박남기(평양시 행정·경제위원장), 강현수(평양시 당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이용무(교통위원장), 이지찬(전력공업위원장), 최복연(수사위원장), 김창호(전자자동화공업위원장), 이석(선박공업부장), 박용석(철도부장), 이철봉(도시경영부장), 정준기(대외문화연락위원장), 이성대(대외경제위원장), 김응상(국가건설위원장), 김원진(농업위원장), 김길연(국가과학원장), 광범기(기계공업부장), 김세영(자원개발부장), 박원현(미상), 김학섭(체신부장), 김성구(지방공업부장), 이재운(노동행정부장), 윤기정(재정부장), 김수학(보건부장), 박명철(국가체육위원장), 정문산(정무원 사무국장), 이성록(대외경제위 부위원장, 국제무역촉진위원장), 임정상(미상) 등이다.

북한이 이와같이 『국장』으로 예우하는 경우는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이거나 북한 정권수립에 공헌한 인물 또는 북한체제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들로서 국가장의위원회는 사망자 생전에 근무했던 부서를 중심으로 구성(15~72여명)되는 것이 관례이며, 장의식은 통상 3일장으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구락부에서 치루고 있다.

『국장』은 “나라에 공로가 많은 사람이 죽을 때 국가적으로 지내는 장례”(“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92. 3. 10 발행)인데 김일성 사망시는 국가장의위원회(273명)구성은 하였으나 『국장』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90년이후 『국장』자 명단〉

- '91. 5. 13 허 담(『조평통』위원장, 당비서, 외교부장)
- '91. 6. 7 허정숙(『조평통』부위원장, 당비서, 최고인민 부의장)
- '92. 3. 30 현무광(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검열위원장)
- '92. 7. 5 홍기문(사회과학원 원장,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 '92. 7. 20 방학세(당 중앙위 위원, 중앙재판소장)
- '92. 10. 2 서 철(당 정치국 위원, 당 검열위위원장, 빨치산 1세)
- '93. 1. 25 이계백(『조총련』부의장,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 '94. 7. 30 강희원(당 정치국 후보위원, 정무원 부총리)

10) 7월중 북한지역 기상동향

최근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가뭄과 무더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북한 지방의 기상동향을 보면, 평양의 경우 7월 22일 오전 최저 기온은 25도로 평년보다 3도 높았고, 낮 최고 기온이 34도를 기록하는 등 북한지방 전역에서도 “기온이 높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월들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7일까지 자강도·양강도·평안남도 등 전 지방에 걸쳐 비교적 충분한 양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가뭄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중 북한의 주요지방 강수량〉

(단위 : mm)

날짜 지방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평양	2.0	76.0	5.0	19.0	14.0	2.0	·	·	11.0	1.0	117.0
청진	0.1	3.0	33.0	2.0	·	·	·	·	·	·	·
신의주	61.0	1.0	1.8	0.2	19.0	2.3	·	10.0	·	2.0	9.0
해주	7.9	11.5	2.3	74.0	16.5	·	·	·	0.8	·	·
개성	53.0	6.0	1.0	·	5.0	·	·	·	·	·	·
남포	4.0	22.0	15.0	17.0	10.0	·	·	·	5.0	·	72.0
원산	·	55.0	1.0	3.0	24.0	·	·	·	·	·	4.0

11) 개성 송도피복공장 조업(7. 29)

북한은 개성 송도피복공장이 7월 29일 완공·조업하였다고 보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수천평방미터의 건물에 현대식 기계설비를 갖춘 수출의류 생산기지가 새로 조성됨으로써 당의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관철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운택하게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지난 '87년 최대규모급 합영회사인 모란봉합영회사의 대동강 피복공장의 가동을 계기로 수출전문 피복공장들의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들 수출전문피복공장은 총 4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조총련계 기업과의 합영공장들로서, 일본 등으로부터 섬유제품 원부자재를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임가공 생산

을 하고 있다.

북한의 풍부한 저임노동력을 바탕으로한 섬유제품 임가공무역은 북한-일본간 교역을 주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주요한 외화가득원이 되고 있는 바, '93년의 경우 북한의 대일본 섬유임가공수출은 9,303만달러 규모로서 대일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9% 수준에 달하고 있다.

Ⅲ. 對 南 動 向

Ⅲ. 對 南 動 向

1.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대표접촉(종합)

남북한은 정상회담개최를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6.28, 판문점)을 통해 기본적인 문제에 합의(7.25, 평양개최)한 후 세부 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2차례의 대표접촉(7. 1, 7. 2)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완전 합의하였다.

이번 대표접촉은 6월 28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부총리급 예비접촉에서 쌍방은 정상회담을 오는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평양 개최를 합의하고, 대표단규모, 회담형식, 신변안전보장, 왕래절차, 편의제공 등 실무절차 문제들은 대표접촉(7. 1)에서 토의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쌍방이 채택·서명한 합의서의 요지는 남측 대표단은 수행원 100명과 취재기자 80명으로 구성하고 회담형식은 쌍방 정상간에 2회의 단독회담과 그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 회담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체류일정은 2박3일(필요에 따라 연장가능)로 하고, 평양방문 15일전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를 통해 체류일정을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실무자접촉 및 선발대 파견과 관련 경호, 의전, 통신, 보도관련 각기 17명이 참가하는 실무자 접촉의 평양개최(7. 13~16), 25명으로 구성된 선발대의 방문 3일전 파견 등을 합의하였다.

특히 회담관련 보도는 북한측이 우리측의 실황중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설비와 인원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또한 TV영상 송출을 위한 전송로 및 위성중계의 편의제공도 합의하였다.(합의서 전문 참조)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일련의 접촉에서 나타난 특징은 북한측이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에 별 이의없이 동의해 온 점과 평양 개최에 집착한 점, 그리고 과거와 달리 시비나 도발적 언동을 자제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북한측이 정상회담 개최에 과거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정상회담을 통해 얻고자 했던 그들의 기대감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평양개최를 고집한 것과 『회담 분위기』문제를 거론한 것은 만약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정상회담 명칭을 『최고위급 회담』으로 한 점 등으로 보아 회담에 임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측과 상당한 거리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2. 국무총리 국회 국정보고 비난(7.1)

북한은 7월 1일 『조평통』서기국 보도를 통해 국무총리의 국회 국정보고와 민자당 대표의 국회 국정연설(6. 29)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투명성 보장을 강조한데 대해 “도발적인 발언”, “북남최고위급회담을 달가와 하지 않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번 대남비난에서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합의에 대해서는 열렬히 지지·환영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한편, 국무총리의 국정보고 및 민자당 대표의 국회 국정연설에서 북의 핵투명성 보장을 촉구한 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 예비접촉(6.28) 합의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핵문제 토의는 정상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국무총리나 민자당 대표가 나설 일이 아니며, 핵문제는 미·북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함으로써 핵문제 해결에 남한 배제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 핵문제 해결은 국제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남북간의 최대 현안문제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해결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정상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우리의 노력에 또다른 장애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7.4 남북 공동성명』 22주년 맞아 〈10대강령〉을 통한 단결주장(7.4)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22주년을 계기로 “3대 원칙을 구현하여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자”는 제하의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실현을 또다시 주장하였다.

이번 노동신문 사설의 주요내용은 예년과 달리 3대 원칙과 연관된 대남비방 및 선전선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외세배격과 민족자주

성 확립, 그리고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및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면서 특히 7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동 『성명』의 원칙에 입각하여 회담을 진행하여야 성과가 있을 것으로 주장한 것이다.

이와 같은 논조는 중앙방송 및 평양방송 해설·논평(7. 3~4) 등을 통해서 일관되게 주장 할 뿐 아니라 『한민전』평양대표부 담화에 서도 『연방제』, 『10대강령』 등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시에도 『7·4 남북공동성명』에 명시되어 있는 『3대원칙』실현을 내세워 그들이 주장하는 『10대강령』, 『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고집할 것으로 보인다.

4. 『조평통』, 『구국전위』사건수사 비난(7.5)

북한은 7월 5일 『조평통』서기국 보도를 통해 안기부가 지난 『구국전위』라는 좌경 지하조직을 적발, 수사 결과를 발표(7.2)한데 대해 이를 “순전한 모략극”으로 주장하고 이러한 사실이 정상회담에 미치게 될 『엄중한 후과』를 거론하면서 극렬히 비난하였다.

이번 보도의 비난 요지는 우리측에 의해 “회담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뜻수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 우리측이 회담에 무성의하게 임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부각시키는 가운데 이번 사건 자체를 “통일로 쏠리는 민심을 막고”, “노동자 파업을 탄압하기 위한 것”, “통치위기를 모면하려는 반공화국 모략사건” 등으로 왜곡, 북측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이러한 사건은 “회담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행

동”이며 “남측의 대화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 정상 회담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할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주한미군』을 소재로 한 대남비난(7.7)

북한은 7월 7일 『핵문제』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분위기에 대응한 우리측의 『주한미군』강화조치를 왜곡하면서, 이는 미국의 『강경보수세력』과 『남조선 호전분자』들이 “대화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이번 대남비난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북 3단계 회담과 남북정상 회담 개최협의 등을 내세워 한반도의 현정세가 “긴장완화의 징조”를 보이고 있고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겨레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시기에 군사분계선에서의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회담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망언”들이 튀어 나오고 있는 것은 “전쟁 전야에만 할 수 있는 짓으로서 이러한 “대화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위협하였다.

이와 같은 “회담 분위기를 흐리는 행위”가 한·미 양측에 의해 계속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만일 향후 미·북한 회담 및 남북 정상회담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여론의 화살을 한·미 양측에 돌리겠다는 사전 포석으로 분석된다.

6. 『남조선 조문단』방북 환영(7.14)

북한은 7월 14일『조평통』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측 일부 재야 및 운동권 학생들의 김일성사망 『조문단』파견을 부추기면서 이들의 평양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의 평양 방문은 판문점을 통과하거나 제3국을 경유할 수 있다고 하면서 평양체류기간 신변안전보장과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선동하였다.

이번 담화는 김일성 사망과 관련한 우리 내부의 동향에 대한 최초의 공식 반응으로서 일부 대학과 반정부 인사들의 애도와 조의 및 조문단 파견 의사표시와 일부 야당 의원들의 『정부 조문단 파견』여부에 대한 국회 질의(7.12) 등을 의식, 이를 고무·선동하려는 대남심리전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태도는 내부적으로 김일성 사망에 대한 남한내의 애도 분위기를 선전하여 체제 우월감을 심어주고 또한 대남 통일전 선전술차원에서 우리 내부의 극소수의 애도 분위기를 고무·확산시켜 국론 분열을 획책하려는 것이다.

7. 김일성 사망관련 정부의 조의금지 조치 격렬비난 (7.15)

『한민전』중앙위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란 것을 통해 우리측 각계 각층이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맞게 합법적·비합법적 방법으로 “민족의 아버이를 추모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조의를 표시”할 것을

선동하면서, 특히 정상회담 당사자가 “동족의 불상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집권 안보사육을 채우며 국민들의 조의표시를 이적행위로 몰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그만둔 짐승보다 못한 망동”이라고 극렬히 비난하였다.

한편 『한민전』대변인 담화에서는 정부의 조의금지 조치에 대해 “초상집에 불질을 하는 망동”으로서 이는 “초보적인 예의범절도 모르는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반박하면서 “한조각의 민족적 양심이 있다면 당연히 조의부터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한국내에 있는 것으로 위장한 재북단체인 한국민족민주전선('85. 7. 27 통일혁명당을 개칭)을 내세워 남북정상회담추진시(6. 24)부터 자제해오던 우리 대통령에 대한 비난공세를 재개하면서 “속적인 미국이나 일본도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음”을 주장, 조의 표시에 대한 한국민의 정서적 거부감을 비난하고, 조의표시 문제를 “정상회담의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 정부의 조의금지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비합법적』으로라도 조의 및 추모식 진행을 선동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한국사회에서 일부 야당 의원과 재야·운동권 사이에서 『조문』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계기로 이를 쟁점화,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구체적인 추모방법까지 제시하는 등 『비합법』으로도 추모대회를 강행할 것을 선동함으로써 대회 개최과정에서의 마찰을 유도, 정국 불안정을 야기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었다.

8. 『조의불허』조치이후 대남비방 강화(종합)

북한은 정상회담 개최합의를 전후하여 김일성 사망애도기간 동안 자제해오던 대남비방을 우리 정부의 조문 불허조치를 계기로 각종 보도매체·단체들을 동원하여 격렬하고 악의적인 비방을 재개하였다.

북한은 지난달 카터 방북(6. 15~18)이후 대남비방의 빈도를 약간 줄이고 6월 24일부터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거명 비방을 자제하였으나 우리 정부가 김일성 사망에 대한 조의·조문을 불허하자 종전의 강도높은 대남 비방·선동을 재개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다시 긴장국면으로 조정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냈다.

이번에 또다시 시작된 대남 비방·선동은 카터 방북 이전의 악랄하고 인신공격적인 대남 비방 양상을 띠는 가운데 “구국의 소리 방송에 의하면”, “서울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등 비난의 주체를 남한 쪽에 돌려 이를 인용하는 형식의 간접화법을 구사하고 있는 점과 비난의 소재를 우리 정부의 『조의 불허』, 『6.25 남침 문서공개』, 『주사파 학생 실체 폭로』 등에 두고 있는 점 등이 특징이다.

북한의 이같은 태도는 대내적으로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 구축과정에서 야기될 수도 있는 불안한 내부 정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이목을 외부로 돌리면서 그들의 광적인 애도 분위기와는 달리 우리측의 냉담한 태도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증오심을 유발·증폭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대남면에서는 우리 내부의 일각에서 돌출한 『조의』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정부와 이들 『조의』거론자들과의 갈등을 증폭시켜 국론 분열을 획책하는 한편, 김일성사망후 우리정부의 대북입장 변화여부를 탐색해 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형식적이지만 비난의 주체를 『남한내 소식통』을 인용하는 간접화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김일성 사망으로 인해 『연기』한(7. 11)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 다소라도 그들이 부정적 입장이 아님을 강변하려는 2중적 태도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9. 한·일 정상회담 비난(7.26)

북한은 7월 26일 로동신문 논평과 중앙방송 논평을 통해 최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시(7. 23~24) 우리 대통령의 “북한 핵 과거투명성 확인”과 “북한 개혁·개방 필요성” 등을 발언한데 대해 “주제 넘고 가소로운 망언”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번 로동신문 논평 및 중앙방송 논평의 요지는 우리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는 현재와 미래는 물론 과거의 투명성도 확인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데 대해 북한 핵문제는 미·북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으며, 오히려 “남조선에 있는 천여개의 핵무기를 철거하라”고 주장한 것이며, 또한 개혁·개방 촉구에 대해서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옹호·고수를 강조하면서 “개혁·개방은 남한이 해야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문제를 애써 회피하려 한 것이다.

북한의 이와 같은 태도는 북한이 김일성 사망과 정권 교체에 따

른 불안정한 상황에 처한 가운데 한·일 양국의 우의 확인 및 북한 핵문제에 관한 의견 일치등에 대해 불편한 심증을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0. 대통령의 『정상회담』 언급 비난(7.27)

북한은 7월 27일 평양방송 논평을 통해 최근 우리 대통령이 클린턴 미 대통령과의 전화 요담(7.15)에서 남북간 정상회담에 관해 언급한 것과 관련, 이를 “파렴치한 녀두리”라고 비난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 클린턴 미 대통령과의 전화 요담을 통해 7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하게 된 데 대한 아쉬움과 북측의 회담 연기 요청 등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합의가 계속 유효하다는 원칙 아래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북한은 이번 평양방송 논평을 통해 이를 극렬히 비난하였는 바, 그 요지는 정상회담 합의 유효 언급에 대해 “내외 여론에 대한 일대 기만”, “가소로운 술책” 등의 표현으로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세를 왜곡 비난하는 가운데 “김○○ 역도”, “교활한 놈”, “파렴치한 녀두리” 등 원색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우리 대통령을 비방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는 김일성 사후 주민들에게 대남 적개심을 고취함으로써 권력이양에 따른 과도기적 불안을 덜어 보려는 것이며, 또한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호응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

고 있다”는 우리측의 입장이 표명된 점을 의식, 그들의 내부 사정
으로 정상회담논의에 과한 이니셔티브를 취함과 함께 회담 자체가
지연될 경우 그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려는 명분축적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11. 귀순자를 “인간쓰레기”로 매도(7.28)

북한은 최근 귀순한 강명도·조명철씨의 기자회견(7.27)과 관련하
여 강명도가 강성산 북한 정무원 총리의 사위가 아니라고 강변한
후, 이들이 “범죄자이며 인간쓰레기”라고 매도하였다.

북한은 이번 평양 방송에서 강명도에 대해 강성산 총리와는 아무
런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그는 “천하무식쟁이고 전달자로서 국가공
금을 횡령하고 부정착복한 범죄자로서 해당기관의 수사대상이었던
자”라고 강변하였다.

또한 핵무기와 관련해서 “경비책임자에게 들었다는 말로 북의 핵
무기 존재에 신빙성을 부여해 보려 한 사실만으로도 기자회견은 실
패작”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번 비난 논평에서 주목되는 것은 귀순자 기자회견(7.27) 하루
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점과 강명도가 북한 정무원 총리 강성산
의 사위임을 정면 부인한 점, 그리고 조명철에 대해서는 “인간쓰레
기”란 비난 외에 장황한 『범죄사례』 열거가 없는 점과 귀순자들의
여러 북한 실상 폭로내용중 “핵폭탄 5개 보유” 증언 내용에 대해서
만 변명한 점 등이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귀순전 강명도의 북한내 위상을 깎아내려 대내외적으로 충격을 약화시키고 『핵무기 보유』 증언내용에 대해 강력히 부인함으로써 미·북 3단계 회담(8.5)을 앞두고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북한 권력 핵심계층의 친인척인 이들의 귀순으로 과거 귀순자의 북한내 친인척들이 당하던 불이익이 이번에도 적용될지가 주목된다. 강성산은 7월 27일 개최된 『전승 4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자 명단에는 보도되지 않았으나, 7월 29일 강희원 부총리 빈소에는 오진우,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등과 함께 애도를 표시한 바 있었다.

12. 세계일보 前사장 『조문 방북』을 적극 비호(7.29)

북한은 김일성 조문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박보희 세계일보 前사장에 대해 정부가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하자 이를 “비열하고 졸렬한 파쇼적 망동”이라고 극렬 비난하면서 그의 방북을 적극 비호하였다.

세계일보 박보희 前사장은 김일성 사망과 관련 북한을 방문(7.13~23)하여 영결식과 추도식에 참석한 후 김정일과 면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세계평화연합』공동의장과 『세계평화수뇌자협회』회장자격으로 방북하였으며 “조의표시와 취재활동”이 방북목적이라고 밝히는 한편, 방북전에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후에 북한 방문 보고서를 주미 대사관을 통해 통일원에 제출(7.28)한 바

있다.

북한의 이번 보도 내용상에 나타난 특징은 우리 정부의 김일성사망에 대한 조의·조문 불허조치를 “반민족적·반인륜적 처사” 등으로 강도높게 비난, 매도하는 가운데 소위 “통일인사”라는 문익환·임수경 등에 사용하던 호칭을 사용하여 그를 미화하고 있는 점, 우리 정부가 “세계일보 등 7종의 정기간행물을 강제 폐간시켰다”고 터무니없이 사실을 날조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대남비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7.29)와 조선종교인협의회 명의의 성명 등으로 나온 점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이와 같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와 조선종교인협의회 성명 등을 통해 대남 비난·비방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反조문’ 정서에 부딪쳐 위축된 재야 운동권을 지원함으로써 김일성 사망에 대한 재야운동권 내의 추도분위기를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3. 귀순자 기자회견 내용을 조작으로 매도(7.30)

북한은 지난 7월 27일 귀순자(강명도)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 핵폭탄 5개 보유” 증언에 대해, 이는 “안보 위기의식을 조장하기 위해 조작한 모략”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정무원 총리 강성산의 사위로 알려진 강명도는 사위가 아니라고 강변하였다.

북한은 평양방송을 통해 지난 7월 27일 강명도·조명철씨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즉각적인 반박 논평을 발표(7.28)한 데 이어 이번

에 7월 28일 귀순한 김동훈씨를 추가하여 보다 악의적인 자세로 이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였다. 이번 논평에서의 특징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깎아내리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핵폭탄 5개 보유 증언과 관련 미국이 회견 시기 및 내용상의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이를 과장 부각시키고 있는 점, 康明道와 姜成山, 양인이 모두 한글로 같은 『강』씨인 점에 착안하여 동성동본끼리의 결혼금지 전통까지 들먹이며 『장인과』사위』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김동훈씨에 대해서는 그의 북한내 연고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그가 북한 주민이 아님을 강변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이와같은 태도는 강명도·조명철·양인이 북한 고위층의 사위 및 아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진술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인간쓰레기』로 일방적으로 매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미·북 3단계 회담(8.5)과 관련, 동 회담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북한 핵폭탄 5개 보유』 주장을 강력히 반박해야 할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한 증언내용과 관련하여 한·미간의 이견 노정을 부추겨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어렵게 해 보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14. 『남북 인간띠 잇기대회』 남북 공동개최 제의 (7. 31)

북한은 7월 31일 조선종교인협의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올해 『남북 인간띠 잇기대회』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주

장하면서 이를 위한 판문점 실무접촉개최(8. 5)를 제의하였다.

『남북 인간띠 잇기대회』는 지난해 8월 15일 6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독립문-임진각을 잇는 인간띠를 형성하는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KNCC 등이 중심이 되어 『8. 15 남북 인간띠 잇기대회 본부』를 발족(6. 27)시키고, 1백만명이 참가하는 전국적 규모의 행사로 개최한다는 목표 아래 이와관련한 준비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동 대회본부는 7월 23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내부사정 및 우리 농촌의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과 시민생활의 불편 등을 염려하는 정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당초 계획의 변경방침을 밝히는 한편, 『8. 15』직전 1주일간을 “평화와 통일의 소식을 전하는 주간”으로 설정하고, 평화염원 한마당·이어달리기·평화의 리본잇기 등을 개최하는 것으로 행사규모를 축소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북한 종교인협의회 대변인의 담화는 북한의 대남전략이 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실질적인 남북공동개최보다는 대회 관련 인사들을 부추겨, 정부와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우리의 국론 분열을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우리측 동 대회 추진본부가 남북 공동개최를 제의한데 대해 조선기독교도연맹 서기장 고기준 명의의 전화통지문('93. 8. 9)을 통해 동 대회를 제4차 범민족대회('93. 8. 13~15)와 공동으로 진행하자고 제의함으로써 사실상 우리측이 제의한 『남북 인간띠 잇기대회』의 공동개최를 거부한 바 있다.

15. 其他 對南動向

1) 국군 장병들에 반정부 투쟁 선동(7.5)

북한은 7월 5일 국군 장병들에게 “군에 내려지는 명령이라고 하여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 것”을 부추기면서 “분열을 꾀하는 외세와 남조선 호전분자들을 반대하여 힘차게 싸울 것”을 선동하였다.

북한은 선전선동에서 “국군 장병들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 농민, 근로 인민의 자제들임”을 부각시켜 은연 중에 계급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지주·자본가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외세와 당국자의 명령에 따라 인민 탄압에 끌려 다니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강조, 『지주·자본가』라는 사회적 상류계층에 대한 거부 반응을 명령 불복종으로 유도하려는 저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 의 태도는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파상적인 반정부 투쟁선동을 통한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 이제 군을 상대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나섰다는 점이 주목된다.

2) 『조문 불허』 방침을 극렬히 비난

북한은 우리 정부의 김일성 사망 『조의 불허』방침에 대해 『애도기간』중인 7월 15일부터 비난을 시작한 이래 『애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 문제를 계속 대남비방의 소재로 극렬히 비난하였다.

북한은 각종 보도매체 또는 『범민련』, 『직총』, 『사로청』 등을 동원하여 『조문불허』방침과 관련 우리정부를 “반통일세력”으로 매도하면서 우리 대통령에 대한 거명비난과 “정부타도”선동에 주력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대남비난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대남적개심을 고취하는 한편, 권력 이양에 따른 과도기적 불안과 체제 불만을 외부로 관심을 돌려 무마해 보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비난에서 주목되는 것은 우리정부가 조문사절단을 파견하고 『추모행사』를 허용했다라면 “대화상대방인 우리를 대하기도 떳떳하고 세계 앞에서도 낮이 섰을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남북 회담개최시 『조의문제』 제기가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IV. 對 外 動 向

IV. 對 外 動 向

1. 『조선국제합영총회사』 제 7 차 이사회 개최(7. 5)

북한은 7월 5일 중앙방송을 통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홍성남(정무원 부총리·조선국제합영총회사 이사장), 최병조(조총련 부의장·조선국제합영총회사 부이사장), 김성환(합영공업 총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국제합영총회사』 제 7 차 이사회를 개최(7. 4~5), 합영·합작사업 관련 제반 문제들을 토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의 『조선국제합영총회사』는 북한의 합영공업 총국과 조총련의 합영사업연구회가 각각 60만달러씩 공동 출자하여 1986년 8월 설립한 합영전담회사로서 북한과 조총련간의 합영·합작회사 설립을 주선하고 사업내용 검토·조정 및 편의제공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상 매년 한차례씩 이사회를 개최, 조총련의 합영사업 성과를 결산하고, 새로운 사업방침을 제시해 왔는 바, 이번 제 7 차 이사회는 1992년 11월 제 6 차 회의 이후 근 20개월만에 개최된 것이다.

북한은 '70년대 중반이후 대외무역수지의 급격한 악화로 경제난에 봉착하자 서방선진국의 자본·기술도입을 통해 『자력갱생』 노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내의 제반 투자여건이 척박한데다 외채의 누적으로 인해 대외신용도가 실추된 상황에서 서방국가들의 자본·기술유치를 위한 교섭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서방선진국의 차관을 대신할 새로운 외자 유치방법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는 외국기업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활성화의 기반을 도모하는 합영·합작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북한의 합영사업 유치실태를 보면 1993년 12월을 기준으로 조업중인 133개의 합영업체 가운데 대부분은 일본의 『조총련』계로서 서구선진국의 투자는 『류경호텔』, 『양각도호텔』 건설을 위한 프랑스와의 합영·합작 등 5건에 불과하며, 업종별로는 식당·관광·금융·유통 등 서비스 분야가 40%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제조업 분야의 유치는 25% 정도로 주로 소규모의 경공업분야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북한의 합영사업이 『조총련』에만 편중되고 있는 것은 1984년 9월 『합영법』 제정 이후 북한의 적극적인 대북투자 유치활동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폐쇄성, 사회간접시설 미비, 에너지 공급 불안정 등으로 대서방 합영실적이 저조한 데다 자본주의 사조의 유입을 두려워하는 북한이 조총련 동포들을 대상으로 “조국(북한)에 대한 애국심”을 자극, 서방국가들에 비하여 심리적 부담이 적은 조총련 기업과의 합영사업에만 치중하게 된 데 기인한 것이다.

〈북한·조총련간 합영사업 조업실태〉

(1992. 5월 기준)

	업종	내용	기업수
1차 산업	농림수산업	밤, 짚가공, 꿀, 수산물, 약초류, 양식 (뱀장어), 다다미, 목재가공, 합판	12

	업종	내용	기업수
2차 산업	경공업	기성복, 부인양장, 편직물, 인삼크림, 견직물, 견사, 깃털, 기념메달, 의류, 피복, 셔츠, 일용품, 우산, 신발, 수예품	22
	전기·전자	전기·전자제품, TV·타자기부속품, 건설장비(불도저, 클레인)수리, 소형엔진, 엔진재생	7
	화학공업	타이어, 염화비닐수지	2
	의료기기	일회용 주사기, 초음파 검사기, 내시경	1
	금속·광업	레이메탈, 흑연, 화강암·마그네사이트 가공, 금속건재, 압전자기박막, 장식	8
3차 산업	상업	식당, 상점 양복점	8
	금융·무역	은행, 금융, 무역업	3
	운수	관광운수, 냉동화물선, 승용차(버스)	3
	기타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2
합계			68

2. 김일성, 『총련지부 일꾼대회』에 축전(7. 7)

북한은 7월 7일 김일성이 조총련 지부 일꾼대회에 보낸 축전을 통해 조총련 일군들을 격려하면서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요구하였다.

김일성은 이번 축전을 통해 조총련내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모

든 지부를 “사회주의 조국과 애국애족에 변함없이 충실한 조직”으로 만들 것과 『민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일본 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 마련”을 당부하였다.

북한에서의 이른바 『대회』란 당·정·군 및 근로자·사회단체들의 조직 단위별로 소속 종사자를 동원하여 각종 구호와 궤기를 통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사회주의·전체주의 국가들의 군중 동원 형태의 집회이며, 조총련에서의 『일군대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7월 7일부터 이틀간 도교 조선문화회관에서 조총련 지부의 말단조직원까지 동원된 약 2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최근 핵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당국의 대북 강경대응 입장과 조총련 교도본부 및 오사카본부에 대한 경찰수색, 그리고 조총련계 학생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폭행사건 등 전반적으로 일본의 반북경향이 고조된 가운데 개최된 것이 주목되는 바, 북한은 이번 대회를 통해 조총련 조직의 침체 분위기를 해소하고 조직원들의 사기 앙양 및 김일성부자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들의 이른바 『남조선 혁명』을 위한 3대 혁명역량중 『국제 혁명지원역량 강화』 차원에서 조총련의 역할을 강화시켜보려는 의도와 일·북 수교회담 재개시를 대비하여 양국 관계개선에 조총련의 조직과 활동을 적극화하기 위한 사전포석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조·중 군사동맹조약』 체결 33주년 행사 동향(7.7)

북한은 7월 7일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33주년에 즈음하여 인민문화궁전에서 평양주재 중국대사 교종회, 부총리 장 철, 『조·중친선협회』중앙위 위원장 채희정(국가기술위 위원장) 등 관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연회를 개최하고 쌍방 친선관계 발전을 다짐하였다.

〈쌍방대표 연설내용 요지〉

교종회 대사	채희정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조 두나라 인민들이 오랜 역사적 과정에 맺어진 친선관계는 법적으로 고착되어 있으며, 체결 후 33년의 노정은 조약의 정신이 강하게 살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1. 7. 11 조·중간의 조약 체결은 피로써 맺어진 조·중간의 형제적 친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킨 획기적인 사변이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식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새로운 승리가 이룩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한 평등과 자주권의 존중, 내정 불간섭과 동지적 협조의 원칙에 기초한 이 조약에 의해 두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여러 분야에 걸쳐 강화 발전되었음.

교종회 대사	채희정 위원장
○ 중국 당과 정부, 인민은 조선당과 정부, 인민과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임.	○ 두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는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고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통해서 날로 공고 발전되고 있음.

북한은 매년 중국과의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61. 7. 11)을 기념하기 위해 평양과 북경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동시에 기념 집회 및 연회를 개최하여 왔다.

금번 33주년 기념 행사와 관련한 쌍방대표 연설의 주요내용은 중국측이 “조·중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 발전”이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임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이에 대해 북한측은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을 강조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번 행사가 중국의 핵실험에 대한 북한의 지지표명(6. 10)과 북한의 군사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6. 6~13)하여 강택민 주석, 장만년 총참모장 등 중국 고위층과 면담하는 등 상호친선관계가 강화되는 분위기와는 달리 다소 축소된 것이 주목된다.

4. 미·북회담 의제로 『한반도 핵문제』 제기시 ‘난항’ 경고(7. 8)

북한은 7월 8일 조선중앙통신(KCNA)을 통해 미·북한 회담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문제와 남북상호사찰 문제가 의제로 제기될 경우 “회담은 난항에 처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이번 보도의 주요내용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문제와 남북 상호사찰문제를 미·북 3단계 회담의 의제로 제기하는 것은 “조·미간 핵문제 논의에 혼란을 조성하고, 회담 진전에 장애물을 놓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문제들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핵문제가 “북조선과 미국간에 해결되기 전에는 어떠한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과 이 문제가 제기될 시, “회담은 난항에 처할 것”임을 강조, 미·북한간의 핵문제 일괄타결 이전에 어떠한 다른 문제 논의가 불가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남북 상호사찰 문제가 미·북한 회담의 의제로 제기될 경우, 핵문제를 미·북한간에서 일괄 타결한다는 그들 본래의 전략과는 달리 한국이 개입될 소지가 있고 또한 핵문제 일괄 타결의 반대급부로 기대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경제협력관계 설정이라는 당초 계산에 차질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5. 일본 민간경제교류 대표단 북한 방문(7. 12)

북한은 7월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일본 동아시아무역연구회 부이사장인 『아이가와 리이치로』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동아시아무역연구회 대표단이 7월 5일부터 12일까지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관계 일군들과 만나 북한과 일본간의 비정부적 무역·경제·과학기술 협조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합동경제위원회』의 설립과 운영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하였다.

이번 일본 경제계 인사들의 방북활동과 관련하여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이 밝혀진 것은 없으나, 그동안 상호 경제협력 관계발전을 모색해 왔다는 점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6. 28) 및 3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 개최(7. 8) 등으로 북한 핵문제가 대화국면으로 반전되는 시점에서 쌍방의 접촉이 재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쌍방간 무역 및 경제협력의 확대·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조선국제무역 촉진위원회』(위원장 : 리성록)는 북한과 정식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들과의 무역을 담당하는 정무원 대외경제위원회(위원장 : 리성대) 산하기구로서 1992년 7월에도 일본의 민간 경제단체인 『동아시아무역연구회』의 이이지마 도시오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른바 『일본경제교류 대표단』을 평양에 초청하여 동 대표단과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쌍방이 경제교류를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공동성명』형식으로 발표한 바 있다.

〈'92. 7. 21 공동성명 요지〉

- 일본경제교류대표단은 동아시아무역연구회, 일조무역회를 비롯한 무역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업단체, 대기업상사, 대기업메이커, 은행 등 54명으로 구성되었음.
- 대표단은 견학, 해설담화, 의견교환 등을 통해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교정상화 이전에라도 무역 및 경제협력을 발전시킬 것에 대한 의견교환을 했음.
- 쌍방은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아시아와 세계평화에도 유익함을 인정하고 양국간 무역 및 경제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는 문제를 없애는 데 노력할 것에 대하여 의견일치를 보았음.

6. 김정일, 해외동포 조문단을 위한 『위로연』 개최 (7. 19)

김정일은 7월 19일 평양 목란관에서 조총련 『조의 대표단』과 해외동포 『조객』을 위한 『위로연』을 개최하였으며, 동연회에서 당비서 김용순은 연설을 통해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총련 애국사업』을 계속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번 『위로연』에서 김용순 당비서는 김정일을 “탁월한 수령으로 모실 것”과 조총련을 김정일에 “충직한 해외조직으로 다져 나갈 것”을 강조, 조총련의 친 김정일 조직으로의 탈바꿈을 촉구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를 위한 적극적인 『총련 애국사업』 전개를 강조, 북한의 체제 유지에 필요한 종전과 같은 『재정적 협조』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조총련 제1부의장 허종만은 조총련 조직안에 “김정일의 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울 것 이라고 역설, 조총련 조직을 친 김정일 인사 위주의 개편을 시사하면서 “수령님께 못한 충성과 효성을 장군님께 다바쳐 나갈 것”임을 맹세함으로써 김정일 지도체제에 대한 충성을 약속하였다.

이로 볼 때 북한은 조총련을 김정일 통제하에 장악함으로써 체제 유지에 필요한 자금 확보, 일본내 친북인사 저변 확대, 그리고 대남 공작 수행 거점으로 활용하는 종전의 입장을 그대로 답습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조문단에 참가한 조총련 간부들은 김정일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조총련내 그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미·북 3단계 회담관련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7. 25)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7월 25일 조선중앙통신과의 회견을 통해 “남조선 당국자들이 3단계 조·미 회담에서 북남 관계개선을 조·미 개선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핵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장애”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남조선 당국자들”이라는 불특정인을 내세워 “북남관계 개선을 조·미 관계개선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며, 이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지난 3월 21일로 예정되었던 미·북한 3단계 회담이 남북간 『특사교환』이라는 전제조건을 북한이 충족시키지 못해 무산되었던 선례에 비추어 사전에 “선결조건” 운운함으로써 8월 5일로 예정된 이번 3단계 회담에서는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개선 등과 관련, 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사전에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는 것이며, 또한 향후 진행되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배제해 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상호 연관성문제와 관련하여 한승주 외무장관은 7월 21일 갈루치 미국무부 차관보의 방한시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또한 7월 26일 동남아 국가연합 확대 외무장관 회담(방콕) 참석중에는, 탈보트 미 국무부 부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 노력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대화의 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3단계 미·북한 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미·북한 관계개선의 『선결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못박아 내세운 바는 없었다. 다만 1994년 2월 25일 미·북한 뉴욕 접촉 합의문은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재개를 3단계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하였으며, 이후 우리 정부는 특사교환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4. 15) 있다.

8. 김용순 당비서, 미국 CNN-TV 방송사 일행과 회견(7. 31)

북한은 김용순 당 비서가 7월 31일 미국 CNN-TV 방송사의 국제뉴스담당 제1부사장 Jordan Eason(3차례 방북) 및 동 방송사 북경지국장 Mike Chinoy(4차례 방북)과 회견을 가졌다고 보도하였다.

북한 핵사찰 문제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었던 93년말 한국에 취재팀을 보낸 바 있는 미국 CNN-TV 방송사에게 북한이 김일성 사망후 처음으로 방북취재를 허용한 것은 특종을 목적으로하는 CNN-TV의 상업성과 김일성 이후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체제의 안정을 부각시키려는 북한의 정치적 의도가 서로 부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CNN-TV와의 회견에 응한 김용순은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자격으로 회견에 임했고, 또한 김일성 사후 그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의 향후 대외활동이 주목된다.

9. 其他 對外動向

1) 노동당 중앙위, 일본의 신임총리 취임관련 축전(7. 1)

북한은 7월 1일 노동당 중앙위 명의로 무라야마 일본 사회당 중앙집행위원장의 총리 취임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냈다.

이 전문에서 북한은 양당간의 관계가 계속해서 친밀하게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아시아와 세계평화의 수호라는 그의 과업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기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북한은 일·북한 수교교섭이 중단('92년 12월)된 이후, 일본 사회당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 우회적으로 대일 접근을 시도하여 왔으며, 특히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간 일본 사회당 대표단 방북시 양당간의 “이론면에서 협력”과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요청하면서 당시 사회당 중앙집행위원장인 『무라야마』 의원의 방북을 초청한 바 있었다.

북한은 이번 『무라야마』사회당 중앙집행위원장의 총리 취임을 계기로 중단된 대일 수교교섭의 재개를 추진하면서 핵문제와 관련하여 대북 공조체제에서 일본을 이탈시키려는 노력을 배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2) 미·북 3단계 회담 재개 합의(7. 21)

북한은 7월 21일 뉴욕에서 미국과의 실무접촉을 통해, 김일성 사망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미·북한 3단계 회담을 8월 5일 제네바에서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내용을 미국은 7월 22일 국무부 대변인 정레브리핑을 통해 발표하였고, 북한은 같은 날 외교부 대변인 보도를 통해 각각 발표하였다.

당초 미·북한 3단계 회담은 지난 7월 8일 제네바에서 회의를 개시하였으나 김일성 사망으로 첫날 회의만을 마치고 중단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동회담, 북한측 대변인은 7월 10일 성명을 발표, “미·북 3단계 고위급회담을 장례식 기간동안 연기할 것”과 “뉴욕의 외

교채널을 통해 3차 회담 재개 일자를 결정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재개될 미·북한 3단계 회담은 김일성 사후 북한 핵정책과 대외정책 방향을 전반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3) 중앙인민위 명의를 대외 축전 발송(7. 21)

북한은 7월 21일 이집트 독립기념절(7. 21) 및 콜롬비아 혁명기념절(7. 23)과 관련하여 쌍방간의 친선협력 증진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중앙인민위 명의로 발송하였다.

중앙인민위는 북한의 형식상 국가주권의 최고기관으로 주석의 직접 지휘, 감독, 통제하에 있으며 그 구성은 주석, 부주석, 서기장 및 위원들로 임기는 5년으로 되어있다.

이들 위원들은 대부분이 당 정치국원, 비서, 정무원 총리, 부총리 등의 당·정 고위간부직을 겸하고 있으며, 권한과 임무는 『정령』과 결정을 채택하고, 지시를 내리거나 기타 국가의 대내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축전이 과거 김일성 주석 명의로 발송되던 것과 달리 중앙인민위 명의로 발송된 것은 김정일의 대외 직함이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V. 北韓 및 周邊國 動向日誌

V. 北韓 및 周邊國 動向 日誌

1. 북한 주요동향

7월 1일

- 이집트 주재북한대사에 장승길 임명

7월 2일

- 『조평통』 서기국, 『북남 최고위급 회담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발언』 관련 보도 제651호 발표
- 남북 정상회담 실무대표 접촉(관문점)
- 노동당 대표단(단장 : 당비서 황장엽) 쿠바 向發

7월 3일

- 『7-8월 해양 체육 월간』 개막

7월 4일

- 조선국제합영총회사 제7차 아시아회의 개최
- 벨기에 노동당 대표단(윌프레드 마르텐스), 『한민전』 평양 대표부 방문

7월 5일

- 외교부 제1부부장 강석주, 미·북한 회담 참가차 평양 출발

- 대외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성대, 중국 방문차 평양 출발
- 벨기에 노동당 대표단 귀국
- 『조국해방전쟁 승리』 41돌 기념 『전승컵 체육경기대회』 개막(남포체육관)

7월 6일

- 『조평통』 서기국, 안기부의 『구국전위』 지하조직 수사 관련 보도 제652호 발표
- 국가과학원, 인도 국립과학원과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

7월 7일

- 김형직 『탄생 100돌』 기념 중앙연구토론회 진행(인민문화궁전)
- UNDP와 농업 생산증대와 농업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협조 계획서 합의
- 제 1 차 조선친선참관단(단장 : 경공업위원회 부위원장 강순희) 중국 방문차 평양 출발

7월 8일

- 김일성 사망
- 평양시 낙랑구역에 두단혁명사적지 건립
- 강성산, 조총련 합영경제대표단 면담
- 중국 방문 조선노동당 당 일군 대표단(단장 : 남포시 당위원

회 비서 김상묵) 귀국

7월 9일

- 중앙방송·평양방송, 김일성 사망 발표

7월 10일

- 정부 경제대표단(단장 : 대외경제위 위원장 이성대), 중국 방문 마치고 귀국

7월 11일

- 미·북한 회담 북측대표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 귀국
- 조국통일 북미주협회 고문 홍동근, 방북
- 『조총련』 조문 대표단, 방북
- 일본 동아시아 무역조사부 대표단 평양 출발(7. 5~)

7월 12일

- 아라파트 PLO의장 김정일에 조전
- 일본 민간 경제교류 대표단, 방북

7월 13일

- 국제태권도연맹 총재 최홍희, 방북
- 『범민련』 캐나다 지부 의장 전충림, 재미 반한인사 문명자, 김진경, 방북

주요사건

7월 14일

- 『조평통』 대변인, 『남조선 조문단』 방북 환영담화 발표
- 『범민련』 재중 조선인본부 의장 양영중, 방북
- 『범민련』 구라파지역 의장 최기환, 방북
-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위원장 강 일, 방북
- 독일 핀스토종합대학 교수 송두열 방북

7월 15일

- 김정일, 김일성 조문차 방북한 교포들 접견
- 『한민전』 중앙위, 『국민에게 드리는 글』 발표
- 『한민전』, 정부의 조의금지 비난 담화 발표

7월 16일

- 『범민련』 해외본부 대표단, 평양 도착
- 양은식, 선우학원 등 평양 도착

7월 17일

- 『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 당국의 『범민련』 남측본부 조문단 방북저지 비난 성명 발표

7월 18일

- 김정일, 『항일혁명투쟁 연고자』들과 해외동포들 접견

7월 19일

- 김일성 영결식, 금수산의사당(수석궁) 발인

7월 20일

- 김일성 추도대회, 김일성광장에서 진행
- 김정일, 이탈리아 국제관계연구소 총서기 ‘장 카를르 발로리’ 접견
- 『한민전』 중앙위, 북한에 대한 정부 공식입장 규탄 성명 발표

7월 21일

- 최홍희, 김진경 등 평양 출발
- 『한민전』 중앙위, 『조외표시 금지』 관련 정부 당국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발표

7월 22일

- 외교부 대변인, 미·북한 회담 재개(8. 5) 합의 발표

7월 23일

- 『한민전』 중앙위, 김영삼 대통령 고발장 발표

7월 24일

-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 김일성 사망관련 대담 규탄 성명

7월 25일

- 『조선 직업총동맹 중앙위』, 당국의 ‘반인민적 반인륜적 처사 규탄’ 성명 발표

7월 26일

- 『조국해방전쟁 승리』 41돌 근로자모임 개최(중앙노동자회관)
- 덴마크 노동당 대표단(단장 : 프레벤 한센 위원장) 평양 도착

7월 27일

- 『조국해방전쟁 승리』 4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2·8 문화회관)

7월 28일

- 정무원 부총리 강희원 사망
- 덴마크 노동당 대표단, 황장엽 등 당 관계자와 회담

7월 29일

- 『조평통』 서기국, 당국의 박보희 사법처리 방침 규탄보도 제653호 발표

7월 30일

- 『한민전』 중앙위, 『한총련』 탄압 관련 성명 발표

- 『총련』 허종만 책임부의장 귀국
- 덴마크 노동당 대표단 귀국
- 재미교포 여류기자 문명자, 신한민보사 사장 귀국
- 『총련』 상공인 조국방문단 귀국
- 미국 CNN-TV방송사 대표단, 평양 도착
- 불가리아 소년야영단 등 평양 도착
-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 67돌 즈음 집회 진행(7. 29)
- 개성 송도피복공장 조업식(7. 29)
- 독일 자유민주당 지방의회 의원 아힘로데, 평양 도착
 -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 김용순과 담화
- 『조평통』, 남한 당국자들의 반복 대결소동 관련 성명 발표
- 강희원 정무원 부총리 장의식 국장으로 진행

7월 31일

- 미국 CNN-TV방송사 대표단, 만수대 김일성동상 참배
 -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용순과 면담
- 조국전선중앙위 염태준 의장, 당국의 박보희 탄압 규탄 담화 발표
- 조선종교인협의회 대변인, 인간띠잇기대회 공동개최 제의 담화 발표
- 재일조선학생 조국방문단 귀국

2. 김일성 사망관련 조문동향

〈개 요〉

- 김일성사망이후 7. 9~7. 20 기간중 북한방송에서 발표한 외국 및 해외친북교포단체의 조문동향은 조전, 조문, 화환 증정, 애도 기간 설정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밖에 친북단체 및 교포중 조시 또는 조의문을 보내거나 추도집회를 행하는 경우도 있음.
- 조전동향을 보면 국가수반급이 110여개국의 140명이며, 정당·사회단체는 100여건, 해외교포단체는 조총련과 그 산하의 단체들과 해외범민련단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조의방문은 방북의 경우, 해외친북교포 및 단체들로 조총련 조직과 해외 범민련조직 구성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주재 북한공관의 조의방문 경우에는 각 주재국의 정계·사회계 인사들이 비교적 많이 참가하였음.(조의방문 장소는 해당국가 주재 북한대사관이며 대사관이 없는 경우, 일본은 조총련본부, 미국은 유엔대표부 등 해당국가 북한대표부임.)
- 또한 각국 수뇌급 인사들로부터 비교적 많은 화환들이 전달되었는 바, 북한 중앙방송(7. 18)은 7월 14일 현재, 80여개국의 당·국가·정부수반·정당 지도자들의 화환이 전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조기계양 등 공식적인 애도표시를 한 국가는 16개 국가이며, 이밖에 나이제리아는 일부 단체들이 공동으로 애도기간을 설정하였고, 유엔은 7월 15일 유엔본부 건물에 조기계양을 한 것으로 북한방송은 보도하였음.

1) 조 전

<국가수반급>

- 7월 9일 : 캄보디아 국왕 시하누크, 자이르 대통령 모부투, 콩고 대통령 리쭈바, 세네갈 대통령 디우프, 시리아 대통령 아싸드, 토고 대통령 에야데마, 가나 대통령 라울링스, 중앙아프리카 대통령 빠다쎬, 말리 대통령 꼬나레, 인도 대통령 샤프마, 예멘 대통령 살레흐, 알제리 대통령 제루알, 세이셸 대통령 레네, 쿠바 수상 카스트로, 몰디브 대통령 가이움, 이집트 대통령 무바라크, 파키스탄 대통령 레가리, 기네 대통령 콩페, P.L.O의장 아라파트, 마케도니아 대통령 글리고로브, 스위스 대통령 슈티히, 파키스탄 수상 부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스하르토, 적도기네 대통령 므바쑤고, 썬토메프린시페 대통령 프로보아다, 캄보디아 국가수반대리 채아심, 캄보디아 제 1 수상 리나리드, 제 2 수상 훈센, 탄자니아 대통령 위니, 사하라 대통령 아지즈, 튀니지 대통령 알리
- 7월 10일 : 중국(등소평, 주석 강택민, 이붕 총리, 교석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루마니아 대통령 일리에쓰꾸, 인도 대통령 샤프마, 네팔 대통령 데브, 모리타니 대통령 따이야, 라오스 주석 품싸반과 수

상 및 국회의장 등 3명 리비아 대통령 가다피, 몽골 대통령 오치르바뜨, 오만 국가추장 싸이드, 우크라이나 대통령 크랍쉼크, 캐나다 총독 나티신, 인도 수상 라오, 마다가스칼 전 대통령 라찌라까, 월남(월남공산당, 정부주석, 인민회의 상무위, 정부대표), 이란 대통령 라프산자니, 마스가스까르 대통령 알베르, 브르키나파쑈 대통령 콤바오레, 폴란드 대통령 왈레싸, 캄보디아 폰신포크당 위원장 라나리드, 방글라데시 수상 지아, 가봉 대통령 봉고

- 7월11일 : 이디오피아 대통령 제나위, 카타르 국가추장 타니, 우간다 대통령 무쎬베니, 핀란드 대통령 아흐띠짜아리,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라비니, 짐바브웨 대통령 무가베, 나이지리아 국가수반 아바차, 카자흐스탄 대통령 나자르바예브, 꼬모로 대통령 조하르, 잠비아 대통령 미안다, 아르메니아 대통령 빼뜨로샨, 불가리아 대통령 쉐레브, 벨리제 수상 에스키벨, 우스베키스탄 대통령 까리보브, 부룬디 대통령 흥간냐, 모리셔스 수상 쥬그노스, 수단 대통령 바쉬르, 포르투갈 대통령 쏘아레스, 슬로베니아 대통령 쿠찬, 스리랑카 대통령 위제통가, 나과라과 대통령 차모르, 꼬스따리카 전 대통령 오디오, 모로코 대통령 핫센 2 세, 가이아나 대통령 자간, 방글라데쉬 대통령 바스와스, 모로코 국왕 핫싼 2 세,

스리랑카 수상 위크레마싱게, 차드 대통령 데비, 말레이시아 국왕 라흐만, 세인트키츠네비스 수상 씨몬즈, 벨라루시 대통령 글리브, 말레이시아 수상 모하마드, 크로아티아 대통령 푸쥬만, 세인트루시아 정부, 레바논 대통령 하라쉬, 나미비아 대통령 누조바

- 7월12일 : 러시아 대통령 엘친, 태국 국왕 부미볼, 유고 대통령 밀리츠, 모시셔스 대통령 우탐, 레투 대통령 후지모리, 말라위 대통령 물루치, 카메룬 대통령 비야, 그레이나다 수상 브라스웨이트, 튀르키예니스탄 대통령 니야조프, 에리트리아 대통령 에프위키, 바베이도즈 수상 쉐디포드, 부르키나파소 수상 까브레, 앙골라 대통령 산토스, 파푸아 뉴기니아수상 대리 씨엔취, 타자키스탄 국가수반 라흐모노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통령 하싸날리
- 7월13일 : 쿠웨이트 수상 사바흐, 모잠비끄 대통령 쉬싸노, 시에라레온 국가수반 스트라쎌, 쿠바 제1부수상 루쓰, 니제르 대통령 우스만, 이라크 대통령 후세인, 베닌 대통령 쏘글로, 아이슬랜드 대통령 핀보가도티르
- 7월14일 : 말타 대통령 본니찌, 체스코 대통령 하벨, 코트디부와르 대통령 베리에, 유고수상 콘티지, 베르데잡 대통령 몬떼이로, 베네주엘라 대통령 깔데라, 항가

리 대통령 아르파트, 싱가포르 대통령 옹뎡칭

- 7월15일 : 잠비아 대통령 자하라, 보츠와나 대통령 마시레
- 7월16일 : 슬로베니아 대통령 꼬바츠, 쿠웨이트 국가추장 알 사바흐
- 7월18일 : 안티쿠아바부다 수상 바드, 리프바 대통령 브라자 우스까스, 바하마 연방총독 다링, 자마이카 수상 페터슨
- 7월19일 : 비누아트 대통령 마나타와이

〈정당·사회단체〉

- 7월 9일 : 러시아 전연맹 볼셰비크공산당 총비서 안드레예바도, 일본 사회당위원장 대리 쿠보, 공명당 위원장 이시다, 자이르 민족운동위원장 음모요,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 에쿠아돌 공산당 총비서 모스께라, 파라과이 2월혁명당 위원장 빌라그라, 폴투갈 공산당 비서국, 칠레 공산당 중앙위, 스페인 공산당 총비서 페레, 슬로벤스꼬 공산당 중앙위, 페루 통일당 총비서 깐쎬꼬, 요르단 인민통일당 총비서 마히, 페루 공산당 총비서 모레노, 러시아공산주의 노동당 제1 비서 쫘깁, 콜롬비아 공산당 총비서 레알, 놀웨이 공산당 중앙위, 루마니아 새 사회당 위원장 보이께뜨, 벨기에 왈롱 공산주의운동 총비서, 스웨덴 공산당 혁명가 위원장 바우테, 터키 노

동당 위원장, 에레라 인민사회당 총비서, 영국 신
공산당 총비서 트레베트, 미국 사회노동당 전국비
서 반즈, 코스타리카 인민당 총비서 발베르데, 도
미니카 혁명통일지도부, 캐나다 공산당 전국 지도
자 바인스, 도미니카 좌인운동 총비서 에히아, 항
가리 노동당 중앙위, 아르헨티나 공산당 총비서
에체가라이, 페루 민족주의 노동운동 위원장 마라
비

- 7월10일 : 러시아 근로하는 러시아운동집행위 위원장 벨로
브, 네팔 공산당 위원장 아디카리 등 2명, 러시아
자유애국당 집행위 위원장 스클라토프, 네팔 노동
자 농민당 비죽체, 자이르 노동당 전국위원장 은
씨엔, 루마니아 공산당 중앙위, 이집트 민족민주당
총비서 왈리, 도미니카 노동당 위원장 곤잘레스,
그라나다 애국운동 비쇼프, 러시아 공산당 위원장
쥬가노브, 지중해 지역 사회주의자조직 총비서 아
흐바드, 볼리비아 공산당 제1 비서 까스뜨로, 방글
라데시 민족사회당 총비서 이누, PLO총비서 하바
시, 방글라데시 아와미동맹위원장 하시나
- 7월11일 : 카자흐스탄 사회당 정치집행위, 일본 자민당 총재
고노, 인도네시아 민주당 총위원장 노뿌뜨리, 캄보
디아 인민당 위원장 체아심, 러시아 자유민주당
위원장 지리노프스키, 미국 노동자세계당 위원장

마찌, 우루과이 혁명적 노동당 지도부,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당 베트리슈크, 태국 사회망
 당 당수, 앙골라 자유민주당 총비서 안또노브, 말
 타 공산당 총비서 바쌀로, 레바논 사회진보당 줌
 블라트, 앙골라 자유민주당 위원장 란도, 헝가리
 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 드라쉬고위츠, 우크라이나
 공산당 제 1 비서 시몬넨코, 핀란드 노동당 위원장
 라흐텐매끼, 나콰라과 민족해방전선당 총비서 싸
 베드라, 베네주엘라 공산당 총비서 멜리안, 베네주
 엘라 인민선거운동 전국지도부, 노르웨이 노동자
 공산당 위원장 아스코, 타지키스탄 공산당 위원장
 돌로브, 네팔 공산주의동맹 총비서 쉬레스타, 덴마
 크 공산당 위원장 돌로브, 네팔 공산주의동맹 총
 비서 쉐레스타, 덴마크 공산당 위원장 칼쎄, 우간
 다 인민회의 대외관계위원장 카데가야, 태국 사회
 행동당 당수 몬트리, 시리아 민족사회당 위원장
 리아드, 그리스 사회주의운동 중앙위

- 7월12일 : 일본 사회당 위원장 도미이치, 일본 신당 다케무
 라, 미국 공산당 전국위원장 홀, 슬로벤스코 공산
 당 부위원장 세브어쯔 등, 기네 통일진보당 총비
 서 디알로,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총비서 니쓰씨멘
 투, 부룬디 민주전선 총비서 온띠꼬마나, 부룬디
 민족진보통일당 위원장 루카시 등, 자이르 민족운

동 위원장 오말랑카, 적도기네 사회민주동맹당 총
 비서 멜로레스, 유고 공산주의운동 총비서 끼따노
 위츠, 우크라이나 사회당 정치이사회 위원장 대리
 띠아쉬꼬, 베닌 혁명당 총비서 후두

- 7월13일 : 일본 전 수상 가이후, 인도 공산당 총비서 굽따,
 인도 공산당 맑스주의 총비서 쭈리지트, 일본 신
 생당 당수 하타
- 7월14일 : 몽골 인민혁명당 총비서 다시운돈
- 7월15일 : 그리스 사회주의운동 위원장 빠빠두레우
- 7월18일 : 영국 주체사상연구학회 서기장 등, 태국 왕세자
 등, 일본 사회당 조직국장 등

〈해외교포단체〉

- 7월 9일 : 조총련 의장 한덕수, 조총련 중앙상임위,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양병동, 범민족연합 해외본부
- 7월10일 :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위원장 강일, 범민련 유럽,
 오스트리아, 일본지역본부, 일본 김만유(니시아라
 이병원 원장)
- 7월12일 : 조총련 조선상공연합회 등 37단체
- 7월13일 : 세계평화 수뇌자회의 이사회 의장 박보희, 세계평
 화연합총재 특별보좌관 김효율, 조총련 교직원동
 맹 상임위 등 23개 단체
- 7월14일 : 재러시아 친북교포단체 등

- 7월17일 : 조총련 오기나와현 본부 등 지방본부
- 7월20일(보도일자) : 윤이상(범민련 해외본부의장)

〈국내친북인사〉

- 7월12일 : 안호상(단국 대종교 총전교)
- 7월14일 : 유원호, 박용길(문익환목사 부인),
나창순(민족자주평화통일 의장)
- 7월15일 : 재일한국유학생
- 7월19일 : 오충일(기독교 청년회 회장), 김동완(동 총무), 강
(보도일자) 신숙(통일위원회 대리위원장), 강문규(사회민주연
구원 이사장), 박상중(동 원장)

2) 조의방문

〈평양주재 외교단〉

- 7월11일 : 평양 주재 외교단, 무관단, 경제 및 무역참사단 조문
 - * 김정일 및 장의위원 호상
 - * 북한주재 외교대표단 조문(弔文)증정(대표 시
리아 대사)
 - * 북한주재 무관단 조문(弔文)증정
 - * 북한주재 경제 및 무역참사단 조문(弔文) 증정

〈조의방북〉

- 7월12일 : 조총련 조의대표단(중앙 및 중당단체 사업체본부

및 지부대표), 홍동근(조국통일북미주협회 위원장), 장올하(중국) 일행

- 7월13일 : 최홍희(국제태권도연맹 총재), 문명자(재미교포), 김진경(재미교포), 전충림(범민련 캐나다지역본부 의장)일행, 박보희(세계일보 사장)
- 7월14일 : 양영도(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의장), 최기환(범민련 구라과지역 의장), 강 일(국제 고려인 통일연합회 위원장), 송두역(독일 핀도스 종합대학 교수)
- 7월15일 : 조총련 조의대표단(단장 : 정광수 부총국장) 김은하(신한민보사장), 서순옥
- 7월16일 : 손원태(재미교포)일행, 범민련 해외본부 조의대표단(단장 임민식 사무국장), 양은식(범민련 미국본부 상임의장), 유태형(범민련 미국본부 공동의장), 선우학원(범민련 미국본부 고문), 전승태(조국통일 북미주협회 사무국장), 최정렬(동 고문), 조대성(국제태권도연맹 사무국장), 리영빈(조국통일해외기독자회 회장), 김순환(동 총무), 최근국(범민련 구라과지역본부 위원), 김현환(미국 자주사상연구소 부장)

〈재외공관 조의방문〉

- 7월 9일 : 페루 사회혁명당 총비서 까스파네다 등 9명

- 7월10일 : 미국 국무차관보 갈루치, 파키스탄 수상 부토, 네 팔 맑스레닌주의당 위원장 아디까리 등 2명, 덴마크 노동당 위원장 한센, 중국 당, 국가, 사회단체 간부, 페루 정계·사회계 인사, 레바논 대통령 특사 등, 알제리 민주주의운동 총서기 벤스마인
- 7월11일 : 카자흐스탄 대통령 나자르바예브, 러시아 국가회의 부의장 웬게로브스키 등, 말리 대통령 꼬나레, 캄보디아 국회의장 채아심 등, 월남 수상 키엣 등, 방글라데쉬 대통령 비스와스, 적도기네 대통령 므바쏘고, 우즈베크스탄 내각수상 무탈로프, 말리 수상 케이타, 인도 정계·사회계 인사, 탄자니아 대통령려 므위니, 이집트 대통령 특사 나라끄 등, 가이아나 대통령 제이건, 탄자니아 수상 말리첼라, 부르키나파소 대외관계상 등 다수 파키스탄 알리(외무상)등 당·정 관계 인사, 러시아주재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등 29개 대사관, 이태리 정계·사회계인사,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 총국장 등, 리비아 가다피 특사 하르비, 모잠비끄 내무상 안또니오, 니키라과 민족해방전선 총비서 등, 알제리 수상 시피 등, 스위스 노동당 전국위원장 등, 루마니아 새사회당 위원장 모이께도 등, 앙골라 자유민주당 위원장 란두 등, 몽골 대외관계성 총국장 후렐바따르 등, 알제리 조선친선구락부 위원장 벤하블라

등, 우간다 제 2 부수상 등, 말리 국회의장 디알로 등, 우간다 수상 아디예보, 가이아나 전 수상 호이트 등, 부르키나파소 노동운동 총서기 꾀빠우레 등, 체코공산당 전 총서기 아께이슈 등, 이디오피아 농업상 등, 영국 공산당 총비서 히스 등, 기네 정부대표단, 말레이시아 인민운동당 총비서 단중태 등, 폴란드 정부대표단, 리비아 학생총동맹 총서기 등, 쿠바 당·정 지도간부 등, 튀니지 인민통일당 총비서 아모르 등, 방글라데시 광물자원상 등, 베네주엘라 각계인사 등, 나이지리아 고위간부 등, 세네갈 각계인사 등 파키스탄 교육상 등, 마다가스카르 각계인사 등, 모잠비크 조선친선위원장 등, 우간다 제 3 부수상 등, 멕시코 인민청년 총비서 미리안 등

- 7월12일 : 러시아 고려인통일연합회 위원장 강일 등, 러시아 공산당위원장 쥬가노브 등 정계, 사회계인사 10여명, 캄보디아 제 1 수상 리나리드, 잠비아 부대통령 리얀다, 요르단 수상 하쉬미르, 짐바브웨 대통령 무가베, 모잠비크 대통령 치사노, 인도 수상 라오, 태국 수상 추안, 우크라이나 최고쏘비에트위원장 모로즈, 수상 마쉴, 유엔 사무총장 갈리, 캄보디아 인민당 대표단 앵삼린 등, 네팔 수상 코이랄라, 적도기네 인민대표회의 의장 오비앙, 불가리아 대통

령 고문 샤르란지예바,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위원장 제길바예브, 세네갈 아프리카 독립당 위원장 등, 우즈베키스탄 국제문화담당 참사 등, 기네 통일진보당 총비서 디알로 등, 니과라과 부대통령 고도이 등, 짐바브웨 국방장 마치 등, 베닌 혁명당 총비서 후드, 이태리 외무장 안포리보 등, 가나 민족민주대회 총비서 등, 독일주재 범민련 구라파지역본부 부의장 등, 또고 각계 인사 등, 불가리아 공산당 위원장 등, 폴란드 사회민주당 대표단 등, 탄자니아 내무장 등, 필란드 각계 인사 등, 멕시코 외무장 등, 시리아 인민회의 대외관계 위원장 등, 폴란드 전 대통령 등 각계인사

- 7월13일 : 중국 총리 이붕 등 지도급인사 다수, 일본(중국, 라오스, 이란, 알제리 조총련본부, 오지리대사들과 시리아, 튀니스, 인도 등 외교관), 미국 기독교회 협의회 회장 이승만 등 5개 단체 및 8명 시리아 대통령 아싸드, 이란 대통령 라프산자니, 부룬디 대통령 홍간나, 마다카스칼 수상 라보니, 쿠바 수상 사스트로 및 당·정부 지도자 다수, 일본 전 수상 가이후, 이란대통령 라프산자니 및 외무장 등,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통일기구 총서기 쌀림, 에티오피아 과도정부 이사회 부위원장 게라노 등, 러시아 국방성 부상 미르노브 등 정계·사회계 인사

다수, 미국 스펜서(카터 보좌관), 적도기네 인민대표회의 의장 오비앙, 미국 빌리그래함(종교인), 탄자니아 국회의장 움세끄, 스페인 정계·사회계 인사, 중국 전 중국인민지원군 부총참모장 오수군 등, 가이아나 하인게 수상 등, 일본 전 일본수상 하타 등, 세네갈 수상 치암, 루마니아 상원의원 게헤르만 등, 알골라 국회의장 디아스반두삼 등, 태국 국회의장 아루투 등, 오스트리아 관방실장 와브리코, 헝가리 국회부의장 라슬로 등, 튀니스 수상 야히야가, 파키스탄 국회의장 길라 등, 이집트 민족민주당 총비서 왈리 등 모잠비크 해방전선당 부총서기 등, 오쿠라이나 공산당 제1 비서 씨모넬코 등, 요르단 하원의장 알마쓰리 등, 유고 전 국가상무위 위원장 요이츠 등, 프랑스 불력불가담 프랑스 연구소위원장 등, 스위스 연방, 제네바 주 수상 등, 카자흐스탄 공산당 조정이사회 위원장 꼬를로브 등, 덴마크 노동당 위원장 한센 등, 미국 공산당 국제비서 머피 등, 탄자니아 혁명당 대표단, 시리아 부대통령 마사리카 등, 잠비아 민족통일독립당 의장 바쉬키 등, 탄자니아혁명당 총비서 콜림바 등, 말리 각계 인사 등, 파키스탄 공업상 등, 캄보디아 국왕 고문 등 정계·사회계인사, 기네 정당 당수 등, 말리 경제사회문화 이사회 위원장

등, 싱가포르 외무상 등

○ 7월14일 : 일본 중의원 의장 도이, 몽골 대통령 오치르바뜨, 라오스 주석 품싸반 등, 부룬디 수상 간넝히꼬, 자이르 대통령 특사 르므나, 라오스 외무상 멩싸와르, 기네 대통령 꾀땀 등, 이란 제1부통령 하비비, 몽골 인민혁명당 총비서 다쉬온돈, 앙골라 수상 까를로스, 마다가스칼 조의대표단, 세네갈 국회의장 시꼬꼬 등, 마다가스칼 국회의장 안드리아 만짜두 등, 쿠바 공산당 정치국 위원 등, 부룬의 민족진보통일당 위원장 무카쓰니 등, 페루 대통령 부관, 콩고 각계 인사 등, 자이르 각계 인사 등, 가나 국회의장 만남, 카메룬 인민민주연합 고문 등

○ 7월15일 : 쿠바 수상 카스트로, 말리 민주주의발기 민족대회 위원장, 가나대통령 라울링스 등, 유고 대통령 릴리츠 등, 말레시아 수상 모하마드 등, 유고 연방의회 의장 라돌로위츠 등 체스코 의례국장 하벨 등, 헝가리 대통령 특사, 잠비아 내무상 등, 태국수상 실상 트르풍 등, 씨에라레온 국가수반 스트라쎌, 러시아 볼셰비크 공산당 비서 등,

* 북한방송(7.20)은 14-15일간 44개단체 60여명의 재미교포들이 유엔 북한대표부에 조문했다고 주장

○ 7월16일 : 콩고 대학생 리쭈바 등, 탄자니아 제2부통령 아모

우르 등, 일본 사회당 전 위원장 사다모 등, 자이르 수상 돈도 등, 인도 여러 정당 국회의원들, 월남 당·정계 인사 등, 루마니아 상업성 국무비서 등, 캄보디아 불교도 자유민주당대표단, 네팔 상원 의장 까르끼 등, 우즈베크 전 수상 두다이베르기에, 인도 사회주의당 위원 등, 콩고 정당대표단 및 정계인사, 부룬디 체육상 등 정·당·사회단체 인사

- 7월18일 : 예멘 민간봉사상 아르씨, 부르키나파소 수상 까보레
* 북한 중앙방송은 7. 18 현재 네팔인 5천명이 북한 대사관을 조의 방문했다고 주장
- 7월 19일 : 우간다 대통령 무쎬베니

3) 화환 증정

〈금수산 의사당〉

- 7월11일 : 등소평(중국), 강택민(중국), 카스트로(쿠바), 아라파트(P.L.O), 아짜드(시라아), 샤르마(인도), 가다피(리디아), 아바지아(나이제리아), 라오(인도)
- 7월13일 : 시히누크(캄보디아 국왕), 무바라크(이집트대통령), 이집트 국방상 및 총참모장, 조선통일지지스웨리위원회, 중국, 캄보디아, 이집트, 월남, 이란, 유엔개발계획 대표부, 북한주재 대사관
- 7월14일 : 스웨덴, 일본 등 정당대표

- 7월16일 : 월남 공산당 총비서 등 외국 당·정인사, 북한주재 외교사절 및 유학생 등
 - 7월17일 : 이란 및 몽골 대통령, 인도네시아, 레바논, 짐바브웨, 기네, 우간다, 탄자니아, 모잠비크, 말리, 앙골라, 자이르, 니과라과 국가수반 등
 - 7월18일 : 요르단, 예멘, 가나, 가이아나, 말디브제도 국가수반 및 친북단체 등
 - 7월19일 ; 부르키나파소 대통령, 아시아지역 주체사상 연구 소장
- ※ 북한 중앙방송(7.18)은 7. 14 현재 80여개국의 당·국가·정부수반 정당 지도자들이 화환을 보내왔다고 주장

〈주중북한대사관〉

- 7월11일 : 등소평, 강택민, 이붕, 진운, 교석, 이서한, 팽진, 주용기, 유화청, 호금도, 전기침, 양상곤, 만리, 요의림, 송평, 박일화, 송임궁, 장진 등 18명의 인사와 외교부 주·중 우호협회 등 11개 단체, 문선명 (세계평화연합총재), 영의인(중국 부수석)

〈재외북한대사관〉

- 7월12일 : 인도 대통령
- 7월15일 : 앙골라 대통령
- 7월16일 :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

4) 애도기간 설정국가

일 시	국 가 명	애도기간	조 의 내 용
7. 9	캄보디아	7.10-12(3일)	조기계양, 각 성·기관·단체 들의 자국주재 북한대사관 조의방문
	월 남	7.17	국가기관 및 기업소에 조기 계양, 유희·오락 금지 조기계양
	나과라과 시리아	7.12-14(3일) 7.10-17(8일)	조기계양 조기계양(정부청사) * 애도기간 설정 발표는 없음.
7. 10	라오스	7.14-16(3일)	조기계양(당·정·사회단체·외 국공관)
"	기 네	7.10-17(8일)	기간중 매일 라디오 1회·TV 2회: 김 일 성 사 망 관련 보도
7. 11	태 국	7.11-13(3일)	조기계양(모든 국가기관 및 국영기업소)
"	쿠 바	7.15-17(3일)	조기계양(공공건물, 군사건 물)
7. 12	네 팔	7.17	조기계양, 단체행사·주연·가 무 금지

주요내용

일시	국가명	애도기간	조 의 내 용
7. 16	중 국	7.20	조기계양(천안문광장, 인민대회당, 중남해의 신화문, 외교부 등), 라디오·TV 오락방송 중지
"	모잠비크	7.17	
"	나이제리아 일부단체	7.14-16(3일)	흑색양복과 리본착용, 추도모임
7. 18	인 도	7.18-20(3일)	조기계양(인도전지역·외교공관) 오락금지
"	우간다	7.19	조기계양, 가무금지
"	유엔본부	7.15	조기계양(유엔본부 청사)
"	파키스탄	7.19	조기계양(국가·정부기관·기업소)
7. 19	짐바브웨	7.21	조기계양(전국)
7. 21	방글라데시	7.20	조기계양(정부, 자치기관 청사·재외공관)

5) 애도표명

- 7월 9일 : 에콰도르 공산당 총비서 모스께라, 파라과이 혁명당 위원장 빌라그라, 멕시코 인민사회당 총비서 싸야고, 브라질 10.8 혁명운동 국제비서 가르바코

- 7월10일 : 미국 대통령 클린턴, 미국 전대통령 카터,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
- 7월11일 : 필리핀 외무상 로무로, 러시아 외무성 부국장 베니쑨브, 유엔 사무총장 갈리 및 유엔안보리

3. 북한의 대남 비난·선동 방송일지(7. 1~7. 31)

(중앙방송, 평양방송)

일 자	제 목	비 고
7. 1	<p>폭압은 출로가 아니다.</p> <p>중방 “남조선 위정자들의 노동운동에 대한 폭압만행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민적이고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임”</p> <p>평방 한민전 중앙위, 당국의 사대 핵외교 관련 백서 발표</p> <p>“현 문민정권은 한반도에 냉전기류를 끌어 들이고 우리 민족을 핵 전략의 희생물로 삼으려는 미국의 반복 핵모략 소동의 앞장에 나서 돌격대 노릇을 해 왔다고 하면서 미국의 침략적인 국제공조체제 실현에 핵 트로이목마로 나선 것이 문민 집단임”</p> <p>” 남한 철도청, 북귀 미신고 철도원에 직위 해제</p> <p>“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할 당국이 오히려 철도에서 일할 의사가 없어서인 것처럼 여론을 내돌리면서 투쟁 참가자들을 처벌하려 하고 있음”</p> <p>” 전두환·노태우 화해</p> <p>“서로 앙숙이 되어 돌아가던 그들이 한자리에 마주 앉아 먹자판을 벌이며 화해놀음을 벌인 것도 가관이지만, 협조요 뭐요 하며 저들이 현 정권의 무슨 후견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세한 것은 가소로움”</p>	<p>근로자투쟁선동</p> <p>국제공조 체제 구축 노력 비난</p> <p>철도 파업 관련 비난</p> <p>화해 비난</p>
7. 2	<p>중방 조평통 서기국, 북남 최고위급 회담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발언 관련 보도 제641호 발표</p> <p>“북남 최고위급 회담에서 핵문제를 토의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북과 남의 최고위급들이 할 일이지 남조선 국무총리나 김종필이 나서서 이러니 저러니 할 문제가 아님.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어디까지나 조·미 사이에 해결되어야 함”</p> <p>평방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은 거래의 요구이며 시대의 요청</p>	<p>정상회담 관련 총리 비난</p> <p>좌익출소자 송환 요구</p>

일 자	제 목	비 고
7. 2 평방	돈이 있으면 박사도 되고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 세상 ※ 특수대학원 논문 대리작성 행태 비난	교육비리 비난
7. 3 평방	분열과 대결의 상징 콘크리트장벽 “콘크리트장벽 때문에 북과 남의 거래들은 자유롭게 오가지 못하고 가족 친척들의 안부조차 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남 사이에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의 전면 개방의 길이 막히고 있음” “민족대회는 반드시 소집되어야 한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각계각층 인민들의 통일의 길을 외면하고 북남대화 창구를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임” “초보적인 인권마저 짓밟는 사회 “장기수들에 대한 야만적 폭압행위는 인권의 폐허지대로 된 남조선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실례의 하나임”	장벽 비난 대화창구 일원화 비난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관련 비난
7. 4 중방 평방	남한 비전향 장기수들의 석방 및 복송을 위한 국제위원회 등, 비전향 장기수의 석방 요구 조국통일을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이끄시어 “72. 5 남조선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에 와서 북남 고위급 정치회담이 진척됨에 따라서 북과 남의 대표들이 모여 앉아 공동성명 초안을 작성할 때 친애하는 김정일은 해당 일꾼을 불러 넓은 도량과 아량있는 포용력, 진지한 설득력을 가지고 사업할 데 대해 당부했음”	좌익출소자송환 요구 김정일 찬양
7. 5 평방	한민전 평양대표부 대표,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22돌 즈음 답화 발표 “남북 최고위급 회담이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으로 되자면 현 민자당 정권이 이 중대한 회담을 자기의 정권유지를 위한 기만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함. 또한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남녘 민중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탄압하는 일체의 폭압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남녘 땅에서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시대착오적인 대결과 전쟁소동을 걷어 치워야 함”	

일 자	제 목	비 고
7. 5 평방	부모들의 뜻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 “국군장병 여러분은 적대국도 아닌 한 핏줄을 나눈 형제이고 동족인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고 있으며 의세와 함께 매일같이 북침전쟁 연습에 내몰리고 있음”	국군 투쟁 선동
7. 6	조평통 서기국, 안기부의. 구국전위 지하조직 적발 관련 보도 652호 발표 “안기부가 갑자기 이런 날조극을 꾸며낸 것은 북남 최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화해와 통일으로 쏠리는 민심을 막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철도와 지하철 노조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파업을 우리와 연결시켜 탄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7. 7 중방 평방	김일성, 총련 지부 일꾼대회에 축전 “총련 지부 일꾼대회가 총련의 기층조직을 강화하고 재일조선인 운동을 새로운 단계으로 발전시키는 이정표가 되리라 믿음” 대화와 전쟁책동은 양립될 수 없다. “미국의 강경보수세력과 남조선 호전분자들은 무분별한 전쟁책동을 당장 견어치우고 대화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조총련 격려 한·미 비난
7. 8 중방 “ “ 평방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 국방장관의 신도시 방어용 활용 발언 규탄 조국통일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 대화 분위기를 해치려 하는 행위 “대화 상대방을 자극하는 불순한 언동과 도발책동을 일삼으면서 회담 분위기를 해치려 하고 있으니, 과연 남조선 당국에게 대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대화와 협상은 핵문제 해결의 근본방법 “대화와 협상이 핵문제 해결의 근본방도로 되는 것은 그것이 세계 인민들의 한결같은 염원과 지향에 전적으로 부합되기 때문임”	국방장관 비난 연방제 찬양 비무장지대 무기반입 날조 비난 협상 옹호

일 자	제 목	비 고
<p>7. 9 중방</p> <p>"</p> <p>"</p> <p>"</p> <p>"</p> <p>"</p> <p>"</p>	<p>북한방송, 낮 12시 라디오 및 TV 특별방송 예고(7.9 10:00)</p> <p>한민전 중앙위 노동국장, 노동운동 탄압관련 담화 발표</p> <p>김일성 7월 8일 사망 발표</p> <p>“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고함. 우리 전체 노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인민군 장병들, 지식인들과 청년학생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총비서이며 공화국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94. 7. 8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나라 전체 인민들에 알린다”</p> <p>“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 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탁월한 영도자이시며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 동지께서 서 계신다”</p> <p>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등, 김일성 장의위원회 273명 구성</p>	<p>근로자투쟁 선동</p>
<p>7. 10 중방</p> <p>"</p> <p>"</p>	<p>강택민 등, 김일성 사망 관련 조건</p> <p>“우리는 조선인민이 김일성 동지의 뜻을 이어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 두리에 굳게 뭉쳐 자기 조국을 훌륭히 건설하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계속 전진하기를 굳게 믿습니다.”</p> <p>경애하는 어버이 김일성 동지는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할 것이다.(로동신문 사설)</p> <p>“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김일성이 개척하고 이끌어 온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 그대로 남아 있음. 우리 인민의 행복과 미래, 우리 조국과 민족의 융성번영과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는 전적으로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어떻게 고수하고 빛내이는가에 달려 있음. 김</p>	<p>김정일 후계추대</p>

일 자	제 목	비 고
7. 10 중방	정일 동지를 높이 받들어 모시고 그이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는 것이 수령의 위업을 계승 완성해 나가는 참된 길임”	
7. 13 중방	서울의 한 대학교 등, 김일성 사망 관련 애도 표명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는 학생들과 양심적인 교수들이 김일 성에 대한 경모의 정을 안고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했음” ” 경실련 및 사회계와 재야 인사들, 정부에 조문사절단 파견촉 구 ”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한 남녘의 혁명가들 “오늘도 남녘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아버지 수령님께 충성 다한 그들의 뒤를 이어 통일의 향도성으로 받들어 모신 김정 일에 충성을 맹세하며 자주 평화 통일의 길에 나서고 있음”	대남 선동 대남 선동 대남 선동
7. 14 평방	남녘 겨레를 한품에 안아 보살피 주시며 “수령의 품은 사상과 정견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 대 단결로 나서게 한 품이었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한 품에 안아 재생의 길로 이끌어준 아버지의 품이었음” ” 조평동 대변인, 남한 인사들이 평양에 조문단을 파견하려는 것과 관련 답화 발표 ① 우리는 평양에 오는 남조선 조문단·조문객을 동포애로 맞이할 것임. ② 남조선에서 오는 조문단·조문객들은 판문점을 통과해 올 수도 있고 제3국을 경유해 올 수도 있을 것임. ③ 우리는 이들의 평양 체류기간 신변안전을 보장하며 모든 편의를 보장할 것임. ” 의로운 소행 “서울에서의 방송 보도에 의하면 수령 서거와 관련한 대자 보들이 남조선 대학들에 게시됐음”	대남 선동 대남 선동

일 자	제 목	비 고
7. 15 중방	슬픔을 힘으로 바꾸어 통일 그날을 앞당기리 “우리 인민은 김정일 영도밑에 수령이 제시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10대강령을 받들고 단결하여 통일을 기어이 실현하고야 말 것임”	통일투쟁선동
”	위대한 태양을 잃은 비통함을 금치 못하는 남녘 겨레들 “수령이 생전에 그렇게 바라던 조국통일을 김정일의 영도밑에 기어이 이룩하리라”	”
”	민족의 수치다. -해적 언론인 정수옥 글- “남조선의 해적 언론인 정수옥이 김일성 서거와 관련 애도의 뜻을 표시함과 함께 남조선 반역집단의 반인륜적 처사를 규탄했음”	조의 불허 비난
평방	한민전 대변인, 김일성 사망 관련 남한 당국자들의 반인륜적 행위 규탄 담화 발표 “미·일 정상들까지도 애도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때에 정상 회담의 대상이었고 동족인 김○○만이 조폭하고 경망스럽게 행동하고 있음. 온 겨레는 지금 김○○일당의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처사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음.	대통령 거명비난
7. 16 중방	국가 장의위원회 김일성 영결식 연기 관련 공보 발표(7. 15) ① 조객들은 '94. 7. 18까지 계속 맞이한다. ② 영결식은 '94. 7. 19 평양에서 거행한다. ③ 추도대회는 7. 20 진행한다.	
”	남한 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 사무총장(강문규)과 재일한국 민주통일연합, 김일성 사망 관련 조건	
”	북한방송, 남조선 일각에서 김일성 사망에 애도표시 및 조문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	통일전선
”	북한방송, 당국이 김일성 사후 북남관계를 긴장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 “남조선 당국자들은 비보가 발표된지 30분도 못되어 국가안	당국 맹비난

일 자	제 목	비 고
7. 16	<p>전보장회의 등을 열고 특별경계령을 내리는가 하면 남조선 중방 인민들의 조의표시를 총칼로 탄압하는 망동을 부리고 있음”</p> <p>“ 남한 단군 대종교 총진교 안호상, 김정일에 조건(7. 12)</p> <p>“ 한총련, 김일성 사망 관련 성명서 발표(7. 13)</p> <p>① 김일성 주석 서거에 진심어린 마음으로 애도함.</p> <p>② 정부 당국이 각 정당·사회단체와 함께 조문단 파견을 촉 구함.</p> <p>③ 정부 당국이 각종 비방과 대결정책을 취소하고 민족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한 전향적 자세를 견지할 것을 강조함.</p> <p>“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 조문단 파견(7. 16)</p> <p>“당국은 평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판문점으로 가던 조문단(강희남)을 연행했음”</p> <p>평방 뜨거운 은정은 남녘의 어민들에게도</p> <p>“남조선 어민들에 대한 아버지 수령의 은정은 오래 전부터 김정일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음”</p> <p>“ 북한방송, 김일성 사망 관련 특이한 자연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고 보도</p> <p>“ 조선신보사 부국장 및 총련 동포들, 김정일에게 충성다할 것 을 다짐</p> <p>“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위대한 수령으로 받들어 나감으로서 경애하는 김일성 대원수님의 생전의 높은 뜻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음”</p>	<p>통일전선</p> <p>호칭 특이 동향</p>
7. 17	<p>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 당국의 범민련 남측본부 조문단 북 중방 행길 저지 관련 성명</p> <p>“남조선 당국이 몇몇 조문객의 북행길은 막을 수 있어도 수 령을 따르는 남녘 동포들의 민심은 막을 수 없음”</p> <p>평방 북과 남 사이에 자유내왕의 길을 열어 주시려고</p> <p>“김일성을 잃은 슬픔을 안고서도 남조선 인민들이 조객으로 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인공적인 민족분열의 장벽때문임”</p>	<p>조문 불허 비난</p> <p>통일투쟁 선동</p>

일 자	제 목	비 고
7. 19 중방	강신숙 목사(통일위원회 대리위원장) 강문규 이사장(남조선 기독교 사회민주연구원) 박상증 원장(" ")	
"	한총련, 김일성 영결에 애도 표시 예정 “한총련이 09:00 산하 10여개 대학 정문에 일제히 조의 프 랑카드를 내걸기로 결정했다 함”	
"	김일성 영결식, 금수산의사당에서 진행 “김정일 동지가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영전에 목 상하고 영구를 돌아봤음”	
7. 20 중방	범민련 해외본부, 남한 당국의 조의 방문단 북행 차단 비난 성명 발표 “남측 당국은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 준비위를 비롯한 각계 각층 민중들의 조의 방문을 보장해야 하며 탄압책동을 견어 치워야 함”	당국 조의 불허 비난
"	남녘 땅에 굽이치는 경모의 마음 “남녘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김일성을 민족의 어버이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 흠모하며 수 령께 운명을 의탁하고 살아왔음”	통일전선
7. 21 중방	남한 역사소설가, 김일성 조문활동 지지 비난 “김○○ 역적은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우리 민중의 통곡소 리마저 총칼로 억누르고 있으니 이런 자를 어찌 인간이라고 하겠는가”	대통령 비난
"	남한 당국자, 대학생들의 시위 등에 단호 조치 방침 “남조선 당국자는 17일 각 대학 총장들을 모아 놓은 자리 에서 학생들의 행동이 격렬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공산주의를 따르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위협 했음”	주사파 엄단 방침 비난

일 자	제 목	비 고
<p>7. 21 중방</p> <p>“교수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김일성의 생전의 뜻을 받 들고 김정일의 영도따라 통일 성업에 매진할 결의를 다졌다 함”</p> <p>“</p> <p>육군 사병, 김일성 추모 탄압하는 기무사 폭파 강조 “민족의 아버지를 잃은 슬픔의 눈물까지도 탄압하는 김○○ 파쇼집단에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p> <p>평방</p> <p>한민전 중앙위, 정부 당국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발표(7.20)</p> <p>① 동족의 비통한 유고에 특별경계령으로 대응하는 것이 조 상전래의 예의와 도덕에 맞는가</p> <p>② 조의 표시에 대한 우리 민중의 민족적이며 애국적인 감 정을 모독하고 총칼로 탄압한 김○○ 일파도 과연 인간 이라고 할 수 있는가</p> <p>③ 조의 표시를 국민적 정서에 걸어 가로막은 행위야말로 민심에 대한 역행이고 민중에 대한 모독으로 된다는 것 을 인정할 용의는 없는가</p> <p>④ 애도 표시도 하지 않고 동족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가한 주체에 이제 무슨 체면으로 대화를 운운하고 통일에 대 해 말할 수 있겠는가</p> <p>⑤ 반인륜적이고 반민족적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용의는 없는가</p> <p>“</p> <p>한민전 중앙위, 당국 비난 성명</p> <p>“김○○ 정상배 집단이 겨레와 전 세계가 김일성 서거에 애 도의 뜻을 표하고 있는 때에 미국이 불질한 6.25 전쟁을 놓 고 이복을 시비한 것은 히스테리적 망발이며 망동임”</p>	<p>찬양 날조</p> <p>국군 선동</p> <p>조러 불허 비난</p> <p>조의 불허 비난</p>	
<p>7. 22 중방</p> <p>김정일 7. 19 총련 조의 대표단과 재일동포 조객을 위해 위 로연(목락관)</p> <p>※ 김용순 연설, 김정일 불참</p>		

일 자	계 목	비 고
7. 22 평방	현대중공업 노조원들, 직장폐쇄 항의 대규모 집회 진행	근로자 선동
7. 23 중방	한민전 중앙위, 김일성 추도모임 진행 관련 공보 발표 “서울과 각지역에서 잔인무도한 파쇼폭압을 박차고 단행된 김일성 영결 추도모임들은 애국과 매국간의 날카로운 투쟁을 동반한 의로운 장거로써 민족해방운동사에 또 하나의 특기할 장을 아로 새기었음”	통일전선
“	남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안에 중무기 설치 “남조선 호전분자들이 비무장지대안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행위들을 발광적으로 감행했음”	날조 비난
평방	남한 전주 김씨 문중들, 김일성 사망일을 문중 제사날로 지정 “근세에 와서 전주 김씨 문중에서 김일성과 같은 위인을 배출한 것이 자랑으로 되었는데 급사하다니 김씨 가문의 동량이 꺾이운것 같아 비통함”	날조 선전
7. 24 중방	법민련 북측본부 중앙위, 김일성 사망 관련 남한 당국자들의 처사 규탄 성명 “남조선 당국자들이 이번에 벌인 반복 대결 책동은 북남 최고위급 회담 정신에 배치되는 도발임”	주의 불허 비난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 서강대 박홍 총장 발언 비난	통일전선
7. 24 평방	박보회 조의 방문후 평양 출발 “나는 김일성의 접견을 두번씩이나 받은 사람으로서, 주석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 방북했음. 이것은 정치 이전에 인도주의적인 소행이고 사상과 이념 위에 있는 민족적 차원에서 한 행동이고 내 종교 교리에도 부합되는 신성한 일이며 인류 보편적인 윤리도덕의 견지에서 당연한 행위로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통일전선

일 자	제 목	비 고
7. 25	한민전 대변인, 한총련 탄압 규탄 성명 발표(7. 22)	조히 불허 비난
중방	“현 집권당국은 천하의 악독한 민족반역집단, 인륜도덕도 예의범절도 모르는 무지막지한 깡패집단으로서의 정체를 드러냈음”	
“	민족은 반민족집단의 대범죄를 결산할 것이다. “남조선 당국자들과 같은 급살맛을 인간쓰레기들을 탐해하기엔 인종지말이라는 표현도 너무 가벼움. 우리는 추호도 용서함이 없이 남조선 통치집단의 대범죄를 단단히 결산할 것임”	“
“	남북한 외교부 대변인, 제3단계 조·미 회담 관련 중통 기자 질문에 대답 “남조선 당국자들이 제3단계 조·미 회담에서 북남관계 개선을 조·미 관계개선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한 것은 문제 해결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불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것임”	남북대화 선행 발언 비난
평방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따르는 남녘의 민심 “남조선 신문들이 전하는 김정일 위대성에 관한 기사 편집물들은 그이를 우리 민족의 영도자로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남조선 인민들의 심중을 그대로 보여 준 것임”	남조 선전
“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 김일성 사망 관련 남한 당국자들의 처사 규탄 성명 발표 “남조선 당국자들은 최고위급 회담의 근본정신에 배치되는 그릇된 입장을 추구하고 지극히 저열하고 비이성적인 극악 무도한 망동을 벌임으로써 정치적으로 불순하고 진실치 못한 사기한들의 집단임”	조의 불허 비난
“	김책공대 ‘김광일’ 학생, 남한 당국의 조문 저지 비난 “오늘 북과 남의 관계는 남조선 파쇼도당의 비인간적이고 반민족적인 처사로 해서 다시금 대결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	“

일 자	제 목	비 고
7. 26 중방	<p>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 남한 당국자들의 반인민·반인륜적인 처사 규탄 성명 발표</p> <p>“온 민족을 모독한 김○○ 일당의 이번 죄행을 천으로 계산하고 만으로 그 대가를 받아내기 전에는 절대로 가슴에 서린 천추의 한을 풀지 못할 것임”</p>	주의 불허 비난
“	<p>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노동자들, 김일성 사망 관련 당국 처사 비난</p> <p>“김○○ 역도는 애도와 조의를 표시하는 선량한 사람들을 총칼로 탄압해 나섰음”</p>	“
“	<p>주제넘고 가소로운 망언</p> <p>“우리의 제도와 정책을 두고 그 무슨 얼빠진 개혁과 개방을 운운한 것 부다가 언어도단이며 우리 인민의 신념에 대한 모독임. 원래 개혁·개방으로 말하면 북이 아니라 남이 해야 함”</p>	한·일정상회담시 북의 개혁 주장 비난
“	<p>조국해방전쟁 승리 41돌 근로자들의 모임,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p>	
평방	<p>김일성 종합대학 박정길 학생 등, 조의 파문 관련 당국 비난</p> <p>“우리 대학 학생들은 김○○ 낯짝에, 문민정권의 비열성과 야만성에 침을 뱉고 있고 이런 놈을 민족의 명단에서 영원히 그어 버렸음”</p>	주의 불허 비난
“	<p>예의도덕도 없는 김○○ 집단에 민족의 이름으로 철퇴를 안겨야 한다.</p> <p>“김○○은 정상회담 당사자로서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도덕도 갖추지 못한 저능아이고 추물중의 추물임”</p>	“
7. 27 중방	<p>사로청 중앙위, 남한 당국자들의 반인민적 처사 규탄 성명</p> <p>“김○○ 일당이 민족의 불상사와 관련하여 칼질을 한 야만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을 사일 수 없으며 그 죄악을 참고 용납할 수 없음”</p>	주의 불허 비난
“	<p>조국해방전쟁 승리 4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2. 8 문화회관에서 진행</p>	

일 자	제 목	비 고
7. 28	엮기 위해서 남조선의 천만 노동자들이 한데 뭉쳐 더욱 과	
중방	감히 싸워 나가리라고 믿음”	
“	남한 당국, 주사파 척결 강화	조의 불허 비난
	“김○○ 일당이 주사파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몰아대려고 하는 것은 조의 표시를 하려는 남조선 인민들과 학생들을 탄압하기 위한 구실임”	
“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부 부부장, 남한 당국의 처사 비난 반항	“
	“우리와 한 지맥으로 잇닿아 있는 남조선에서 인간의 초보적인 예의와 도덕도 모르는 쓰레기가 나왔으니 그가 바로 만고의 대역적 김○○ 괴뢰도당임”	
“	학생탄압은 더 큰 불질을 일으킬 것이다.	학생 선동
	“영결식이 진행된 19일에 한양대 안산분교 학생회관 앞에 수령을 추모하는 대자보와 프랭카드를 게시했다고 함. 그런데 그것을 죄로 된다고 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파쇼폭거를 감행했음”	
평방	김형직 사범대학 교수박사 유종성 등, 남한 당국의 탄압행위 비난	조의 불허 비난
	“놈들이 바라는 것은 결코 통일이 아니고 분열이고, 평화가 아니라 동족간의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것임”	
“	인간쓰레기들을 북남 대결에 이용하는 비열한 행위	귀순자 비난
	“강명도는 우리 정무원 총리의 사위가 아니며 천하무식쟁이 무지건달자로서 국가공금을 횡령하고 부정착복한 범죄자로서 우리 기관의 수사대상이었던 자임”	
“	사회과학원 실장 등, 남한 당국의 탄압행위 비난	조의 불허 비난
“	김대통령, 주체사상 신봉 학생들 단호 대처 비난	대통령 비난
	“쏘는 이빨은 뽑아버려야 시원한 것처럼 권력의 꼭지에 틀어앉아 못된 짓만 일삼는 현 통치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좋을 것임”	

일 자	계 목	비 고
7. 28	남한, 서강대 박홍총장 숙소에 사법경찰 배치 “박홍으로 말하면 학생들의 의로운 활동을 아니깝게 여기던 나머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학생들이 북의 조정을 받는다고 떠벌여 각계층 인민들의 규탄과 배격을 받고 있음”	박홍총장 비난
7. 29 중방 평방	평양시 순안구역 안흥협농 임원식 등, 당국의 조의 불허조치 비난 김정일 장군님은 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오늘 조선 인민은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김정일 장군님을 태양으로 어버이로 모시고 그이의 영도따라 전진하고 있음”	조의 불허 비난
”	조국통일상 수상자 김홍곤, 당국의 애도 표시 불허조치 비난 “김○○님은 민족도 모르고 조국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 무지막지한 세상에 없는 천치임”	”
”	평양기계대학 학생들, 당국의 조문 불허 관련 방항	”
”	반통일분자들의 무모한 발악	”
노신평	“남조선 통치배들은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학생과 인민들을 탄압하고 있음. 이것은 남조선 위정자들에게 우리와 화해한 생각도 없고 대화를 통해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도 없음을 말해 줌”	
7. 30 중방	조평통 서기국, 당국의 박보회 사법처리방침 규탄 보도 653호 발표 “남조선 당국자들이 평양을 방문, 수령님의 영전에 조의를 표시한 세계평화연합 공동의장이며 세계일보 사장인 박보회 선생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동조죄 등에 걸여 사법처리하겠다고 하는 한편, 그가 운영하는 세계일보와 주간세계를 비롯한 7종의 정기간행물 발행을 금지시키는 횡포를 부렸음”	박보회방북관련 당국 비난
”	한민전 중앙위, 주사파 학생들을 비롯한 한총련 탄압 관련 성명	정부 타도 선동

일 자	제 목	비 고
7. 30 중방	“우리 한민전은 김○○ 일당이 각계 애국민중에게 선전포고를 한 이상 우리도 그에 대응하여 김○○ 일당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음”	
”	강성산, 벨라루시 국경절에 즈음 내각수상에게 축전	
”	인륜도덕에 대한 전례없는 야만행위 “남조선 통치배들의 박보희 선생에 대한 탄압은 정당화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음”	박보희 방북관련 당국 비난
평방	평양화력발전소 노동자들, 당국의 김일성 사망에 조의 표시 불허초치 관련 비난 “김○○ 일당을 이 50만KW의 고압선으로 얹어매서 사대매국적인 잡탕패를 아예 날려 버려야 함”	조의 불허 비난
”	거짓말쟁이들의 때늦은 후회 “우리가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안기부의 조정에 따른 강명도의 핵폭탄 발언이 거짓인 것처럼 그가 우리 정무원 총리의 사위라는 것도 거짓이라는 것을 더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	귀순자 비난
7. 31 중방	조평동, 남한 당국자들의 반북 대결소동과 관련 성명발표(7. 30) “남조선 당국자들은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청년학생들을 북에 맹종하는 불순세력으로 모독하고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몰아 검거 선봉을 일으키고 있음”	한총련 수사 비난
평방	동족의 피도 흐리지 않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을 이땅에서 영영 제거해야 한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도 김일성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 추모활동을 한 학생들과 인사들을 탄압하고 있는 당국자들에 대한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조의불허 비난
”	남조선 위정자들은 인간이 아니다.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슬픔에 오염하는 우리 민중을 탄압	조의 불허 비난

일 자	제 목	비 고
7. 31 평방	<p>하면서 이북에서 어떤 혼란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김○○ 일당의 작태는 눈뜬 소경의 어리석은 망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p> <p>“ 범민련 해외본부, 남한 당국 처사 비난 글 발표</p> <p>“상대방의 슬픔과 아픔에 잠겨있는 시기를 노려 대결적인 자세로 사태를 긴장시키고 있는 남측 당국의 비도덕적 처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화해 단결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 시대의 요구를 유린한 행위로써 7천만 겨레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p>	주의 불허 비난

신민일보

4. 주변국 주요동향

일자	한 국	주변 4국(미·일·중·러)	국제기구 · 기타국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일 북한 핵문제 담당 고위관리들, 북한의 과거 핵개발 문제 규명해야 한다는데 동의 ○ 정부, 비핵화공동선언 실천을 북-미 수교를 위한 전제조건화할 것을 미국측에 요청 ○ 외무부, 남북정상회담 지원위한 외교대책반을 구성 ○ 남북정상회담 실무대표 접촉, 정상회담기간동안 1~2명의 수행인사가 배석하는 단독정상 회담을 2회이상 갖기로 원칙적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린턴 대통령, 對北 대화의 궁극목표는 북한의 고립탈피 통해 국제사회에서 동반자로 편입시키는 것이라고 밝힘(외국언론과의 회견) ○ 미첼 상원 민주당원내 총무, 對 중국 무역제 재법안을 의회에 제출 ○ 美 과학 국제안전보장 연구소, 북한이 핵개발 계속추진하면 2010년에는 원폭 260개 분량의 플루토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마이니치신문) ○ 무라야마 총리, 새내각은 기존의 외교정책 계승하고 북한 핵문제와 관련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힘(김대통령과의 진화통화) ○ 무라야마 총리, 북한 핵문제는 대화에 의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르초크 독일헌법재판소장, 7대연방대통령에 공식 취임 ○ 아라파트 PLO의장, 망명 27년만에 가자지구로 귀환

일자	한 국	주변 4국(미·일·중·러)	국제기구·기타국
7.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신경계추진회의, 통일에 대비해 남북을 연결하는 4개 간선도로 건설을 추진키로 확정 ○ 남북정상회담 실무대표 접촉, 14개항으로 구성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합의서를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결이 중요하다고 밝힘(취임후 첫 기자회견) ○ 미국은 3단계고위급회담에서 핵문제의 일괄타결과 함께 상호불신 해소위해 직통전화 설치 등 몇가지 신뢰조성장치 제안할 방침이라고 보도(교도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라파트 PLO의장, 예루살렘 분할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힘(BBC방송과의 회견) ○ 아라파트 PLO의장, 첫 자치정부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팔레스타인 독립국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밝힘
7.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訪日 카터 前 美대통령, 북-미 3단계고위급회담에 대해 낙관한다고 밝힘(고노 외상과의 회담) ○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아직 실질적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힘(공산당 내부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 정부, 시아누크 국왕의 아들인 차크라퐁 前부총리와 신승 前내무가 쿠데타를 기도했다고 밝힘
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체육관련 당정회의, 남북간 문화교류 활성화에 대비해 京平 축구대회 부활 등 문화 예술교류 방안 마련키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군축국은 미-러중거리핵전력(INF)조약을 범세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중이라고 보도(디펜스뉴스지) ○ FBI, 국제범죄조직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訪中 쿨 독일총리, 인권문제 앞세우지 않는 對중국 경험을 다짐 ○ 이등위 대만총통, 중국과의 재통일 의지 재천명하고 관계개선을 시

일자	한 국	주변 4국(미·일·중·러)	국제기구 · 기타국
	○ 김대통령,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고향방문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이북 출신 인사들과의 오찬)	대한 공동대처 및 핵무기도난위협 방지위해 러시아와의 합의하에 모스크바에 지부를 설립 ○ 中-佛, 靑島지하철 건설 등 약 30건에 이르는 10억달러 상당의 계약서와 의향서에 서명	사(본토정책 고위당국자회의 개막연설문) ○ PLO의장 보좌관들, 아라파트 의장은 팔레스타인자치행정 책임위해 가자지구에 영구 정착할 것이라고 밝힘 ○ 첸 수팡 대만공산당원, 지자제선거에서 공산당 후보로 나설 것이라고 밝힘 ○ 르완다 애국전선, 수도 키갈리를 함락시킴
7. 5	○ 김대통령, 남북정상회담의 최대목적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간 신뢰구축이라고 밝힘(민주평통 운영위원들과의 다과회)	○ 갈루치 美국무차관보, 북한이 3단계고위급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에 성의보이면 경수로 지원 등 모든 분야에서 관계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日 10인 자문위원회, 새로운 위협에 대응키 위해 자위대병력 및 재래식무기 감축하는 대신 기동성있는 국방력 모색할 것을 촉구 ○ 조선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조사위원회, 4~	○ 高孔廉 대만대륙위원회 부주임위원, 중국과의 통신, 항공 및 선박운항의 직교류 허용키로 했다고 밝힘 ○ 미-러-EU, 보스니아 평화안에 최종합의한 후 내전 당사자들에게 수락여부를 2주내 통보해 줄 것을 요청 ○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PECC), 베트남의 PECC가입을 승인 ○ 대만 대륙위원회, 중국의 진정한 대표권 인정

일자	한 국	주변 4국(미·일·중·러)	국제기구 · 기타국
7.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3단계고위급회담 진전 연계방침을 재확인 ○ 이영덕 총리, 북한 핵 투명성 보장되면 언제라도 남북경협 재개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중 조총련여학생 폭행사건은 총 1백60여건 발생했다고 밝힘 ○ 日정부, 야마시타신타로 외무성연수원장을 駐韓 일본대사에 임명 ○ 타노프 러시아외무차관, 한국이 북한에 전력공급하면 핵문제해결에 도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김석규 駐러 대사와의 면담) ○ 訪 발트3국 클린턴 대통령, 발트3국주둔 러시아군 철수문제는 이 지역거주 러시아인에 대한 처우문제와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 訪日 카터 前 美대통령, 김일성주석은 이산가족방문을 시험적으로 70세이상 고령자부터 수백명 단위로 개시할 것임을 밝혔다고 전함 ○ 클린턴 대통령, 폴란드에 대해 2억달러 이상의 경제 및 군사지원을 약속(바웬사 대통령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받기 위한 소모적 경쟁을 포기한다고 밝힘(정책백서) ○ 라빈 이스라엘총리-아라파트 PLO의장, 팔레스타인 자치확대 문제를 논의한 후 다음단계 자치이행 위한 절차에 합의

일자	한 국	주변 4국(미·일·중·러)	국제기구 · 기타국
7. 7	○ 남북한 통신관계자 실무접촉, 남북정상회담 시 평양-서울간 위성 전화를 북한에서 사용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이룸	<p>의 회담)</p> <p>○ 니코노프 러시아하원 국제안보 및 무기통제 소위원장, 조-소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의 연장과 핵개발억제 연계시킬 수 있다고 밝힘</p> <p>○ 고르바초프 前 소련대통령, 정치재개 의사 밝히고 차기 대선('96. 6)에 출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선언</p> <p>○ 북-미 3단계고위급회담 예비실무접촉, 1차 회담을 7. 8북한대표부, 2차회담은 7. 9미국대표부에서 개최키로 합의</p> <p>○ 日 旧연립여당 8개정파, 개혁추진협의회를 구성</p> <p>○ 러시아 의회, 핵폐기물 투기금지법을 통과시킴</p>	<p>○ 북예멘군, 남예멘수도 아덴을 함락시킴</p> <p>○ 아타르 예멘총리서리, 모든 군사행동 중지와 대대적인 사면실시 및 전쟁피해자 보상을 유엔에 약속</p> <p>○ 캄보디아 의회, 크메르 루즈 불법화 법안을 공식적으로 승인</p> <p>○ 이스라엘은 골란고원에 서의 점진적 철수를 시리아측에 제시했다고 밝힘(하레즈지)</p>

일자	한 국	주변 4국(미·일·중·러)	국제기구 · 기타국
7.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정상회담 경호관계 실무접촉, 김대통령 체류기간동안 남북경호팀이 합동경호기로 합의 ○ 이영덕 총리, 북한이 통일전략진술 포기한다면 북한의 경제난 지원하겠다고 밝힘 ○ 이홍구 부총리, 2차정상회담 개최보다는 1차 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뤄 후속조치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린턴 대통령, 아이티 군사지도자 축출위해 무력침공감행할 수 있음을 재확인 ○ 무라야마 총리, 대화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바라지만 제재논의 재개되면 협력할 것을 다짐 (클린턴 대통령과의 나폴리회담) ○ 쿠나제 駐韓 러시아대사, 북한이 경수로지원 요청해오면 적극 협조할 용의있다고 밝힘(외교협회 오찬강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입법국, 홍콩반환이후 중국사용 가능토록 해군기지 확장과 군병원 설치에 미화 5억 1천 7백 46만달러 지출내용의 政廳案을 승인 ○ 국제적십자위원회, 르완다내전으로 250만명이 유랑하고 있으며 대립사태가 주변국으로 확산될 가능성 있다고 경고 ○ 지프리 남예멘부통령, 아덴 등 주요도시들이 함락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항하고 있다고 밝힘 ○ G7정상회담, 나폴리에서 개막(7. 10까지) ○ 캄반다 르완다총리, 정부군이 사실상 패배했다고 밝힘 ○ G7, 경제선언을 발표 ○ IAEA, 김일성 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체류 2명의 사찰단원이 핵안전조치 활동 계속하고 있다고 밝힘
7.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대통령, 전군에 특별경계령 내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임시국무회의를 긴급 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국방부, 서태평양지역 항공모함에 비상경계령을 발동하는 등 대규모 경계태세에 돌입 (NHK TV) ○ 갈루치 美국무차관보, 북한측의 요청으로 북-미 3단계고위급회담을 연기했다고 밝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반다 르완다총리, 정부군이 사실상 패배했다고 밝힘 ○ G7, 경제선언을 발표 ○ IAEA, 김일성 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체류 2명의 사찰단원이 핵안전조치 활동 계속하고 있다고 밝힘

일자	한 국	주변 4국(미·일·중·러)	국제기구 · 기타국
7.10	○ 안기부 고위당국자, 북한은 金日成 추모대회(7. 17) 직후 로동당중앙위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金正일을 총비서 및 주석으로 선출 가능성 높다고 밝힘	○ 中 黨政軍 非常對策會議, 한반도 평화 및 현상유지가 김정일 체제 인정 및 지원을 對北政策路線의 基調로 결정 ○ 러시아 국방부, 북한군은 김일성사망후 경제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힘 ○ 美 공화당 위원들, 클린턴 대통령의 金日成 북한주석사망에 대한 조의표명 대해 비난 ○ 클린턴 대통령-엘친 러시아대통령 회담, 對北韓 대화 지속하고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힘 ○ 크리스토퍼 국무, 북한이 핵개발 의혹해소 한다면 金日成 주석의 후계자와 만날 용의있다고 밝힘 ○ 엘친 러시아 대통령, G7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對북한 무기공급 중단했음을 통고했다고 밝힘	○ G8, 정치선언 3項에서 북한의 핵 투명성 보장 위해 對美대화 지속 및 남북정상회담 추진할 것을 북한에 촉구 ○ 키우 삼판 크메르루즈 지도자, 캄보디아 북부 프레이 비헤드썩에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밝힘

일자	한 국	주변 4국(미·일·중·러)	국제기구 · 기타국
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홍구 부총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유지위해 김정일 체제가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힘(외무통일위 답변) ○ 정부고위당국자, 정부는 북한의 총비서직과 주석직 겸임하는 최고 실력자가 확정될 경우 정상회담 재추진 방침 세웠다고 밝힘 ○ 교육부, 6차교육과정개편에서 민족공동체 실현을 강조하는 통일교육 중심으로 교과서내용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드 美 국무차관보, 북한측으로부터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언질을 받았다고 밝힘 ○ 무라야마 총리, 자신과 각료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시사통신) ○ 전기침 中외교부장, 북한은 김일성주석의 생전 정책결정에 따라 평화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힘(교도통신) ○ 벨로루시 선관위, 루카센코 후보가 대선 결선투표에서 승리했다고 밝힘 ○ 쿠즈마 우크라이나 전 총리, 대선 결선투표에서 승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토이버 독일바이에른州 총리, 訪獨중인 이봉 국무총리는 김일성 사망발표전에 미리 알았다고 밝힘(슈트라우트 빙어 블라트紙)
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물산,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측으로부터 입가공 완제품이 7. 20경 부산항에 도착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음 ○ 김덕 안기부장, 북한은 김정일체제로의 권력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리 美 국방, 한반도 전쟁억제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강조(상원 세출위 국방소위 증언) ○ 나카마루 국제정치평론가, 북한은 남북정상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라파트 PLO의장, 가자지구에 영주귀환 ○ NATO대변인, 독일헌법재판소의 독일군해외 파병승인 판결에 대해 환영성명을 발표 ○ 독일 헌법재판소, 독일

일자	한 국	주변 4국(미·일·중·러)	국제기구 · 기타국
7.13	<p>계가 별무리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밝힘(정보위 답변)</p> <p>○ 정재석 부총리, 북한의 핵무명성 보장되면 무상원조등 각종 남북경협 적극추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힘(국회행정경제위 답변)</p> <p>○ 정부 당국자, 북한은 11일 비밀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김정일을 총비서로 선출했을 가능성 있다고 밝힘</p> <p>○ 정부고위관계자, 남북 정상회담을 서둘러 제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p> <p>○ 박보희 세계일보사장, 김일성 조문차 訪北</p>	<p>담위한 부총리급 예비 회담을 조속한 시일내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힘</p> <p>○ 무라야마 총리, 일본사회당위원장 명의로 북한로동당에 애도전문을 발송</p> <p>○ 러시아는 수호이27 전투기와 S300 방공미사일 작동훈련 지원할 것을 중국측에 제의했다고 보도(이타르타스통신)</p> <p>○ 美, 러시아가 미국 원조받기전에 발트3국 주둔 러시아군을 8. 31까지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p> <p>○ 中 정부, 체제전복활동과 외국정부의 스파이 활동 규제하기 위한 새 법률을 발표</p> <p>○ 프라우다紙, 북한의 평남 순천과 함남 백산에</p>	<p>군해외파견승인 판결에 대해 환영성명을 발표</p> <p>○ 독일 헌법재판소, 독일군의 해외파병은 합헌이라고 판결</p> <p>○ 네팔, 국왕의 의회해산 및 선거실시 결정에 항의하는 가두시위를 벌임</p> <p>○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자치당국, 자치지역에 국제감시단 상주시키기로 합의</p> <p>○ EU, 역내 국가들이 아시아에 대한 정책과 시각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정책백서)</p>

일자	한 국	주변 4국(미·일·중·러)	국제기구·기타국
7.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김정일체제 안정을 위 한 북한체제 유지를 지 원키로 결정 ○ 정부, 남북관계의 급속 호전 가능성에 대비해 남북협력기금지원제도 정비해 나가기로 함 ○ 서울외교소식통, 북한 은 3단계 고위급회담에 서 5MW급 연료봉을 재장전하고 사용후 재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밝혔다고 전함 ○ 정부, 김일성에 대한 조의목적의 訪北을 일 체 불허키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의 농축우라늄 추출 여부도 검증돼야할 것 이라고 보도 ○ 매커리 美 국무부대변 인, 북한측은 김일성 장례식후 뉴욕실무접촉 재개입장을 전달해왔다 고 밝힘 ○ 日 정부, 김일성에 대 한 자료들의 조문 및 조건발송도 압키로 결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레스 이스라엘외무, 이스라엘은 골란고원에 대한 시리아의 주권을 승인했다고 밝힘
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홍구 부총리, 김정일 체제는 기존 정책 고수 하면서 개혁·개방정책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고 밝힘 ○ 김대통령-클린턴대통 령 전화회담, 김일성사 망에 따른 북한의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정부, 워싱턴주재 르완다대사관 폐쇄와 외교관들의 출국을 명 령 ○ 日, '94국방백서, 북한 의 핵의혹과 미사일 개 발등 이 지역정세에서 가장 큰 불안요인이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라 호른 헝가리사회 당 당수, 신임 총리에 취임

일자	한 국	주변 4국(미·일·중·러)	국제기구 · 기타국
	변화와 관련 의연하고 신중하게 대처키로 함 의 ○ 민자당, 조문단 파견을 주장한 민주당 이부영 의원을 정보위에서 제 외시킬 것을 민주당에 요구 ○ 전남대 총학생회, 김일 성 분향소를 설치	고 지적 ○ 中 이백용 노동부장, 근로자들의 파업은 경 제개혁추진과정에서 나 타나는 불가피한 현상 이라고 밝힘	
7.16	○ 경찰, 김일성 조문차 일북기도한 강희남 범 민련남측본부의장 등 4명을 연행 ○ 국방부, 북한이 휴전선 대남 비방방송을 재개 했다고 밝힘	○ WP紙, 북한의 김일성 장례식 연기결정은 내 부의 정치적 혼란을 시 사하는 첫 징조일지 모 른다고 보도	○ 마로니 이태리국무, 부 패혐의자에 대한 치안 판사의 체포권한 재회 복하지 않으면 사임하 겠다고 밝힘
7.17		○ 美 정부관리들은 김일 성 장례식연기와 관련, 김정일 권력승계에 이 상징후없는 것으로 보 고 있다고 보도(NYT 紙)	
7.18	○ 최중현 전경련회장, 재 계는 남북간 정치적 여 건이 성숙되면 1천만톤 규모의 쌀을 북한에 무 상지원하는 방안 추진	○ 美 국무부, 對 대만F16 전투기의 부품생산기술 이전을 승인했다고 보 도(연합보) ○ 크리스토퍼 국무, 미국	○ 이스라엘 정부, 가자지 구에서 17일 최악의 유혈사태 발생함에 따 라 이 지역을 무기한 폐쇄하고 주민들의 이

일자	한 국	주변 4국(미·일·중·러)	국제기구 · 기타국
	<p>하고 있다고 밝힘</p> <p>○ 김대통령, UN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이저울 것을 촉구(아얄라 UN인권 고등판무관과의 접견)</p> <p>○ 이영덕 총리, 김일성은 민족분단의 고착과 전쟁 등 불행한 사건들의 책임자라는 정부공식 입장을 표명(정례국무회의)</p> <p>○ 박홍 서강대총장, 주사파의 중국적 배후에는 김정일이 있으며 UR비준 반대와 주한미군기지 반납위한 서명운동을 지시했다고 밝힘</p> <p>○ 김대통령, 폭력-좌경학생들은 국가기강차원에서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힘(14개 大學 총장들과의 오찬)</p>	<p>은 김일성 주석 장례식 후 곧 美-北 3단계 고위급회담 재개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NBC TV와의 회견)</p> <p>○ 美 국방부, 지난 3. 31 현재 현역병력수는 1백 60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힘</p> <p>○ 울시 CIA국장, CIA는 외국기업들의 뇌물공여 행위에 관한 정보수집하고 있다고 시인</p> <p>○ 무라야마 총리, 중-참의원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소신표명 연설을 함</p> <p>○ 라디오 프레스, 로동신문은 7. 14자에서 김일성주석이 사망 2일전 지역경제 지도자들과 환담을 나누었음을 보도했다고 전함</p> <p>○ 중국은 김일성 사후 한반도 안정위해 김정일 체제 지원키로 방침정했다고 보도(교도통신)</p>	<p>스라엘 영내 왕래를 금지시킴</p> <p>○ 르완다 애국전선, 정부군과 내전에서 승리를 선언</p> <p>○ 이스라엘-요르단, 중동평화 정착에 기여할 역사적 평화회담에 착수</p> <p>○ 駐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교민회관, 강력한 폭발사건 발생으로 최소한 28명 사망</p>

일자	한 국	주변 4국(미·일·중·러)	국제기구 · 기타국
7.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반기 국정추진상황보고회, 종합적 통일 정책 수립추진기로 결정 ○ 여·야, 김일성사망에 대한 한총련의 조의표명에 대해 비난성명을 발표 ○ 김대통령, 국가질서 수호차원에서 주사파를 엄단하겠다고 밝힘(민자당 일부의원들과의 만찬) ○ 서울경찰청, 한양대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김일성사진과 대남방송문 및 청취안내문이 발견됐다고 밝힘 ○ 貿協 獨 뒤셀도르프 지부, 동아시아 협회(OVA)는 뒤셀도르프의 북한 경제정보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9월 북한에 협력사절단 파견할 것이라고 밝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운 美 상무, L·A항이 아시아지역과의 대외무역지대로 지정돼 자유항으로 활용된다고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회 의장선거, 독일의 사회주의자인 클라우스 헨쉬 의원이 당선 ○ 르완다 애국전선, 거국 내각을 발족시킴
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訪韓 서덜랜드 GATT 사무총장, GATT는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라야마 총리, 자위대가 합헌이라는 공식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T 연장위한 실무자 회의, NPT개정과 관련

일자	한 국	주변 4국(미·일·중·러)	국제기구 · 기타국
7.21	<p>북간의 거래를 민족내부 거래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힘</p> <p>○ 정부, 러시아의 한국전쟁관련 문서의 요지와 일부 문서를 공개</p> <p>○ 정부, '94 남북인간띠잇기대회 개최 자제해 줄 것을 대외본부에 요청</p> <p>○ 김삼훈 핵대사-訪韓 갈루치 국무차관보, 북한 핵문제 해결위해서는 3가지 이행사항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함</p> <p>○ 대검공안부, 한총련·전대협 대학생들이 92년부터 현재까지 38차례의 FAX 및 전화통신해 왔다고 밝힘</p> <p>○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일동, 최근 박홍 총장의 발언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p>	<p>입장을 표명</p> <p>○ 중국은 2000년까지 내·외화 70억달러를 들여 22개 광섬유케이블간선을 추가건설할 것이라고 보도(차이나 데일리紙)</p> <p>○ 訪韓 갈루치 국무차관보, 북한은 최근 비공식 실무접촉에서 미국이 경수로 건설 지원약속해도 완공될 때까지는 원자로 건설중단 불가 입장 통보해 왔다고 밝힘</p> <p>○ 북·미 실무접촉, 3단계 고위급회담을 8. 5제네바에서 재개하기로 합의</p> <p>○ 訪韓 갈루치 국무차관보, 對북한 경수로 지원방안과 관련 한·미·일등 국제적 컨소시엄 형식으로 하되 기술은 한국형을 우선적으로 검토기로 함</p> <p>○ 무라야마총리, 냉전 구조가 붕괴된 오늘날은 비무장 중립론의 정책적 역할이 끝났다고 밝</p>	<p>강대국간 이견을 노출</p> <p>○ 獨 경찰, 美·獨·加·伊·러 등 5개국 정부는 핵물질 밀수위한 조직범죄에 대처키위해 협조체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힘</p> <p>○ 英 노동당, 토니블레어를 새 당수로 선출</p>

일자	한 국	주변 4국(미·일·중·러)	국제기구 · 기타국
7.22	○ 대검공안부, 한총련과 FAX교신해은 북한 조선학생위원회는 사노청과의 연계조직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p>힘</p> <p>○ 中 단동시, 김일성사후 중단됐던 북한과의 인적교류 재개했다고 밝힘</p> <p>○ 클린턴 대통령, 르완다 난민위기에 대처키 위해 즉각적이고도 대량의 원조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p> <p>○ 무라야마 총리, 조기경보기 도입과 1천해리 해상교통로 방위도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힘</p> <p>○ 엘친 러시아대통령, 제2단계 민영화 계획에 관한 포고령에 서명</p>	○ WTO 준비위원회, 스위스 제네바를 WTO 본부 소재지로 결정
7.23	○ 인천해운항만청, 김일성 사망이후 처음으로 입가공제품을 실은 화물선이 인천항에 입항했다고 밝힘	○ 訪韓 무라야마총리, 사회당의 당명 변경하는 방안 검토할 것이며 차기선거에서 자민당과의 선거 협력체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 브리크 EU집행위 외무담당위원장, 베트남과 인권조항에 합의하면 금년내 경험 체결할 것이라고 밝힘
	○ 대검공안부, 訪北 박보희 세계일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을 밝힘		○ 파키스탄 정부, 이슬람종파간 분류로 12명 사망사건 발생하자 이지역에 군대를 배치
	○ 한-일 외무회담, 북한		○ ASEAN 외무회담, 남

일자	한 국	주변 4국(미·일·중·러)	국제기구 · 기타국
	<p>력개발 동결 전제로 경수로 건설 지원원칙에는 동의했으나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노출</p> <p>○ 한-일 정상회담, 북한이 하루빨리 개혁·개방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합의(공동기자회견)</p> <p>○ 訪北 박보회 세계일보 사장, 김정일은 조속한 시일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힘</p>		<p>북정상회담조기 개최를 촉구</p> <p>○ 伊 치안판사들, 구금제한 조치의 철회에 따라 부패척결 움직임을 재개</p> <p>○ 북예멘군, 남예멘의 무칼라에서 대규모 진주에 항의하는 시위군중들에게 발포</p> <p>○ 터키 경찰, 旧 蘇에서 밀반입된 핵폭탄 제조용 농축우라늄 10kg을 압수</p> <p>○ 캄 베트남 외무, 중국-베트남은 남소군도 영유권 분쟁을 협상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p> <p>○ 수단, 최근 반군파벌들간의 내분으로 1천5백여명 사망</p> <p>○ UN 구조대원들, 자이로로 피난온 르완다인중 최소한 7천여명이 콜레라로 사망했다고 밝힘</p>

일자	한 국	주변 4국(미·일·중·러)	국제기구 · 기타국
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당국자, 김정일이 정상회담 조기개최를 희망한다는 박보희 세계일보사장의 발언에 신뢰와 의미두지 않고 있다고 밝힘 ○ 한승주 외무-코지레프 러시아 외무회담, 북한 핵문제 해결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 한승주외무-전기침 중국외교부장회담, 북한 핵문제의 조기해결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함 		
7.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대, 한총련과 서총련 사무실을 폐쇄 ○ 한-독 외무정책 기획협의회, 양국간 외교정보의 상호교환등 협력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음 ○ 한승주 외무, ASEAN 지역 포럼(ARF)과의 별도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ARF연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정부, 對 아이티침공 허용해 줄 것을 UN에 요청 ○ 日 정부는 북한군의 망명과 난민유입방지위해 방위경비계획 수정에 착수했다고 보도(마이니치신문) ○ 고노 외상, ASEAN 지역 포럼에 비핵 3원칙을 재천명 ○ 하타-호소카와-가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들이스트 타임스지, 쿠웨이트가 사우디아와의 합병 추진을 위해 6개월전부터 밀실협상 벌여왔다고 보도 ○ 라빈 이스라엘 총리-후세인 요르단국왕 회담(백악관), 46년간에 걸친 적대관계 청산하는 공동선언을 발표 ○ 「국경없는 의사들」(MSF), 자이르영내 르

일자	한 국	주변 4국(미·일·중·러)	국제기구 · 기타국
7.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박보희 세계일보 사장의 주민등록을 7.18자로 직권말소 했다는 공문을 세계일보에 보냄 ○ 김두희 법무, 주사파등 좌경세력을 철저히 색출해 중형선고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키로 함(국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조와 개혁을 기본정책으로 하는 통합야당을 9월 중 결성키로 합의 ○ 북경고위정보 소식통,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확대해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 시달했다고 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다 난민수용소에서 식량부족과 콜레라등으로 하루 3천여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밝힘 ○ 제1차 ASEAN 지역포럼(ARF), 분쟁방지 및 상호신뢰구축 및 안보협력 강화 등을 위해 ARF를 매년 정례 개최키로 합의 ○ 佛 프라제마社·FBFC社, 대전에 2백톤 규모의 핵발전용 우라늄 처리공장 건설에 협력키로 한국원전 연료 주식회사와 계약했다고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좌익운동권 대학생들이 '91년이후 57개 대학에서 1백 56차례에 걸쳐 북한과 불법통신 교류해 왔다고 발표 ○ 한승주 외무-탈보트 국무부 부장관 회담, 북한의 핵개발 동결 및 과거 핵 규명위해 공조체제 확고히 다져나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닉스 美장군, 르완다 피난민 구호 위한 물자공수 중단하고 르완다 국경내에 미군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 日 각의, 각료의 신사참배가 위헌이 아님을 정부 공식견해로 결정 ○ 日 자위력 보유를 법제화하기 위해 헌법9조 문제 논의할 것을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런던 경찰, 런던 중심가에 이스라엘 대사관 부근에서 강력한 폭탄차량공격이 발생했다고 밝힘 ○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사라예보로 통하는 모든 도로의 민간인 통행 전면금지 시킬 것임을 UN에 통보 ○ 이스라엘-요르단-PLO,

일자	한 국	주변 4국(미·일·중·러)	국제기구 · 기타국
	<p>기로 합의</p> <p>○ 한승주 외무, 對 북한 지원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역설(ASEAN 확대외무회담 기조연설)</p>	<p>(새로운 국가상을 생각하는 위원회)</p> <p>○ 요미우리신문, 카터 전 대통령이 조만간 再 訪 北하여 김정일과 회담 할 것이라고 보도</p> <p>○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 등소평은 자신의 사후 발생할 권력투쟁을 우려해 한달전 공산당과 인민해방군내의 파벌주의에 대해 경고했다고 보도</p> <p>○ 러시아 정부, 토지자유 거래 허용 법안 초안을 마련(인테르팍스통신)</p> <p>○ 카자흐 공화국, 핵무기 저장소에 대한 IAEA 정기사찰 허용키로 합의</p> <p>○ 이타르 타스통신, 러시아는 에스토니아 주둔군을 8월말까지 철수키로하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보도</p>	<p>부족한 수자원 관리에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p>
7.27	<p>○ 한국-ASEAN 6개국, 서울에 한-ASEAN 프 로모션센터 설립을 추</p>	<p>○ 허바드 국무부 부차관 보, 북한의 과거 핵문제에 대한 완전 규명</p>	<p>○ 대만대륙위원회, 어선들의 노동력 보완위해 1만명의 중국선원 고용</p>

일자	한 국	주변 4국(미·일·중·러)	국제기구 · 기타국
7.28	<p>진해 나가기로 합의</p> <p>○ 귀순 강명도씨(강성산 총리 사위), 북한은 현재 5개의 핵탄두 보유하고 있으며 5개 추가 개발후 국제적으로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힘</p> <p>○ 안기부, 김동훈 북한금강산무역회사 과장이 제3국통해 귀순해 왔다고 발표</p> <p>○ 박보희 前 세계일보사장, 駐美 한국대사관에 방북결과보고서를 제출</p>	<p>없으면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합의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힘</p> <p>○ 美공화당 중진들, 북한 핵문제에 대해 강경대책할 것을 정부에 촉구</p> <p>○ 中 대외경제무역사업합작부, 금년 상반기중 대외투자 승인전수가 전년동기대비 25.3% 감소했다고 밝힘</p> <p>○ 미·IAEA, 귀순 강명도씨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의문을 제기</p> <p>○ 美 하원 세입위원회,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안을 부결시킴</p> <p>○ 日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자위대합헌 등 9.3 임시전당대회에 제출할 활동방침안을 확정</p> <p>○ 데무린 러시아외무부 부대변인, 북한의 핵탄두 5개보유설에 대한 논평에서 북한은 핵탄</p>	<p>키로 결정(연합보)</p> <p>○ IAEA, 귀순 강명도씨의 회견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신고한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한 것이라며 충격을 표시</p> <p>○ 시리아, 이스라엘-요르단 평화선언에 대해 비난</p> <p>○ 니얏고마 부룬디 내무, 부룬디에서도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인종학살로 2천여명이 사망했다고 밝힘</p> <p>○ 라빈 이스라엘 총리,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미국대표가 참석한 직접비밀회담 개최를 계의</p>

일자	한 국	주변 4국(미·일·중·러)	국제기구 · 기타국
7.29		<p>두 5개보유설에 대한 논평에서 북한은 핵탄두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p> <p>○ 린튼 컬럼비아대코리아연구소 교수, 북한핵폭탄 5개보유설은 믿을 수 없으며 김정일은 향후 10년간 권력장악할 것이라고 전망</p> <p>○ 강택민 국가주석은鄧小平사망이후 군부내 기반 강화위해 6월이후 약 150명의 장성진급에 서명했다고 보도(연합보)</p> <p>○ 북한은 현재 주석과 총비서 선출과 관련 김정일-김영주간 권력투쟁 빚고 있다고 전함(북경소식통)</p> <p>○ 시베리아 체르노민지방 관리들, 북한은 시베리아 벌목사업에서 곤경에 처하게 됐다고 밝힘</p>	<p>○ IAEA, 북한 핵탄두 5개 보유설을 일축하는 성명을 발표</p> <p>○ 대만 국민대회, 총통직 선제안을 통과시킴</p> <p>○ 獨연방 경찰은 유럽암시장에 12개의 핵탄두 제조가능한 양의 러시아계 플루토늄 239가 매매용으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WT紙)</p> <p>○ 오스트레일리아언紙, 북한은 ASEAN지역안보포럼 참여 도와줄 것을 호주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p>
7.30	○ 서울 외교소식통, 북한은 5MW원자로에서 꺼내 수조에 보관중인 폐	○ 美 정부, 2백명의 병력을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 파견	○ 서방 5개국 외무들, 보스니아계의 新 국제평화안 거부에 따라 新

일자	한 국	주변 4국(미·일·중·러)	국제기구 · 기타국
7.31	<p>연료봉 점검위한 IAEA 사찰단의 접근을 불허하고 있다고 전함</p> <p>○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고상문씨의 송환 위해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모든 채널통해 노력하겠다고 밝힘</p>	<p>○ 중국 해협회·대만 해기금 제5차 실무접촉, 분단후 처음으로 양국 고위급회담을 8월 대북에서 개최기로 합의</p>	<p>유고연방에 대한 압력 강화하기로 합의</p> <p>○ 국제사면위원회 아태대표단, 북한 양심수 58명의 명단과 수용소를 공개</p> <p>○ 訪 르완다 유럽의회 대표단, 르완다 신정부에 대해 종족학살 책임자 처벌위한 국제재판소 구성하겠다고 제의</p> <p>○ 밀로세비치 세르비아대통령,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에 대해 신국제평화안 수락할 것을 촉구</p> <p>○ ASEAN등 21개국, 미의회가 심의중인 UR실시법안 비판하는 시한을 공동작성해 미국측에 전달(니혼게이자이신문)</p>

資 料

1.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7. 2)
2. 우리측의 『조문단』 파견을 환영하는 『조평통』
담화문(7. 14)
3. 『김일성 추도대회』에 행한 김영남 추도사
4. 정부의 『조문불허』조치에 대한 『한민전』규탄성명(7. 20)
5. 미·북 3단계 회담관련 외교부대변인 기자회견문(7. 25)
6. 북한 정치범관련 국제사면위 발표문(7. 30)
7. 김일성 사망관련 장의위원(273명) 인적사항

1.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7. 2)

남과 북은 1994년 6월 28일 부총리급 예비접촉에서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에 따라 1994년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표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실무절차 문제에 합의하였다.

1. 대표단 구성과 규모

- ① 남측 대표단 수행원은 100명으로 한다.
- ② 남측 대표단 취재기자는 80명으로 한다.

2. 회담형식

- ① 회담은 쌍방 정상사이에 2회의 단독면담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더 할 수 있다.
- ② 회담에는 쌍방에서 각기 보좌요원 2~3명과 기록요원 1명이 배석한다.

3. 체류일정

- ① 남측 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은 2박 3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다.
- ② 북측은 남측 대표단의 구체적인 체류일정을 방문 15일전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남측에 통지하며, 쌍방이 협의하여 이를 확정한다.

4. 실무자접촉 및 선발대 파견

- ① 쌍방은 경호, 의전, 통신, 보도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기 17명이 참가하는 실무자접촉을 7월 13일부터

7월 16일(3박 4일)까지 평양에서 가진다.

이에 앞서 경호문제와 관련하여 쌍방 각기 3명이 참가하는 실무자접촉을 7월 8일 오전 10시 관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통신문제와 관련하여 쌍방 각기 3명이 참가하는 실무자접촉을 7월 7일 오전 10시 관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가진다.

- ② 남측은 25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대표단 방문 3일전에 북측 지역에 파견한다.

선발대는 정상방문이 끝날 때까지 체류한다.

- ③ 남측의 실무자접촉 및 선발대의 체류일정은 북측 지역 도착 직후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5. 왕래절차

- ① 남측은 정상일행의 명단을 방문 7일전에 북측에 넘겨준다. 실무자접촉 및 선발대의 경우에는 명단을 방문 4일전에 북측에 넘겨준다.

명단에는 성명, 성별, 직위를 밝히며 사진을 첨부한다. 명단을 넘겨준 후 변동되는 사항은 먼저 직통전화로 통지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문서로 전달한다.

- ② 남측 대표단의 통과지점은 관문점으로 하며 대표단은 북측 지역에서 북측의 자동차를 이용한다.

6. 편의보장

-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및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 ② 남측 대표단은 북측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북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 ③ 북측은 남측 인원들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중 1일 2회 행낭 운반을 보장한다.

7. 신변안전보장

-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총리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방문 3일전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남측에 넘겨준다.
- ② 북측은 남측 인원들의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8. 수행원, 기자의 표지 및 증명서

- ① 쌍방은 자기측 수행원들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② 기자는 기자완장을 착용한다.
- ③ 남측 수행원과 기자는 자기측 총리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휴대한다.

9. 회담장 표지 및 시설

- ①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에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않는다.
- ② 회담장에는 회담에 필요한 시설외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는다.
- ③ 북측은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에서 남측이 연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제공한다.

10. 회담기록

쌍방은 회담기록을 속기, 녹음, 녹화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11. 회담보도

- ① 회담보도는 각기 편리한 대로 하되, 필요에 따라 공동보도문을 작성 발표할 수 있다.
- ② 북측은 남측에 실황중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설비와 인원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텔레비전 영상송출을 위한 전송로 및 위성중계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12. 취재활동

- ① 북측은 남측 기자들의 체류기간중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 ② 쌍방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다.

13. 기타 실무절차 문제

- ① 남측 대표단은 북측 지역 체류기간 이미 가설된 서울과 평양사이의 직통전화선을 이용한다.
- ② 그밖에 제기되는 실무절차 문제는 남북고위급회담 관례에 따른다.

14.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4년 7월 2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

남측 대표 윤 여 준

북남최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

북측 대표 백 남 준

2. 우리측의 『조문단』 파견을 환영하는 『조평통』 담화문 (7.14)

지금 북남 해외가 따로 없이 온 겨레가 조객이 되어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의 서거에 진심으로 되는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께서는 한평생을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번영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바쳐오시었으며 나라와 민족, 시대와 역사앞에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쌓아 올리시었으며 나라와 민족, 시대와 역사앞에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쌓아 올리시었다. 김일성 주석께서는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필생의 위업으로 내세우시고 80 고령이 넘으시도록 그 실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노고를 바쳐오시었으며 몸소 북남 최고위급 회담을 마련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조국통일의 밝은 서광을 안겨주시려고 애쓰시다가 애석하게도 우리곁을 떠나시었다. 우리는 남조선의 각당, 각파 인사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통일의 날을 보시지 못하고 가신 김일성 주석에 대한 비통한 심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조문을 보내오며 평양에 조문단을 파견하려 하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알린다. 1.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의 영전에 조의를 표시하며 추도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평양에 오는 남조선의 조문단이나 조문객들을 따뜻한 동포애로 정중히 맞이할 것이다. 2. 남조선에서 오는 조문단이나 조문객들은 판문점을 통과하여 올수도 있고 제3국을 경유하여 올수도 있을 것이다. 3. 우리는 남조선의 조문단이나 조문객들이 평양에 체류하는 기간 그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며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3. 『김일성 추도대회』에 행한 김영남 추도사(7. 20)

동지들! 평양시민 여러분! 온나라 전체 인민들과 7천만 조선동포들 우리는 지금 우리 당과 조국의 역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크나큰 민족적 불행을 안고 가슴을 치며 이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급병으로 서거하시었다는 청천병력같은 비보에 접하여 온나라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휩싸이고 진보적 인류가 커다란 비애감에 잠겨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들은 중앙추도대회를 열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시며 대원수이신 김일성 동지와 비통한 심정으로 영결하게 됩니다.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위임에 의하여 다함없는 경모와 애도의 심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추모하는 추도사를 하려고 합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수령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시어 영영 돌아오시지 못할 그 길로 가시게 되는 이 가슴아픈 시각에 우리 모두는 한없이 비통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옷깃을 여미고 다시한번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오로지 인민대중을 자주위업, 사회주의 위업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시었으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의 융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나라의 통일과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불면불휴의 노고를 바치시며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던 우리의 경애하는 아버지 수령님께서 갑자기 서거하신 것은 너무나도 애석하고 절통한 일입니다. 경애하

는 수령님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이 위대하고 영광넘치었으며 수령님의 품속에 안기어 우리 인민은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자라나 이 세상 어느나라 인민도 누릴 수 없는 최대의 행복을 누리왔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 인민의 운명이시었고 우리 모두의 친어버이셨으며 그이의 품은 우리들의 행복의 요람이었습니다.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버이 수령님께서 계시었고 어버이 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리 인민이 있었습니다.

이 땔래야 땔수 없는 혼연일체에서 수령과 인민이 뜻밖에 헤어진다는 기막힌 사실을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위대한 심장은 고통을 멈추었으며 우리인민은 생명의 어버이를 잃었습니다. 것처럼 자애롭고 거룩하신 어버이 수령님의 환하신 영상을 두번다시 뵙지 못하고 된 우리인민의 슬픔은 하늘에 닿고 산천초목도 비분에 떨며 빛을 잃었습니다. 80고령의 몸으로 얼마전까지도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고 불면불휴의 대외활동을 벌이시던 어버이 수령님께서 우리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며 언제한번 편히 쉬지 못하시고 너무도 뜻밖에 우리의 곁을 떠나시었으니 우리인민의 심정은 더욱 통절하고 애석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생전에 단 하루라도 편히 쉬시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다지도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애도의 전기간 온나라 방방곡곡은 울음마다 눈물바다를 이루었으며 우리의 노동자 농민 주민 지식인들과 청년학생들 그리고 남녀노소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의 영구와 동상을 찾아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러 통곡하며 가장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깊은 경모의 마음으로 추모

하였습니다. 그것은 실로 자기 수령을 가장 열렬히 경애하고 신뢰하는 인민만이, 수령과 하나의 혈연으로 이어진 인민만이 운명의 기둥을 잃고 터뜨리는 절통한 감정의 분출이었습니다.

우리 조국의 역사에 새겨진 지난 10여일간은 우리 수령님의 세계사적 위대성을 더욱 절절히 느끼게한 숭엄하고 비장한 나날이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서거하시었다는 비보에 접하여 동서방을 막론하고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국가의 지도자들과 저명한 인사들, 진보적 인민들이 우리 세기의 가장 곁출한 위인을 잃은데 대하여 애통한 심정을 금치 못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였으며 진정에 넘친 경모심을 안고 우리 인민과 슬픔을 같이 하였습니다. 저는 어찌할 수 없는 비통한 심정을 안고 경애하는 아버지 수령님과 영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 시각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모시었던 크나큰 영광과 민족적 행운에 대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돌이켜보며 더욱 북받쳐 오르는 흠모와 애도의 심정을 누를 수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은 20세기와 더불어 흘러간 우리 민족과 인류의 역사에 가장 빛나는 장을 기록한 영광스러운 투쟁의 한생이었습니다. 위인중의 위인의 가장 곁출한 한생이었습니다. 우리 인민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사상이론의 거장이시었고 영도의 천재이시었으며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스승이었고 가장 숭고한 인덕의 체현자이셨습니다.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어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80 고령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유래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고 인류의 자주위업 수행에 특출한 공헌을 하심으로써 우리민족 역사와 인류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시었습니다.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와 비상한 탐구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인류역사 발전의 새로운 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시었으며 거창한 혁명실천속에서 주체사상을 우리 시대 혁명의 참된 지도사상으로 발전시키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국광복과 민족번영의 대업을 이룩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었습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 동지께서는 민족수난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조국광복의 큰 뜻을 품으시고 조선인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시면서 14살 어린신 나이에 압록강을 건너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장장 20성상에 걸치는 오랜 기간 피바다, 불바다를 헤치시고 풍찬노숙하시면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조직 영도하심으로써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시고 민족재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으며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귀중한 재부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었스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새사회 건설의 첫시기 가장 현명한 주체의 건당, 건국, 건군 노선을 제시하시어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노동당을 창건하시고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일떠 세우셨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통을 이은 우리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주주의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시었습니다.

조국과 인민앞에 커다란 위협이 닥쳐왔던 조국해방전쟁의 엄혹한 시기에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 동지께서는 전쟁의 중호를 한몸에 지니시고 군대와 인민을 전쟁승리로 이끄시어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빛나게 수 호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공적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두번다시 식민지 노예의 참화로부터 구원되었으며 수령님의 존함은 두 제국주의를 물리친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으로 반제투쟁의 승리의 상징으로 인민들의 마음속에 간직되게 되었습니다.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김일성 동지께서는 우리식의 독창적인 혁명노선을 제시하시고 역사의 난관과 시련속에서 우리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사회주의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진하여 세기적인 낙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우리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나라로 전변시키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의 혁명적 당건설이론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어 우리당을 세련된 영도력과 당 전투력을 지닌 혁명적 당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위력하고 전도양양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혁명에 바치시어 20성상에 걸치는 항일혁명투쟁과 50성상에 이르는 새사회건설 투쟁을 승리로 이끄신 그 크나큰 노고와 은덕으로 하여 우리인민은 자기운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역사적인 전변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고 있는 행복과 영광은 그 어느 것이나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령님처럼 당대에 그토록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고 그토록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영도자는 지난 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는 조국통일의 구성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통일된 조국에서 다같이 행복을 누리려는 겨레의 염원을 풀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늘 걸린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노고와 온갖 심혈을 다 바쳐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의 지향과 의견을 반영하여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 방침과 방도들을 연이어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활동하시였습니다. 7천만 전체 조선민족으로부터 절대적인 존경을 받아오시고 세계 정치무대에서 높은 권위를 지니시었던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활동과 숭고한 노고가 있었음으로 하여 오늘의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조국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해외교포운동에도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리시어 모든 해외동포들이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수호하며 조국통일과 사회주의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인류의 영재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탁월한 영도자이신 김일성 동지께서는 새 시대 자주시대의 요구에 맞게 온 세계를 자주화할 데 대한 노선을 내놓으시고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밑에 대외활동을 정력적으로 벌이시어 세계의 지도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 세우시었으며 사회주의 운동과 불력불가담 운동을 강화 발전시키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다그쳐 나가는 데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께서는 우리 혁명과 인민의 자주위업 수행에 이바지한 특출한 업적으로 하여 세계 여러나라 지도자들과 정치인들, 진보적 인민들로 부터 세계정치의 원로로 높은 존경을 받아 오시었으며 자주시대를 향도하는 영도자로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70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혁명투쟁노정은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적 복무로 일관된 영광스러운 노정이었습니다. 한없이 인자하고 너그러운 품성을 지니고 계신 아버지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전 기간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들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었습니다. 아버지 수령님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리지 않고 힘없이 이어오신 전국 방방곡곡 수천 수만리 현지지도의 길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오신 위대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은 역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위대한 혁명가이시고 혁명의 성인이셨습니다. 우리의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이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승승장구하고 우리 혁명과 조국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는 이 역사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것처럼 바라시던 조국통일과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보지 못하시고 애석하게 서거하신 것은 너무도 절통하고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비판하지 않으면 필승의 신심에 넘쳐 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이 승리의 한길을 따라 계속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가장 위력한 무기와 반석같은 토대를 마련하여 주시었습니다.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확고히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영도의 후계문제를 빛나게 해결해 주신 아버지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의 미래를 위하여 이룩하신 가장 특출한 공적입니다.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이신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계십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자신의 필생의 대업으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문무충효를 겸비하신 김정일 동지는 아버지 수령님의 사상과 영도, 품모, 고매한 덕망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또 한분의 위대한 지도자이십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오래전부터 전당 전군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를 마련하시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그 어떤 혼란도 대적도 두렵지 않으며 언제나 백전백승 할 것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생전에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의 후계자, 혁명의 영도자를 잘 모시고 그이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었습니다. 하늘처럼 믿고 살던 아버지 수령님과 영결하면서 우리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다지는 맹세는 수령님의 생전의 뜻대

로 김정일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그 하나의 맹세 뿐입니다.

우리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는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영도를 높이 받들어 나가는 것이 곧 아버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나게 완성해 나가는 길입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자신들의 충성과 효성이 모자라서 아버지 수령님을 더 오래 모시지 못한 오늘의 자책감에서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고 우리의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을 철저히 옹호 보위하며 김정일동지의 영도를 높이 받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당, 전국, 전군에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의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의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김정일동지의 영도따라 승리의 신심 드높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빛나는 완성이로 즐기치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모든 혁명업적을 눈동자와 같이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어 나가는 것은 떠나가신 수령님 앞에서 우리의 혁명전사들이 숭고한 도리이며 혁명적 본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자손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우리 당과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틀어쥐고 나가며 수령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혁명의 만년초석인 백두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당과 공화국 정권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우리 당과 국가를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과 국가로 빛내이며 모든 활동에서 주체적 입장을 계속 견지하여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 존엄과 자립, 자위의 위력을 변함 없이 힘있게 떨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수령님께서 크나큰 노고를 다하여 마련해주신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고수하며 김정일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 전민 전군의 혼연 일체를 더욱 반석같이 다짐으로써 더 불패의 힘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수호하고 빛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노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가며 특히 수령님께서 생전에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강령적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계속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이 땅위에 공산주의 낙원을 세우시려던 아버지 수령님의 염원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국통일을 최상의 과제로 내세우시고 그리도 마음쓰시던 아버지 수령님께서서는 통일의 그날을 끝끝내 보지 못하시고 절통하게도 돌아가시었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민족적 양심을 가진 모든 조선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의 기치 아래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여 민족의 아버지께서 것처럼 바라시던 소망을 기어이 풀어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크나큰 노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에 기초하여 세계 여러나라 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하므로써 자주

화된 새세계 건설에서 지닌 중대한 시대적 사명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김정일 도지의 영도 따라 더욱 분발하여 투쟁하므로서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이어 공화국의 끊임없는 번영과 조국의 통일,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이룩할 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세계 인민들의 기대에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아버지 수령님의 거룩하신 존함과 인자하신 영상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어 있을 것이고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은 역사와 더불어 천년만년 길이 빛날 것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영도는 우리 당에 의하여 더욱 꽃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는 우리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할 것이며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빛을 뿌릴 것입니다.

4. 정부의 『조문 불허』 조치에 대한 『한민전』 규탄 성명 (7. 20)

세계 정치사는 비열한 시정배들이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영혼까지 모독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금 한국에서 이러한 정상배들의 망동이 재현되고 있다. 이미 북에서 유고가 발생하자부터 비상경비를 발동하여 상가집에 불질해오던 김○○일당은 그것이 내외의 빈축을 사게 되자 이번에는 국무회의라는 것을 벌여 놓고 북을 심히 모독하고 자극하는 악담을 늘어 놓고 있다. 국무총리란 자는 조의 파문을 막기위한 방편으로서 지나간 역사를 심히 왜곡하면서 그것을 이른바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까지 공언하였다. 따라서 이 폭언은 이북에 대한 단순한 비방중상이 아니라 청와대의 새로운 대결정책을 선언한 공식적인 전쟁폭언이다. 우리는 이러한 도발적 행위가 남북 관계를 파국적 사태로 몰아갈 새로운 위험성을 배태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엄중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김○○ 정상배 집단이 거래와 전세계가 머리숙여 김일성 주석의 서거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는 때에 감히 미국이 불질한 6.25 전쟁을 놓고 이북을 시비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망발이며 망동이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왜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잠겨 심심한 애도와 조의를 표시하고 있는 이북동포들과 전세계 인류 양심에 대한 용납못할 모독이고 우롱이다. 동시에 이것은 남북 화해와 조-미 관계의 개선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내외여론에 대한 전면 도전이다. 비분

에 쌓여 있는 이북형제들은 청와대의 비열한 처사에 참을성을 가지고
 대하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때에 비상경계령을 발동하고 조의
 표시까지 가로막으며 북을 자극하다 못해 북을 정면으로 걸고든 것
 은 남북관계를 대결의 원점이하로 돌려 세우고 조-미 회담에 새로
 운 제동을 걸기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도발행위이다. 한국민족
 민주전선은 김○○일당의 이 도전행위를 일족에 유례없는 가장 악
 질적인 반민족적 반통일적 작태로 인정하면서 준열히 규탄한다. 우
 리 민족이 둘로 갈라져 동족상잔까지 치르고 오늘까지 분열의 비극
 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외세와 그 주구집단인 청와대 반역도배들
 때문이다. 더우기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고립 압살하려고 광분
 하면서 나라안에 핵전쟁의 불씨를 끌어들이고 모처럼 조성된 대화
 의 분위기마저 파괴하고 남북관계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
 는 장본인은 바로 청와대의 김○○ 악당들이다. 이런 자들이 감히
 우리 민족의 자주 성새이고 통일의 보루인 이북을 걸고 드는 것은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격의 어리석은 행위이며 북으로
 쏘리고 있는 민심을 막아보려는 가궁한 몸부림이다. 잘 알려진 바
 와같이 이번 이북의 불상사와 관련해 취한 한국 위정자들 비인간적
 이며 비도덕적인 처사는 지금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김○○일당은 지구촌에서 도의도 인륜도 모르는 타기할 야만의 집
 단으로 지탄받고 있다 수치를 모면할 계책도 없고 살아갈 출로도
 찾을 수 없게 된 김○○일당은 마침내 북을 모독하고 물어뜯는 방
 법으로 헤어날 수 없는 궁지에서 벗어나 보려고 이번에 역사를 왜
 곡하는 행위에까지 매달리게 되었던 것이다. 어제는 사실무근의 핵

문제를 걸고 이북을 물어뜯고 오늘은 뼈아픈 불상사를 당하여 호곡하는 동족까지 물어뜯는 김○○일당의 비열한 작태야말로 동족의 피도 없고 민족의 얼도 없는 역적들의 가소로운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일당이 또다시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조폭스러운 망동으로 이북을 모독함으로써 그들은 이미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지악위에 또 새로운 엄중한 죄악을 첨가하게 되었다. 김○○일당은 후회하지 말아야 한다. 죄를 지으면 민족은 그것을 계산하기 마련이다. 우리 민중은 나라의 정세를 또다시 예측할 수 없는 대결국면으로 몰아가는 김○○ 일당의 무분별한 망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일당은 비애에 쌓여 있는 국민의 감정이 폭발할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하는데 대해 직시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북 민중과 함께 우리 겨레는 역사를 왜곡하며 민중을 모독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할 것이며 값비싼 댓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다. 시간은 우리의 이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5. 미·북 3단계 회담 관련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문

(7.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은 제3단계 조-미 회담에서 북남 관계 개선을 조-미 관계개선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돌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조선중앙 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보도된 바와같이 제3단계 조-미 회담이 8월 5일 제네바에서 재개된다. 이와관련하여 조선반도 핵문제를 포함한 조-미 사이의 현안 문제들을 일괄타결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전망이 내다보이고 있다. 이러한 때에 남조선 당국자들이 제3단계 조-미 회담에서 북남관계 개선을 조-미 관계 개선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꺼꾸로 된 논리를 들고 나오는데 대해 우리는 문제시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반도의 현 상황을 놓고 볼 때 이 지역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문제는 그 직접적 당사자인 우리와 미국 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성격의 문제이다. 특히 조선반도 핵문제의 발생경위와 그것이 오늘까지 지속되어온 과정을 보면, 제3단계 조-미 회담에서 경수로 제공담보가 확고히 마련되고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 해소, 신뢰조성 문제 등이 해결되어 조-미 관계가 실제로 개선되면 북남 관계에도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이다. 이렇게 놓고 볼때 남조선 당국자들이 제3단계 조-미 회담에서 북남관계 개선을 조-미 관계 개선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태도에서가 아니

라 오히려 문제 해결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세계는 일년나마 거듭되는 악순환 과정을 거쳐 모처럼 마련된 이번 제3단계 회담이 순조롭게 진척되어 의의있는 결실을 가져 오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미 회담에서 북남관계 개선을 조-미 관계 개선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 핵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장애가 조성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제 설자리와 앉을 자리를 똑바로 알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6. 북한 정치범관련 국제사면위 발표문(7. 30)

이 문서는 최근 몇개월간 북한에 정치적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58명에 관해 국제사면위가 편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이중 대부분이 양심수인 것으로 믿고 있다. 명단이 밝혀진 이들중 일부는 수용소에서 사망했을지도 모르며 다른 사람들은 30년 또는 그 이상이 되는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는지 모른다. 그들중 일부는 1990년까지는 살아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나머지는 10여년 이상 동안 전혀 소식이 없다.

국제사면위가 접수한 정보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이들의 행방에 관한 그들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이 없다. 국제사면위는 이 문서에 나타난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정치범들의 운명에 관해 보고해 줄 것을 북한 당국에 새로이 제기하고 있다.

북한은 하나의 은폐주의의 국가이다. 북한의 형법은 북한 당국이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광의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갖고 있다.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가운데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들중의 일부는 북한에 있는 그들이 친척들의 사정에 대한 정보를 폭로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인권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국제사면위의 제안은 아직까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개별적인 사례와 일반적인 인권에 관한 정보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해 달라는 국제사면위의 요청에 대해서도 대꾸하지 않고 있다.

1993년 10월 국제사면위는 북한의 인권에 관한 보고서(북한 : 국제사면위의 관심요약, AI INDEX ASA 24/03/93)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정치범 구금의 상태, 열악한 대우, 사형, 헌법 및 법률상의 보호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1993년 10월(AI INDEX ASA 24/04/93) 국제사면위가 역시 발간한 바 있는 북한당국이 보낸 4페이지의 회신에서 그들은 사형에 관한 국제사면위의 정보의 정확성은 인정하였으나 법률적 문제 및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의 자료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하여간 북한 당국은 정치범의 구금과 구금의 상태에 관한 국제사면위의 관심에 답변하지 않았다. 북한은 1994년 상반기 국제사면위에 보낸 서한에서 국제사면위가 10월에 거명한 사람들중 두명은 죄수들이지만 북한 당국이 밝힌 것 외에 어떤 다른 독자적인 증거도 없으며 그 밖에 다른 보도된 죄수들에 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없다고 부인하였다. 대부분의 다른 개별적 사례들에 대한 북한당국의 침묵은 국제사면위로 하여금 많은 정치범들이 극히 가혹한 상태에서 구금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국제사면위는 정치범의 친척들이 종종 함께 구금되거나 연금상태에 있으며, 또는 오로지 추방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 국제사면위는 현재까지는 이러한 보고를 확인할 수 없다. 이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 나타난 사람들의 행방과 법적 지위 그리고 그들의 친척들에 대한 사정에 관해 공개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북한 당국에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조호평과 코이데 히데코의 경우〉

조호평은 1936년 일본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 출생했다. 그는 일본 토호쿠 대학을 졸업한 후인 1954년 코이데 히데코와 결혼하였다. 1962년 2월 11일 조호평과 코이데 히데코는 북한에 정착할 생각으로 그곳에 갔다. 그가 북한에서 일본에 있는 친척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그는 한반도의 동해안에 있는 주요 도시인 함흥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심리학 강사가 되었다 한다.

1960년대 중반에 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당국의 의심을 받게 되었고 1967년 일본에 있는 친척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서 그는 “재교육” 장소로 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일본에 있는 그의 친척의 말에 의하면 그는 함경남도에 있는 한 과수원으로 보내져 노동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코이데 히데코에 관한 소식은 전혀 없었다. 1973년 그녀는 5년동안 소식이 끊긴 후 처음으로 일본에 있는 친척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녀는 1963년에 낳은 아들과 1965년과 1966년에 낳은 두딸 등 세자녀와 함께 홀몸으로 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녀의 친척들은 그후로는 그녀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

일본에 있는 조호평의 가족은 조호평과 코이데 히데코를 만나보려고 몇차례 시도하였으나 북한으로부터 방문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1983년의 경우 한번 허가가 나왔으나 그 후 취소되었다.

조호평과 코이데 히데코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알 수 없다. 북한 관리들은 일본에 그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행방에 관해 수없이 문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식도 전해주지 않고 있다. 국제사면위는 조호평이 구금되어 있거나 아니면 “실종”되어 있을 것으

로 우려하고 있다.

〈김덕환의 경우〉

북한의 한 엔지니어인 김덕환은 1966년 러시아에 있는 그의 부인에게 편지를 보내온 것을 끝으로 소식이 끊겼다. 그는 북한 당국이 명백히 그를 위협으로 보았기 때문에 구금상태후 “실종”되었다.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러시아인인 그의 부인이 근 30년동안 그를 추적해 보려고 시도하였지만 북한 당국의 침묵 일관으로 아직까지 성과가 없다.

김덕환은 1935년 함경남도(당시는 일본 식민지, 현재는 북한)에서 태어났다. 1955년 그는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 소련에 있는 PsKov에 파견되었다. 그곳에 체재하는 그는 발렌티나 쿠라쇼바라는 러시아 여자와 결혼하였다. 그는 1957년 PsKov전설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북한으로 돌아왔다. 발렌티나 쿠라쇼바와는 1958년 5월 북한에서 합류했고 1959년에 아들을 낳았다.

1960년을 시점으로 북한과 소련간의 관계는 소련과 중국과의 이념논쟁으로 인해 악화되었다. 발렌티나 쿠라쇼바에 의하면 이념갈등으로 야기된 긴장은 북한에 거주하는 소련국적의 사람들을 의심하고 박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발렌티나 쿠라쇼바는 1961년 6월 그녀의 아들을 데리고 PsKov로 돌아왔다. 그러나 김덕환은 그녀를 따라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발렌티나 쿠라쇼바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김덕환에게 그녀와 이혼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동구 또는 소련인의 배우자를 가진

많은 북한인들 역시 이같은 요구를 받았고 그 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녀는 그가 1961년말 또는 1962년초 “재교육”수용소에 수감되게 된 이유는 그가 그녀와의 이혼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김덕환의 수감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명백하지 않은 바 그가 어떤 범죄나 모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후 5년동안 김은 PsKov에 있는 부인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병이 들었으며 때때로 배고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가 억류된 장소는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100km 떨어진 평안남도 신양군에 있었다. 발렌티나 쿠르쇼바는 그의 병이 활동성 방사선물질을 다룬 것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그것은 확인될 수 없다. 그는 그녀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가 소련에서 교육받았다는 이유로 수감되었으며 그녀와 이혼하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였다. 그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낸 것은 1966년이였다.

김덕환은 만일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양심수이다. 국제사면위는 그가 수감된 것은 단지 그의 개인적 배경과 사생활 때문이며 그는 노동당이 이끄는 북한 당국이 자의적으로 취한 결정의 희생자라고 믿고 있다. 국제사면위는 김덕환의 행방을 공개하고 1960년대에 그를 구금한 이유를 적시해 줄 것과 그의 소식을 알려달라는 발렌티나 쿠라쇼바의 계속된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인 이유를 설명해줄 것을 북한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1990년 승호마을에 구금된 정치범〉

국제사면위는 평양에서 70km가량 떨어진 승호마을에 있는 수용소

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는 바 그곳에서는 1990년말 현재 최소한 49명의 정치범들이 장기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사면위는 아래에 이름이 밝혀진 사람들이 1990년 이후 다른 장소로 옮겨졌을지는 몰라도 아무튼 지금도 구금되어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승호마을의 수용소 상태는 감방에 조명은 거의 없고 난방은 전혀 없을 정도로 가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승호에 구금된 정치범 중 한사람이 간수에게 맞아 죽은 일이 적어도 한 건은 있다. 1990년 이 수용소에는 전 고위관료, 전 재일동포 등과 같은 수십명의 “특별”정치범은 물론 뚜렷한 개인적 배경이 전혀 없는 “보통”정치범 등 수백명(600명 가량)을 수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소식통이 전해준 승호수용소의 약도는 이 문서에 첨부되어 있다.

다음에 명시되어 있는 정치범들은 1990년말 즈음 승호마을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들이 구금된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들중 일부는 간첩행위로, 다른 나머지는 반국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재일동포 출신이다. 일본에 있는 소식통에 의하면 1958년 이후 일본에서 태어났거나 일본 식민지시대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중 93,000명이 북한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그들중 대부분은 1960년대 중반이후 전혀 소식이 없으며 일본에 있는 그들의 친척들은 그들이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북한 지역내의 오지에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들중 일부는 아직도 양

심수로 구금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육체적인 제한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

다음 표는 1990년 「승호」에 구금되어 있는 49명의 정치범 명단이다. 국제사면위는 1990년 이후에 그들의 행방에 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갖지 못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그들의 대부분이 아직도 구금상태에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 기구는 북한 당국에게 그들의 현재 행방, 승호에 구금된 이유, 그들이 처해 있는 형편과 그들 친척들의 행방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번호	이	름	출	신 (전 직)
1	안	암	준	재일동포
2	안	홍	갑	재일동포
3	안	이	준	재일동포
4	조	복	애	한국전 참전
5	조	병	욱	남한
6	조	종	갑	재일동포
7	최	경	식	미상
8	정	정	도	남한
9	정	우	택	재일동포
10	강	대	용	재일동포
11	강	정	숙	남한
12	강	수	호	재일동포
13	강	용	수	재일동포
14	김	보	겸	남한

번호	이 름	출 신 (전 직)
15	김 병 현	재일동포
16	김 천 해	재일동포
17	김 인 봉	전 북한무역부 담당자
18	김 진 호	재일동포
19	김 종 호	북한군 동해안지구 부사령관
20	김 상 일	북한 무역부 참사관
21	김 용 길	재일동포
22	고 대 기	재일동포
23	고 상 문	남한
24	곽 철 (곽 종 구)	재일동포
25	권 봉 학	재일동포
26	이 치 수	남한
27	이 대 철	재일동포
28	이 동 호	제3행정처(방첩부)부처장
29	이 재 용	한국전중 정치위원
30	이 재 용	북한(상기이름과 무관, 직업미상)
31	이 장 수	남한
32	이 준 광	남한
33	이 나 영	북한 역사학자, 저서 “청년과 혁명”, 1960년이후 소식 단절
34	민 용 일	재일동포
35	윤 회 장	제3행정처(방첩부)부처장

번호	이 름	출 신 (전 직)
36	오 현 (김 시 택)	재일동포
37	박 창 섭	한국적 참전
38	박 무	재일동포
39	박 은 철	재일동포
40	로 준 우	남한
41	유 성 근	남한
42	서 용 철	재일동포
43	신 재 화	재일동포
44	신 목	재일동포
45	손 재 석	재일동포
46	송 귀 익	재일동포
47	송 관 호	재일동포
48	염 길 송	북한 무역부 감독관
49	염 기 환	남한

〈기타 알려진 정치범들〉

1992년 5월 국제사면위는 다음의 정치범들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소식을 얻으려 하였으나 회답을 얻지 못하였다.

한경지 : 전 외국문출판사 비서, 이 여자는 1967년 간첩혐의로 구속되어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허 익 : 소련출신의 북한인으로 전 조선노동당 고급학교장, 그는

1950년대말 그 지위에서 축출되어 노동수용소로 보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용수 : 소련출신의 북한인으로 전 언론국 국장, 이 여자는 1950년대말 그 직위에서 축출된 후 노동수용소에 보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기석 : 전 경공업부 부장, 그는 1953년 8월 그의 지위에서 축출된 후 구속되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장식 : 전 외교부 부부장,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중앙위 비서, 그는 1975년 10월 공직에서 사라졌으며 간첩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순달 : 전 노동당중앙위 연락부 부부장, 그는 1952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간첩혐의로 구속되어 1953년 6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제사면위는 이들중 일부는 양심수이거나 또는 양심수였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위에 이름이 제시된 사람들의 현재 상황과 행방 및 적절하다면 그들의 구금 또는 형편에 관한 어떠한 정보라도 밝혀줄 것을 북한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국제사면위는 1990년 승호에 구금되었던 사람들이 1991년 어딘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으며 아마도 승호수용소는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미확인 정보를 입수하였다.

7. 김일성 사망 관련 장의위원(273명) 인적사항

순번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1	김정일	소련 하바로프스크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대학 정치경제학부	당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 위원, 당비서국 비서, 국방위 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인민군 원수,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김일성의 장남
2	오진우	함남 북청	소련보병학교 육군대학	당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 위원, 국방위 제1부위원장, 인민무력부장, 인민군 원수,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빨치산출신
3	강성산	함북 경성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체코프라하공과대	당정치국 위원, 정무원 총리,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혁명2세대
4	이종욱	함북 성진	하르빈공대	당정치국 위원, 국가부주석, 중앙인민위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해방전 좌익활동
5	박성철	경북 경주	일본 상지대	당정치국 위원, 국가부주석, 중앙인민위 위원, 『조국전선』의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빨치산출신 김일성의 4촌매부
6	김영주	평남 대동군	모스크바종합대학(정경학부) 모스크바 고급당학교	당정치국 위원, 국가부주석, 중앙인민위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김일성의 동생
7	김병식	전남 신안	일본 동북대학	국가부주석, 중앙인민위 위원,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조총련』 출신

순번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8	김영남	함북 명천	김일성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정치국 위원, 정무원 부 총리 겸 외교부장, 최고인 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9	최광	함북	만주 대성중학교	당정치국 위원, 당중앙군 사위 위원, 국방위 부위원 장, 인민군 총참모장, 인민 군 차수,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빨치산출신
10	계응태	평남	남만주대학 소련고급당학교	당정치국 위원, 당비서국 비서,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겸 법제위 위원장	해방전 좌 익활동
11	전병호	함북 성산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정치국 위원, 당비서국 비서, 당중앙위 부장, 국방 위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혁명2세대
12	한성룡	함북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당정치국 위원, 당비서국 비서 겸 당중앙위 부장,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 원 겸 예산위 위원	혁명2세대
13	서운석	평남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당정치국 위원, 평남도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중앙인민위 위원, 최고인 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혁명2세대
14	김철만	평남	미상	당정치국 후보위원, 국방 위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빨치산출신
15	최태복	남포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당정치국 후보위원, 당비 서국 비서, 당중앙위 부장,	혁명2세대

순번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동독라이프차이 공대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 원	
16	최영립	양강도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정치국 후보위원, 정무 원 부총리 겸 금속공업 부 장,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혁명2세대
17	홍성남	강원 원산	김일성종합대학 체코프라하공업 대학	당정치국 후보위원, 정무 원 부총리,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18	강희원	함북	승실전문 중퇴 모스크바대학	당정치국 후보위원, 정무 원 부총리,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김일성의 외척 * '94. 7.28 사망
19	양형섭	함남 함주	김일성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정치국 후보위원, 『조국 전선』 의장, 『조평통』 위 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설 회의장	김일성의 고종사촌 매부, 김신 숙의 남편
20	홍석형	충북 괴산	미상	당정치국 후보위원, 정무 원 국가계획위 위원장, 최 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홍명희의 손자, 홍 기문의 자
21	연형묵	함북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소련 우랄대학 체코프라하대학	당정치국 후보위원, 자강 도 당책임비서 겸 인민위 원장, 중앙인민위 위원, 최 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혁명2세대
22	이선실	제주	이화여전 금강학원	당정치국 후보위원, 『한민 전』 부위원장, 최고인민회 의 제 9 기 대의원	66년 이후 3 차례 남파, 지하당조직 공작활동

순번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23	김철수	미상	미상	미상	미상
24	김기남	강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국제대학	당중앙위 위원, 당비서국 비서, 당 중앙위부장, 최고 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25	김국태	함북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중앙위 위원, 당비서국 비서, 김일성고급당학교교 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혁명2세대
26	황장엽	함북 길주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중앙위 위원, 당비서국 비서, 당중앙위 부장, 『조 평통』 부위원장, 최고인민 회의 제9기 대의원 겸 의 교위 위원장	김일성의 조카사위
27	김중린	평북 벽동	중앙당학교 소련고급당학교	당중앙위 위원, 당비서국 비서, 최고인민회의 제9 기 대의원 겸 자격심사위 위원장	김영주 처 의 인척
28	서관희	평남	모스크바대학	당중앙위 위원, 당비서국 비서, 최고인민회의 제9 기 대의원	
29	김용순	평남 평원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중앙위 위원, 당비서국 비서, 『조평통』 부위원장, 조·일 우호 친선협회 최고 고문, 최고인민회의 제9 기 대의원 겸 통일정책위 위원장	김일성의 전처 김정숙의 동생
30	김환	평북 후창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당중앙위 위원, 정무원 부 총리 겸 화학공업부장,	혁명2세대

순번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동독 라이프찌히 칼 맑스 공대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31	김복신	평북	중앙당학교	당중앙위 위원, 정무원 부총리 겸 경공업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32	김창주	평양	김일성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중앙위 위원, 정무원부총리,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김일성의 4촌동생
33	김윤혁	평남	김책공대 소련 레닌그라드 공대	당중앙위 위원, 정무원부총리,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34	장철	경북	일본 명치대학 일본 명치대학원 1년수료	당중앙위 위원, 정무원 부총리 겸 문화예술부장, 조선공연협회 회장	『조총련』 출신
35	공진태	평남	일본대학	당중앙위 위원, 정무원 부총리 겸 인민봉사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36	윤기복	함남 북청	서울 수송국교, 경기중 4년중퇴 만주의전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중앙위 위원, 중앙인민위 경제정책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37	박남기	황남 해주	김책공대 레닌그라드공대	당중앙위 위원, 평양시 행정경제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겸 예산위 위원장	
38	전문섭	함북	중앙당학교,	당중앙위 위원, 국가검열	빨치산출신

순번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소련군사학교	위 위원장, 인민군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39	류미영	미상	미상	천도교청우당 위원장, 『범민련』 북측중앙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최덕신의 처
40	현준극	함남 단천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중앙위 위원, 『로동신문』 책임주필, 기자동맹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혁명2세대
41	원동구	함남 정평	모스크바대학	당중앙위 위원, 당근로단체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42	이하일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당중앙군사위 위원, 당중앙위 부장, 국방위 위원, 인민군 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43	김익현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당중앙군사위 위원, 당중앙위 부장 인민군 차수	빨치산출신
44	이창선	함남	동경 일본대학	당중앙위 위원, 당사회문화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45	오극렬	만주 길림성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소련공군대학	당중앙위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혁명2세대
46	권희경	자강도 강계	김일성종합대학	당중앙위 위원, 당중앙위 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순번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47	김경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중앙위 위원, 당경공업 부장, 최고인민회의 제9 기 대의원	김일성의 장녀
48	강석승	평남 평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중앙위 위원, 당역사연 구소장, 최고인민회의 제 9기 대의원	김일성의 외척
49	채회정	함남 단천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중앙위 위원, 당중앙위 부장, 중앙인민위 경제정 책위 부위원장, 조선국제 합영추진위 위원장, 최고 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겸 예산위 부위원장	
50	노명근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당중앙위 부장	
51	전하철	양강도 후창	만주 용정대성 중학 중퇴 김일성종합대학	당중앙위 위원, 당중앙위 부장, 최고인민회의 제9 기 대의원	
52	김두남	평북	만경대혁명학원 강건군관학교 소련군사아카데미	당중앙위 위원, 당중앙군 사위 위원, 당중앙위 부장, 인민군 대장, 최고인민회 의 제9기 대의원	혁명2세대
53	백학림	함북 풍산	소련군사 아카 데미	당중앙위 위원, 당중앙군 사위 위원, 정무원 사회안 전부 부장, 인민군 차수,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 원 겸 법제위 부위원장	빨치산출신
54	지창익	함북	중국 유학	당중앙위 위원, 중앙인민 위 서기장, 중앙선거위 부	

순번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 9기 대의원	
55	이용무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정무원 교통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 9기 대의원	빨치산출신 김일성의 조모(이보회)의 조카
56	이지찬	평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정무원 전력공업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 9기 대의원	
57	최복연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정무원 수산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 9기 대의원	
58	김창호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정무원 전자자동화공업위 위원장, 조선공업기술총연맹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 9기 대의원	
59	이석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정무원 선박공업부 부장, 최고인민회의 제 9기 대의원	
60	박용석	함북 온성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소련철도대학	당중앙위 위원, 정무원 철도부 부장, 최고인민회의 제 9기 대의원	혁명2세대
61	이철봉	미상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당중앙위 위원, 정무원 도시경영부 부장, 최고인민회의 제 9기 대의원	혁명2세대
62	정준기	평남 안주	평양 숭실중	당중앙위 위원, 『조평통』	

순번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종합대학	부위원장,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 9기 대의원, 상설회의 의 원겸 외교위 부위원장	
63	황순희	동만주	미상	당중앙위 위원, 조선혁명 박물관 관장, 최고인민회 의 제9기 대의원	
64	신상균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중앙인민 위 부장, 최고인민회의 제 9기 대의원	
65	정하철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중앙방송 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겸 상설회 의 의원	
66	김기룡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중앙통신 사 사장, 국가공보위 위원 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67	강현수	평양	중앙당학교, 김일성종합대학	당중앙위 위원, 평양시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중앙인민위 위원, 최고인 민회의 제9기대의원	김일성의 외종제
68	박승일	평남 덕천	중앙당학교	당중앙위 위원, 남포시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중앙인민위 위원, 최고인 민회의 제9기대의원	
69	김학봉	함북 무산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당중앙위 위원, 평양북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혁명2세대

순번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당중앙위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70	백범수	함북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당중앙위 위원, 황남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중앙인민위 위원, 최고인 민회의 제9기 대의원	혁명2세대
71	최문선	황남 은돌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중앙위 위원, 황해북도 당책임비서 겸 인민위원 장, 중앙인민위 위원, 최고 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혁명2세대
72	임형구	양감도 감산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중앙위 위원, 강원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중앙인민위 위원, 최고인 민회의 제9기 대의원	혁명2세대
73	이근모	평북 정주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소련레닌그라드 공업대학	당중앙위 위원, 함북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중앙인민위 위원, 최고인 민회의 제9기 대의원	혁명2세대
74	현철규	함북 온성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소련 모스크바 대학	당중앙위 위원, 함경남도 당책임비서 겸 인민위 위 원장, 중앙인민위 위원, 최 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혁명2세대
75	이길송	양강도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레닌그라드공대	당중앙위 위원, 양강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 위원 장, 중앙인민위 위원, 최고 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혁명2세대
76	임수만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개성시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 위원	

순번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장, 중앙인민위 위원	
77	이을설	양강도	소련군사아카데미	당중앙위 위원, 당중앙군사위 위원, 국방위 위원, 호위총국 총국장, 인민군 차수,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빨치산출신
78	김봉률	평북 신의주	소련레닌그라드 대학	당중앙위 위원, 국방위 위원, 인민무력부 부부장, 인민군 차수, 최고 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소련군출신
79	김광진	평양	소련군포병기술 학교	당중앙위 위원, 국방위 위원, 인민무력부 부부장, 인민군 차수,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남북군사공동위 북측위원장	군인
80	김정각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인민무력부 부부장, 인민군 상장	군인
81	오룡방	함남	만경대혁명학원 강건군관학교	당중앙위 위원, 당중앙군사위 위원, 인민군상장, 남북군사공동위 부위원장	혁명2세대
82	김명국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인민군 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군인
83	원응희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인민군 소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군인
84	김격식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인민군 상	군인

순번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85	장성우	함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사회안전 부 정치국 국장, 인민군 대장, 최고인민회의 제9 기 대의원 겸 자격심사위 위원	군인
86	전진수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인민군 상 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군인
87	주상성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인민군 상 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군인
88	김영춘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인민군대 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군인
89	조명록	만주 연길	만경대혁명학원 중앙당학교 소련유학	당중앙위 위원, 당중앙군 사위 위원, 인민군대장 공 군사령관,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혁명2세대
90	김일철	평양	만경대혁명학원 체코대학 소련해군대학	당중앙위 위원, 당중앙군 사위 위원, 해군사령관, 인 민군 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혁명2세대
91	백창식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인민군 상장	군인
92	김룡운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인민군 상 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군인

순번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93	강동운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인민군 상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군인
94	박기서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인민군 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군인
95	한인술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인민군 상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군인
96	김하규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당중앙 군사위원회 위원, 인민군 상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군인
97	남상락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인민군 상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군인
98	현철해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인민군 상장	군인
99	이봉원	평북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종합대학	당중앙위 위원, 당중앙 군사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부국장, 인민군 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겸 자격 심사위원회 위원	혁명2세대
100	김병률	평북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당중앙위 위원	
101	주성일	함남	미상	당중앙위 위원, 『직총』 중앙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겸 상설회의 의원	
102	최룡해	황북	만경대혁명학원	당 중앙위위원, 『사로청』	혁명2세대

순번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	위 위원장, 축구협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겸 상설회의 의원	
103	최성숙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농근맹』 위원장	빨치산출신
104	김성애	황해남도 해주 주설(평양說)	평양여자사범, 김일성종합대학 (해주여자사범 說)	당중앙위 위원, 『여맹』 중앙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겸 상설회의 의원	김일성의 후처
105	백인준	평북 문산	연희전문 2년 중퇴, 일본유학	당중앙위 위원, 『문예총』 위원장,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 최고인민회의제 제9기 대의원 겸 상설회의 부의장, 의회 그루빠위 부위원장	시인
106	이몽호	미상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중앙위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겸 최고인민회의 서기장, 의회 그루빠위 부위원장	
107	문성술	평남	미상	당중앙위 위원, 당 중앙위 제1 부부장	
108	염기순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109	이용철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110	장성택	함북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고급당학교	당중앙위 위원, 당중앙위 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김일성의 사위, (김경희의 남편)

순번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111	김시학	평남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중앙위 위원, 당중앙위 부장, 최고인민회의 제9 기 대의원 겸 자격 심사위 위원	혁명2세대
112	김충일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함북도 행 정경제위 위원장, 최고인 민회의 제9기 대의원	
113	박송봉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당중앙위 제1부부장	
114	강관주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당중앙위 제1부부장	
115	김영채	미상	김책공업대학	당중앙위 위원, 당중앙위 부장, 최고인민회의 제9 기 대의원	
116	홍성룡	함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최고인민 회의 제9기 대의원	빨치산출신
117	조순백	만주, 간도	소련 군사대학	당중앙위 위원, 국가안전 보위부장, 인민군 상장	빨치산출신
118	유정숙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119	전희정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최고인민 회의 제9기 대의원	
120	김영룡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인민군 상장	
121	강석주	평남 평원	국제관계대학	당중앙위 위원, 외교부 제 1부부장, 최고인민회의 제 9기 대의원 겸 외교위 부 위원장	
122	손성필	황해도	양정고보, 일본 중앙대학 중퇴,	당중앙위 위원, 주러시아 연방 대사, 최고인민회의	김일성의 외종조부,

순번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종합대	제9기 대의원	(강양옥) 의사위
123	주창준	함북 영천	일본대 중퇴, 소련고급당학교	당중앙위 위원, 주 중국대 사,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해방전 좌 익활동
124	김국훈	함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인민경제 대학 총장, 조선·아시아, 아프리카단결위 위원장, 조·일 우호친선협회 부회 장, 최고인민회의 제9대 의원 겸 법제위 위원	해방전 좌 익운동
125	조세웅	평북	김책공업대학 소련 유학	당중앙위 위원, 최고인민 회의 제9기 대의원	
126	차용진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127	주규창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당중앙위 부부장	
128	김운상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129	김희일	함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중앙인민 위 경제정책위 참사, 최고 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130	최만현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최고인민 회의 제9기대의원	
131	럼태준	함남	미상	당중앙위 위원, 『조국전 선』 중앙위 의장, 최고인 민회의 제9기 대의원 겸 상설회의 의원	해방전 좌 익운동
132	럼재만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평안북도 행정경제지도위 위원장,	

순번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133	변창복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남포시 농촌경리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134	최인덕	강원	미상	당중앙위 위원,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총장, 인민군 차수,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빨치산출신
135	태병렬	함북 무산	미상	당중앙위 위원,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관장, 인민군 대장,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빨치산출신
136	주길본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2·8비닐론연합기업소 부지배인	
137	윤호석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대안중기연합기업소 부지배인	
138	홍시학	함북 은성	중앙당학교 소련고급당학교	당중앙위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혁명2세대
139	최진성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홍남비료연합기업소 책임비서	
140	김달현	평남	김일성종합대학 알바니아 유학	당중앙위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2·8비닐론연합기업소 지배인	김일성의 5촌 조카 사위
141	정철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142	허극성	미상	미상	당중앙위 위원, 인민군 상장,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군인

순번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143	이두익	만주연길	만주안전군관학교, 소련레닌그라드 종합군사대학	당중앙위 위원, 당중앙군사위 위원, 인민군 차수,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빨치산출신
144	이성대	함북길주	국제관계대학	당중앙위 후보위원, 정무원 대외경제위 위원장	
145	김응상	동만주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국가건설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해방전 좌익운동
146	김원진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정무원 농업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147	김리룡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정무원 석탄공업부 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148	곽범기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정무원 기계공업부 부장	
149	김세영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정무원 자원개발부 부장	
150	박원현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151	김학섭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정무원 채신부 부장	
152	김성구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정무원 지방공업부 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153	오성렬	만주길림성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정무원 해운부 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혁명2세대

순번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154	최기룡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정무원 교육위원장 겸 고등교육부장, 국가학위·학직수여위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155	이재운	함북	중앙당학교 소련고급당학교	당중앙위 후보위원, 정무원 노동행정부 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156	윤기정	함남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정무원 재정부 부장, 조선취거협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157	김수학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정무원 보건부 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158	이룡섭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중앙검찰소장, 인민군 중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겸 법제위 위원	군인
159	박명철	평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국가체육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160	채규빈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161	정성택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정무원 중앙은행 총재,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162	김정숙	평남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민주조선』 책임주필, 최고인민	김일성의 4촌동생

순번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회의 제 9 기 대의원 겸 의교위 위원	(허담의 처)
163	이 병 옥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인민무력부 부부장, 인민군대장, 최고인민회의 제 9 대의원	군인
164	정 창 렬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인민무력부 부부장, 인민군 상장	군인
165	김 대 식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인민군 중장,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군인
166	전 재 선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인민군 부총참모장, 인민군 대장	군인
167	여 춘 석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인민군 상장,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군인
168	김 성 규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인민군 상장,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군인
169	정 호 균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인민군 상장,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군인
170	여 병 남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인민군 상장,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군인
171	이 원 재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인민군 상장,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대의원	군인

순번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172	주승남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인민군 상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군인
173	원명균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 인민군 상장	군인
174	백상호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인민군 중장	군인
175	김복문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인민군 상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군인
176	이태철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인민군 중장	군인
177	박재경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인민군 중장	군인
178	림동옥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179	이봉익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황남일보사 책임주필, 조선기자동맹 황남위 위원장	
180	김중협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181	채형식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당중앙위 제1 부부장	
182	림상종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183	이성복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184	이화선	미상	국제관계대학	당중앙위 후보위원	
185	홍인범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186	김철명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사회과학협회 제1 부위원장,	

순번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최고인민회의 제 9기 대의원 검 외교위원회 의원	
187	길재경	미상	국제관계대학	당중앙위 후보위원, 당국 제부 부부장, 최고인민회 의 제 9기 대의원	
188	박봉주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남흥 청년화학연구소 당책임비서	
189	김유순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체코프라하공대	당중앙위 후보위원, 주루 마이나 대사, 최고인민회 의 제 9기 대의원	
190	김재봉	미상	국제관계대학	당중앙위 후보위원 주 덴마크 대사	
191	박중국	함남	김일성종합대학 소련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당중앙위 후보위원, 인민 군 상장, 최고인민회의 제 9기 대의원	군인
192	고정식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193	강순희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당중 앙위 부부장, 최고인민회 의 제 9기 대의원	
194	이량숙	동만주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정무 원 지방공업부 부부장	해방전 좌 익운동
195	장국찬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당중 앙위 부부장	
196	최상열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197	백세운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조선 컴퓨터센터 총국장, 최고 인민회의 제 9기 대의원	
198	옥봉린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김일성	군인

순번	성 명	출 생 지	학 력	경 력	비 고
				정치대학 총장, 인민군 중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199	김 룡 연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만경대혁명학원 원장, 인민군 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군인
200	정 송 남	함남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정무원 대외경제위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201	이 영 균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농업과학원 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겸 예산심의위 위원	
202	임 룡 재	황북 황주군	황주보통학교 원예학교 고등중학교 일본동경제대	당중앙위 후보위원, 중앙식물원 원장, 『조평통』상무위원, 생물학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겸 예산심의위원회	식물학자
203	여 연 구	중국 상해	모스크바대학	『조국전선』중앙의장, 『조평통』부위원장, 『범민련』북측본부 부의장, 『여맹』상무위원, 해외동포 옹호추진위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겸 상설회의 부의장, 회의 그루빠위 부위원장	여운형의 장녀

순번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204	신진순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문예총』부위원장, 『법민련』부측 중앙위원	작가
205	김락희	평남 개천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평안남도 농촌경리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206	조창덕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광업협회 위원장	
207	허순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황북도 행정경제위 부위원장	
208	황석규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덕천지구 탄광기업소 당책임비서	
209	박수범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김종태 전기기관차종합공장 지배인	
210	김상호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북창화력발전소 연합기업소 당책임비서	
211	신태록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212	김형목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순천지구 탄광기업소 책임비서	
213	이원관	평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지배인	
214	박영찬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지배인	
215	김주호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금성트랙도르 연합기업소 지배인	
216	최명철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낙원	

순번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217	이운흡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218	임봉룡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219	김운우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220	김병팔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황해 제철연합기업소 지배인	
221	박영식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화학 공장 건설, 연합기업소 당 책임비서	
222	허민선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223	최병호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조·소 동약생산합영회사 지배인	
224	한규팔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225	최현기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김책 제철연합기업소 지배인	
226	이현호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무산탄 광연합기업소 당책임비서	
227	백은순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북부 지구석탄공업총국당책임비서	
228	전영훈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성진 제강연합기업소 지배인	
229	박시형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함북 조선연합기업소 지배인	
230	이학섭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용성 기계연합총국 총국장, 최 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231	김광수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용성 기계연합총국 당 책임비서	

순번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232	이대세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단천 지구광업총국 총국장	
233	이동성	함남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2.8비 날론연기소 당책임비서	
234	김응삼	동만주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235	백설희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최고 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236	곽영호	미상	미상	당중앙위 후보위원	
237	이락빈	미상	미상	당중앙검사위 위원장, 최 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238	김응철	미상	미상	당중앙검사위 위원, 무역 은행 총재,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239	윤서	미상	미상	당중앙검사위 위원	
240	김세운	미상	미상	당중앙검사위 위원	
241	신경식	미상	미상	당중앙검사위 위원, 정무 원 중앙통제국장, 최고인 민회의 제9기 대의원	
242	정두환	미상	미상	당중앙검사위 위원, 『조국 전선』의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겸 상설회 의 의원	
243	한영호	미상	미상	당중앙검사위 위원, 평남 화력발전소 지배인	
244	한윤창	미상	미상	당중앙검사위 위원, 남포 제철연합기업소 지배인	
245	한태용	미상	미상	당중앙검사위 위원, 제2금 속공장건설연합기업소 당	

순번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책임비서	
246	맹태호	미상	미상	당중앙검사위 위원, 흥남 비료연합기업소 지배인	
247	송금순	미상	미상	당중앙검사위 위원, 함흥 모방직공장 초급당 비서	
248	김천필	미상	미상	당중앙검사위 위원, 량강 도 광업연합기업소 지배인	
249	최치선	미상	미상	당중앙검사위 위원, 정무 원 국가계획위 부위원장	
250	김태극	미상	미상	정무원 자재공급위 위원장	
251	최희정	미상	미상	정무원 국가과학기술위 위원장	
252	김평길	미상	미상	정무원 광업부 부장	
253	이춘석	미상	미상	정무원 임업부 부장	
254	김길연	미상	미상	정무원 국가과학원 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255	조운희	미상	미상	정무원 건설부부장, 최고 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256	이백하	미상	미상	미상	
257	최원익	미상	미상	중앙재판소장, 최고인민회 의 제9기 대의원 겸 법제 위 위원	
258	정문산	미상	미상	정무원 사무국 국장, 최고 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259	임정상	미상	미상	미상	
260	이호혁	미상	미상	정무원 양정부 부장	
261	이종주	미상	미상	정무원 교육위 보통교육 부장	

순번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262	최종건	함남	소련공산대학	수도건설지휘부 참모장	
263	박용남	미상	미상	원자력총국장	
264	김성환	미상	김책공업종합대학	합영공업총국장, 국제합영총회사 사장, 조선합영은행 부이사장	
265	김치덕	미상	미상	사회안전부 공병국장, 인민군 중장	
266	신일남	미상	미상	사회안전부 부부장, 인민군 상장	
267	김석형	경북	경성제대	사회과학원 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겸 상설회의 위원	역사학자
268	이지수	함북	김일성종합대학	주체과학연구원 원장, 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	
269	박관오	미상	미상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법민련』부의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겸 법제위 위원	
270	최광렬	미상	미상	김일성 고급당학교 제1부 교장, 당중앙위 부부장	
271	전주남	미상	미상	인민대학습당 총장	
272	김병훈	함북 무산	김형직 사범대	조선문학창작사 사장, 조선작가동맹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소설가
273	강영섭	평남	미상	조선기독교연맹위원장, 조선종교인협의회 부회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겸 통일정책위 위원	김일성의 외종조부 (강양옥)의 자

월간 북 한 동 향 제 157호('94. 7월호)

인 쇄 1994년 8 월 일

발 행 1994년 8 월 일

발 행 처 통일원 정보분석실

☎ 730-6659

인 쇄 소 휘문인쇄주식회사

☎ 734-2523

통분 94-8-29

〈비매품〉

